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석사학위논문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가  
기숙사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을 대상으로 -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Dormitory Life : The Ca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ormitories

2017年 2月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백 수 연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가  
기숙사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을 대상으로 -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Dormitory Life : The Ca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ormitories

지도교수 최 재 필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백수연

백수연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원장

백 지



부위원장

최 재 필



위원

조 항 만





##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가 기숙사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을 대상으로 -

지도교수 최 재 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백 수 연

---

국내 대학 기숙사는 1970년대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시기를 지나 1990년대부터 질적 성장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질적 성장을 위한 물리적 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기존의 변화 역시 기숙사 거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된 바 없다. 따라서 질적 성장에 의한 기숙사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적 성장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숙사생활 적응’에 집중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분석하여 기숙사 거주자의 환경적응을 돕고 대학 기숙사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선 독립변수인 단지형 대학 기숙사의 거주 환경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대상지인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에 적용하였으며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기숙사생활 적응 척도를 개발하였다.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거주중인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와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 기숙사생활 적응의 세 가지 요인점수를 확보하였다. 세 번째로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각 거주환경요소가 기숙사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

판별하였다. 또한 영향요인으로 판별된 요소들의 분포와 내용을 통해 적응의 관점에서 국내 기숙사의 변화과정을 평가하고 적응을 돕기 위한 기숙사 계획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기숙사, 이전 거주지, 변화 격차의 항목 중 가장 영향요인이 많은 것은 현재 기숙사이다. 예상과 달리 변화격차보다 현재 기숙사의 환경과 이전 거주지의 환경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기숙사생활 적응의 세 가지 요인 중 변화수용도는 비(非)물리적 거주환경 요소와 도시적 차원의 생활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익숙함은 거주기간과 경험과 같이 환경에 노출되는 빈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안감은 현재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 중 물리적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기숙사 계획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셋째, 국내 기숙사는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위주로 변화하여 왔으나 편의시설의 배치 이외에는 모두 불안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넷째, 이는 거주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계획의 결과이므로 절충안으로써 독립된 단위실들을 소그룹으로 묶어 공용공간을 제공하는 클러스터 타입의 기숙사를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유사개념인 만족도, 선호도 등과 구분하여 적응의 측면에서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를 다루며, 관습적으로 계획되어온 대학 기숙사를 정량화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거주환경요소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대학 기숙사, 단지형 기숙사, 기숙사생활, 적응, 거주환경요소

**학 번 :** 2015-21107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1.1.1. 연구의 배경 .....	2
1.1.2. 연구의 목적 .....	3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2.1. 연구의 범위 .....	4
1.2.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5
제 2 장 대학 기숙사의 이론적 배경 .....	7
2.1. 대학 기숙사 .....	8
2.1.1. 대학 기숙사의 특성 .....	8
2.1.2. 대학 기숙사에 대한 선행연구 .....	10
2.2. 적응 .....	11
2.2.1. 적응의 개념 .....	11
2.2.2. 유사개념 비교 .....	12
2.2.3. 환경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	13
2.3. 기숙사 거주환경요소 .....	16
2.3.1. 거주환경요소의 구분 .....	16
2.3.2. 기숙사 거주환경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	16
2.4. 소결 .....	18
제 3 장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 도출 .....	21
3.1.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 .....	22
3.1.1. 기존 기숙사 거주환경요소의 문제점 .....	22
3.1.2.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 정의 .....	23
3.2. 분석 대상지의 거주환경요소 .....	29
3.2.1. 분석 대상지 선정 .....	29
3.2.2. 분석 대상지의 거주환경요소 도출 .....	31



제 4 장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 측정 .....	43
4.1. 기숙사생활 적응 .....	44
4.1.1. 기숙사생활 적응의 정의 .....	44
4.1.2. 기숙사생활 적응 척도 .....	44
4.2. 기숙사생활 적응에 대한 설문조사 .....	45
4.2.1. 설문지의 구성 .....	45
4.2.2. 설문조사 실시 .....	49
4.2.3.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	52
제 5 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	55
5.1. 분석 방법 .....	56
5.2. 분석 결과 .....	58
5.2.1. 일반특성에 따른 적응 정도의 차이 .....	58
5.2.2.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에 따른 적응 정도의 차이 .....	63
5.2.3.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에 따른 적응 정도의 차이 .....	94
5.2.4. 거주환경요소 변화격차에 따른 적응 정도의 차이 .....	116
5.3. 결과 해석 .....	127
5.3.1. 거주환경요소 분류에 따른 영향요인 분석 .....	127
5.3.2. 세 가지 요인의 영향요인 분석 .....	130
5.3.3. 국내 기숙사 변화과정 평가 및 방향 제안 .....	134
제 6 장 결 론 .....	139
6.1. 연구의 종합 .....	140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42
부 록 .....	149

## 표 차례

[표 2-1] 선행연구에서의 적응영향요인 .....	15
[표 2-2] 선행연구를 통한 거주환경요소 선정 .....	18
[표 3-1] 생활관 건축계획의 세부설계요소 .....	24
[표 3-2]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 선정 .....	26
[표 3-3] 물리적 차원과 관계된 집합주거 설계요소 .....	27
[표 3-4] 기숙사의 거주환경평가요인 .....	28
[표 3-5] 관악학생생활관 학생비율 .....	30
[표 3-6] 관악학생생활관의 거주환경요소 구체화 .....	32
[표 3-7] 단위실 구성에 따른 평면환경요소 .....	33
[표 3-8] 거주동의 수평적 구성에 따른 배치환경요소 .....	35
[표 3-9] 동별 거주환경요소 .....	42
[표 4-1] 설문항목에 포함된 거주환경요소 .....	48
[표 4-2] 기숙사생활 적응 척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	53
[표 5-1] 예상 영향요인 .....	57
[표 5-2]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59
[표 5-3] 소속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59
[표 5-4] 전공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60
[표 5-5] 입학시기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61
[표 5-6] 동 기숙사 거주경험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63
[표 5-7] 관악학생생활관 총 거주기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64
[표 5-8] 현재 거주중인 방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65
[표 5-9] 개인공간 확보 정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67
[표 5-10] 개인공간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67
[표 5-11] 단위실 구성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69
[표 5-12] 침실의 면적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70
[표 5-13] 창고 크기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72
[표 5-14] 거주인원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73
[표 5-15] 거주자의 구성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75
[표 5-16] 단위실 내 시설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76
[표 5-17] 주거부분 형식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77
[표 5-18] 아파트형의 주거부분 형식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78

[표 5-19] 원룸형의 주거부분 형식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78
[표 5-20] 공용부분 형식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79
[표 5-21] 건축시기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80
[표 5-22] 건물 내 시설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82
[표 5-23] 거주동 내 운동시설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82
[표 5-24] 거주동 내 상가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82
[표 5-25] 단위실의 수직적 입지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83
[표 5-26] 주출입구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84
[표 5-27] 편의시설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86
[표 5-28] 동별 주출입구의 통합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88
[표 5-29] 캠퍼스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90
[표 5-30] 순환도로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92
[표 5-31] 버스정류장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93
[표 5-32] 이전 거주지의 거주기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95
[표 5-33]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형태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97
[표 5-34] 이전 거주지의 개인공간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98
[표 5-35] 이전 거주지의 단위실 구성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99
[표 5-36] 이전 거주지의 거주인원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00
[표 5-37] 이전 거주지의 거주자 구성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01
[표 5-38] 이전 거주지의 단위실 내 시설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03
[표 5-39] 이전 거주지의 주거부분 형식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04
[표 5-40] 건물 내 시설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05
[표 5-41] 이전 거주지의 건물 내 커뮤니티시설의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105
[표 5-42] 이전 거주지의 건물 내 운동시설의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106
[표 5-43] 이전 거주지의 건물 내 상가의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106
[표 5-44] 이전 거주지 단위실의 수직적 입지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07
[표 5-45] 편의시설까지의 시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09
[표 5-46] 교육시설까지의 시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10
[표 5-47] 대중교통까지의 시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12
[표 5-48] 이전 거주지의 지역지구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13
[표 5-49] 이전 거주지의 행정구역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15
[표 5-50] 이전 거주지의 행정구역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115
[표 5-51] 거주기간의 차이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17
[표 5-52] 거주형태 차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117

[표 5-53] 개인공간 확보 정도 변화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18
[표 5-54] 단위실 구성 차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119
[표 5-55] 거주인원 변화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20
[표 5-56] 거주자구성 차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121
[표 5-57] 단위실 내 시설 차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122
[표 5-58] 주거부분 차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123
[표 5-59] 건물 내 시설 차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123
[표 5-60] 거주층 변화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24
[표 5-61] 지역지구 변화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125
[표 5-62] 행정구역 거리차이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	126
[표 5-63] 거주환경요소 분류에 따른 영향요인 판별 .....	128
[표 5-64] 요인별 영향요인 판별 .....	131
[표 5-65] 기숙사 주요 거주환경요소의 시대별 변화내용 .....	135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모형 .....	5
[그림 1-2] 연구흐름도 .....	6
[그림 2-1] 일반주거와 기숙사의 특성 차이 .....	9
[그림 2-2] 유사개념의 비교 .....	13
[그림 3-1] 독립변수 도출 과정 .....	23
[그림 3-2] 거주환경요소의 구분 다이어그램 .....	25
[그림 3-3] 학부생활관(상)과 대학원생활관(하) .....	31
[그림 3-4] 단위실의 구성 유형: 개실형 .....	33
[그림 3-5] 단위실의 구성 유형: 원룸형 .....	33
[그림 3-6] 단위실의 구성 유형: 아파트형 .....	33
[그림 3-7] 주거부분의 형식: 계단실형 .....	35
[그림 3-8] 주거부분의 형식: 타워형 .....	35
[그림 3-9] 주거부분의 형식: 복도형 .....	35
[그림 3-10]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수평) .....	36
[그림 3-11] 기숙사의 입지 .....	37
[그림 3-12] 기숙사의 가로체계 축선도 .....	38
[그림 3-13] 통합도 분석결과(상)와 순환도로의 Point Depth 분석결과(하) .....	38
[그림 3-14] 순환도로로부터의 Point Depth .....	39
[그림 3-15] 편의시설로부터의 Point Depth .....	40
[그림 3-16] 단지 내에서의 통합도 .....	40
[그림 3-17] 캠퍼스 학습영역 진입부로부터의 Point Depth .....	41
[그림 3-18] 버스정류장으로부터의 Point Depth .....	41
[그림 4-1] 척도 개발 8단계 모형 .....	45
[그림 4-2] 설문지의 구성 .....	49
[그림 4-3] 예비조사 설문지 링크 .....	50
[그림 4-4] 기숙사 내 설문지 배포 .....	51
[그림 4-5] 응답자의 성별 및 입학시기 .....	51
[그림 4-6] 응답자의 소속 및 전공 .....	52
[그림 5-1] 입학시기에 따른 적응 정도 .....	62
[그림 5-2] 기숙사 총 거주기간에 따른 적응 정도 .....	64
[그림 5-3] 현재 거주중인 방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른 적응 정도 .....	66

[그림 5-4] 침실의 면적에 따른 적응 정도 .....	71
[그림 5-5] 창고 크기에 따른 적응 정도 .....	72
[그림 5-6] 거주인원에 따른 적응 정도 .....	74
[그림 5-7] 건축시기에 따른 적응 정도 .....	80
[그림 5-8] 거주 층수에 따른 적응 정도 .....	83
[그림 5-9] 주출입구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적응 정도 .....	85
[그림 5-10] 편의시설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적응 정도 .....	87
[그림 5-11] 거주동 주출입구의 통합도에 따른 적응 정도 .....	89
[그림 5-12] 캠퍼스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적응 정도 .....	91
[그림 5-13] 순환도로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적응 정도 .....	92
[그림 5-14] 버스정류장으로부터의 깊이 .....	94
[그림 5-15] 이전 거주지의 거주기간에 따른 적응 정도 .....	96
[그림 5-16] 이전 거주지의 거주인원에 따른 적응 정도 .....	100
[그림 5-17] 이전 거주지의 거주층에 따른 적응 정도 .....	108
[그림 5-18] 편의시설까지의 시간에 따른 적응 정도 .....	109
[그림 5-19] 교육시설까지의 시간에 따른 적응 정도 .....	111
[그림 5-20] 대중교통까지의 시간에 따른 적응 정도 .....	112
[그림 5-21] 거리 차이에 따른 적응 정도 .....	126

# 제 1 장 서 론

---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1.1.2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1.2.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1. 연구의 배경

대학 기숙사는 전국의 학생들이 학업을 목적으로 상경하여 거주하는 장소이다. 특히 신입생은 기숙사에 입주함과 동시에 익숙한 도시 및 주거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가족 중심의 공동체 대신 또래의 타인과 새로이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생활패턴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등 주거환경으로부터의 경험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적, 정서적 변화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학 기숙사에서의 경험은 중요성을 갖는다.

최근에는 대학 기숙사에서의 경험이 갖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대학교마다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청대학교는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MMPI검사(다면적 인성검사)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성격, 정서, 적응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학생지도에 활용하고 있으며,<sup>1)</sup> 이와 유사하게 경일대학교는 Office hour 제도와 문화교실 운영 등의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관 방마다 냉장고를 설치하고 각 층마다 조리실을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 지원을 통해 기존 질서와 규율이 강조됐던 기숙사 환경에서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생활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2)</sup> 경일대학교의 경우 물리적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들은 정서적 지원에 그치고 있고 기숙사의 어떤 환경이 학생들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 기숙사의 물리적 환경은 지난 3,40년간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변화해왔다.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최대한 많은 원거리 학생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1개의 침실에 6~10명의 학생을 수용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복도를 중심으로 4인1실 또는 2인1실의 침실이 양측에 배치되는 복도중심형으로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개의 침실

1) 천주연. (2016.09.1.). 충청대학, 기숙사 학생대상 인성검사·안전교육 실시. *한국대학신문*. Retrieved from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3095>

2) 권현수. (2016.03.17.). 경일대, 활기찬 캠퍼스 위한 대학생활관 탈바꿈.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Retrieved from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1715237499989&outlink=1>

에 거주하는 학생의 수는 줄었으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관리자가 통제하기 유리한 공간구성을 사용하는 등 여전히 거주자보다는 관리자 우선의 기숙사로 계획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복도중심형의 공간구성에서 1개의 단위실에 6인이 거주하는 거실중심형의 공간구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기숙사가 문화, 교육, 사회 활동의 내용을 강화하며 주거기능공간 중심에서 교육기능공간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관리자 위주에서 거주자 위주로 계획에서의 주된 고려대상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숙사 건축의 질적 성장은 기숙사의 주거시설과 식당 및 복지시설과 같은 지원시설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선 두 대학교의 사례와 같이 단순한 시설수준의 향상이 우선시되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건물 내부의 공간적 상황에 대한 이용자 평가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우영식, 2015). 또한 대학 기숙사의 대부분이 단지형으로 계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질적 성장의 범위 역시 모든 거주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 1.1.2. 연구의 목적

앞서 언급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대학 기숙사의 질적 성장이 거주자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각 거주환경요소를 분석하여 거주자의 기숙사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물리적 환경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리적 환경 지원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지형 대학 기숙사의 특성에 맞는 기숙사 거주 환경요소를 도출하고 그 중 기숙사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적응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단지형 대학 기숙사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세부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지형 대학 기숙사에 적합한 기숙사 거주환경요소를 도출한다.

둘째, 기숙사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환경요소를 파악한다.

셋째, 기숙사생활 적응의 관점에서 기존의 기숙사 건축의 양적 성장 및 질적 성장을 평가한다.

넷째, 종합적으로 단지형 대학 기숙사 건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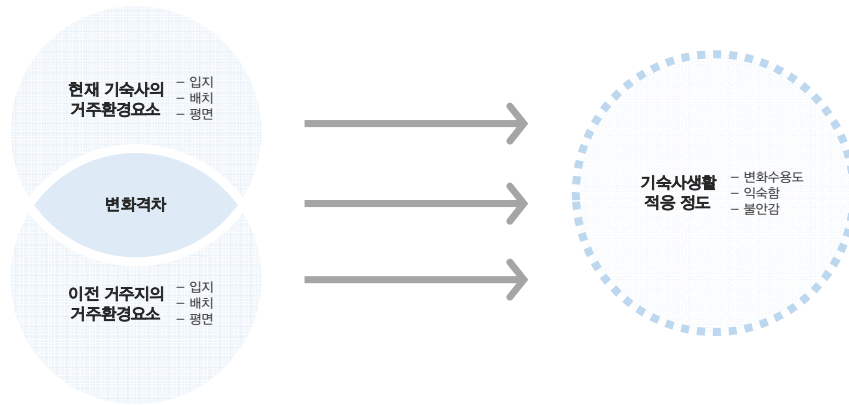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여러 목적의 기숙사 중에서도 단지형 대학 기숙사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기숙사 거주자의 경우 출신지역, 국적, 성별, 소속과 상관없이 분석 대상자인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내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가족생활관과 같이 기혼 대학원생이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는 형태의 기숙사는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1-1과 같다. 독립변수인 거주환경요소는 물리적 환경요소에 한정하였으며, 현재 거주중인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와 기숙사 바로 이전에 거주했던 곳의 거주환경요소, 둘 사이의 변화격차 세 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거주환경요소는 영역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활동범위에 따라 평면환경요소, 배치환경요소, 입지환경요소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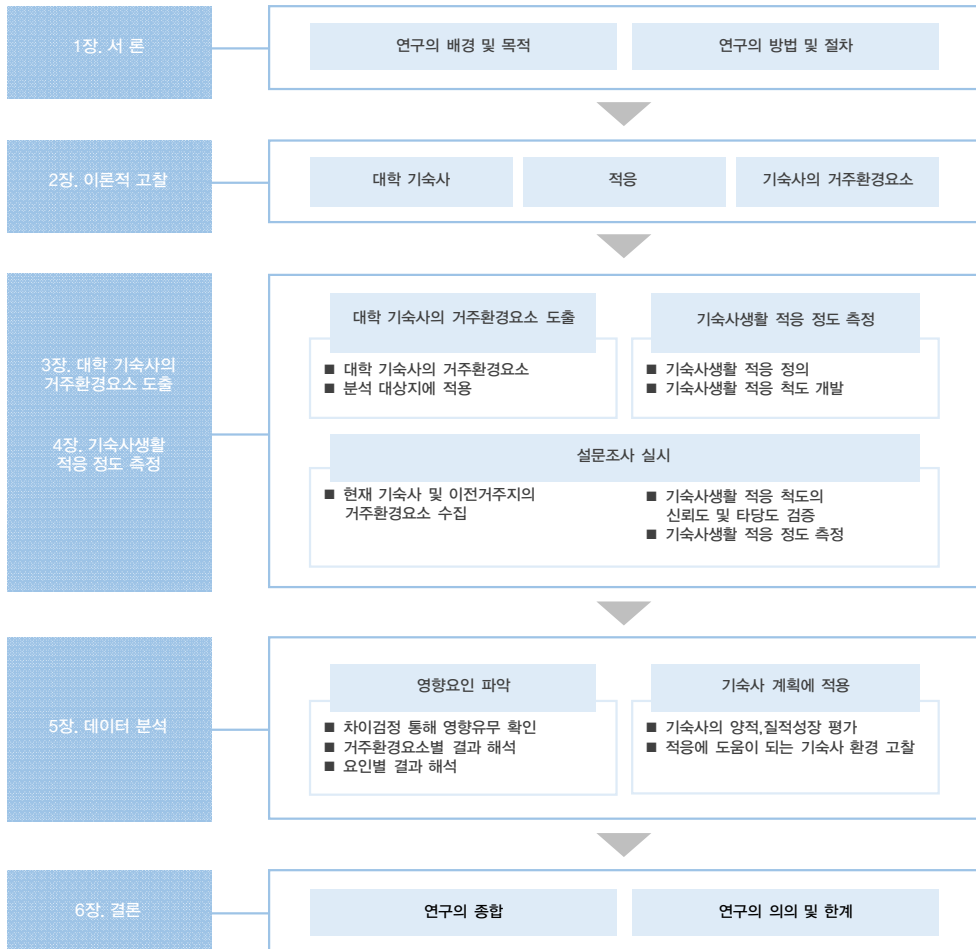
종속변수인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는 ‘인지적으로 기숙사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익숙해진 상태, 감정적으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정의하였고, 설문결과의 요인분석을 통해 이를 변화수용도, 익숙함, 불안감의 세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그림 1-1] 연구모형

### 1.2.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대학 기숙사의 일반특성과 선행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적응의 개념과 선행연구에서의 기존 기숙사 거주환경요소를 살펴봄에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대학 기숙사의 특징과 거주환경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인 단지형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대상지인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에 적용하였다. 4장에서는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만들고 3장에서 도출한 거주환경요소와 함께 설문지를 구성하여 총 267명의 응답자에게 현재 기숙사와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를 수집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 종속변수인 기숙사생활 적응을 세 가지 요인으로 구체화하였다. 5장에서는 도출해낸 거주환경요소 중 적응 정도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차이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판별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종합하여 현재 기숙사, 이전 거주지, 변화 격차의 세 분류에 따른 영향요인 분포 경향과 세 가지 기숙사생활 적응 요인별 영향요인 분포경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기숙사의 양적, 질적 성장을 점검하고 거주자의 기숙사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기숙사 계획 방안을 고찰하였다.



[그림 1-2] 연구흐름도

## 제 2 장 대학 기숙사의 이론적 배경

---

### 2.1 대학 기숙사

- 2.1.1 대학 기숙사의 특성
- 2.1.2 대학 기숙사에 대한 선행연구

### 2.2 적응

- 2.2.1 적응의 개념
- 2.2.2 유사개념 비교
- 2.2.2 환경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 2.3 기숙사 거주환경요소

- 2.3.1 거주환경요소의 구분
- 2.3.2 기숙사 거주환경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 2.4 소결

---

## 2.1. 대학 기숙사

본 절에서는 대학 기숙사의 일반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기존의 연구의 경향과 비교함으로써 대학 기숙사 거주환경요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의 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 2.1.1. 대학 기숙사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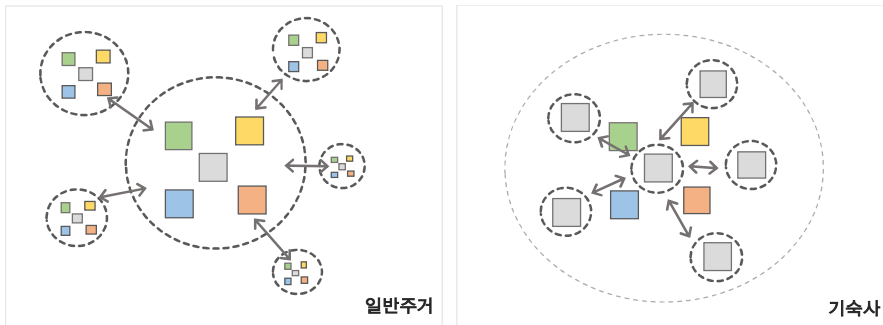
#### (1) 대학 기숙사와 일반주거의 차이점

기숙사는 주로 학교나 회사에 딸려 있으며 집을 대체하기 위한 유사주거의 공간이다. 기능적으로는 주거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정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거와 차이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Richard Dober(1963)는 대학 기숙사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을 지니고 숙식을 제공하는 거주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재학 기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주기간이 짧은 주거형태이며 특수한 교육적 설비와 주거설비의 통합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보편성이다. 기숙사는 고정된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 내의 어떤 사용자가 거주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장 보편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모두에게 균등한 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된다. 따라서 일반 주거에서 거주자가 각자의 개성과 생활패턴에 따라 공간을 계획하고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것과 달리, 기숙사에서는 각각의 거주자가 개인화시킬 수 있는 공간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임시적인 주거공간이므로 공간을 변화시킨다기보다 주어진 공간에 맞춰 경험과 행동패턴을 바꾸어 나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는 개인에게 허락된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의 범위에서도 일반 주거와는 차이를 보인다. 일반주거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하나의 단위실을 이룬다면 기숙사는 최소한의 주거기능만을 담당하는 개별 단위실들이 존재하고 부수적인 시설은 단위실과 단위실 사이에 적절히 배치되게 된다. 이를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그림2-1과 같이 일반주거는 개인공간 내부에 모든 시설이 포함하며 그 외부는 외부로 철저히 구분된다면 기숙사는 침

실 등의 기본생활공간만이 개인공간이고 기타 시설을 공유하는 반공공적 성격의 공용공간이 외부와의 사이에 한 겹 더 존재하게 된다.



[그림 2-1] 일반주거와 기숙사의 특성 차이

기숙사에 거주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기숙사는 일반주거와 차이를 보인다. 기숙사에서는 거주자가 입주와 퇴거를 신청할 자유는 갖지만 일반주거와 달리 다수의 사용자가 속해 있는 시스템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지므로 그 시기와 선발여부는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입주가 결정되더라도 구체적인 거주동이나 단위실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거주자가 본인이 거주할 구체적인 환경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 (2) 대학 기숙사와 고등학교 기숙사의 차이점

기숙사의 종류는 거주자의 소속에 따라 중고등학교 기숙사와 대학 기숙사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직장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존재하나 이러한 기숙사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일반주거공간을 제공하면서 기숙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기숙사의 범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같은 학교에 소속된 기숙사라 할지라도 대학 기숙사와 고등학교 기숙사는 큰 차이를 갖는데 이는 기숙사 거주자인 학생들의 생활패턴 차이에서 비롯된다. 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교실이나 독서실과 같이 학습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에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기숙사는 오롯이 주거기능만을 담당하게 된다. 대부분이 엄격한 규율 속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의 활동은 통제된다. 또한 효율적인 학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인 만큼 주거기능 중에서도 수면의 공간으로서 존재하게 되며, 본가로부터의 거리보다 기숙사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거주의 이유가 된다. 반면 대학 기숙사는 학습기능, 편의(지원)기능, 문화여가기능, 주거기능의 4가지 기능을 모두 담당하게 되며 기숙사 거주 학생의 하루생활패턴도 고등학생과는 확연히 다르게 된다(염대봉, 2014). 각기 다른 시간표로 강의를 듣게 되면서 낮 시간을 기숙사에서 보내게 되기도 하고, 본가로부터의 거리가 거주의 주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일반주거에서 이루어지던 각종 활동을 옮겨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공간구성의 차이로도 이어지게 되는데 대학 기숙사는 학업 이외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이 필수적인 생활공간과 동등하게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각종 여가시설을 포함하게 되고, 단지의 형태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으나 고등학교 기숙사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건물 단위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주자의 생활패턴과 거주목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부공간의 구성과 유형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같은 학교 기숙사일지라고 고등학교 기숙사와 대학 기숙사의 기능 차이를 반영하여 각각에 적절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1.2. 대학 기숙사에 대한 선행연구

대학 기숙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건축학보다는 심리학의 분야에서 더 많이 다루어져 왔으며, 분야의 특성상 거주자 개개인의 성향차이와 그러한 성향이 대학 기숙사생활이라는 특수한 거주환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앞서 고찰한 대학 기숙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측 불가능한 개개인의 성향차이보다는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가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대학 기숙사 계획 관련 연구성과는 기숙사 거주동 자체의 거주편의 및 기능적 측면에서 이해되는 1차적 공간영역에 한정되었고, 대학 캠퍼스 전체의 영역 속에서 기숙사가 갖는 의미 및 공간구성의 특성, 그리고 기숙사 단지 내에서 기숙사의 주요 거주동들이 가지는 의미, 공간구성 특성을 살피는 전체와 부분 그리고 부분과 부분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우영식, 2015). 이는 대부분의 대학 기숙사가 단일 건물이나 단지형으로 계획되는 것과 달리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대학 기숙사의 물리적 범위는 단지형 기숙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 2.2. 적응

### 2.2.1. 적응의 개념

일상생활에서 ‘적응’은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되는 것으로 정의된다.<sup>3)</sup>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생명과학에서는 적응을 생물의 대사기능 또는 형태 등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환경의 영향에서 유전적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adjustment)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표현형의 변화로 머무르는 경우(adaptation)로 구별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적응(adjustment)을 개체가 환경에 대하여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개체가 환경적 조건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것을 일컫는 말인 순응(adaptation)과 구별하는데 경우에 따라 적응과 순응을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하고 ‘adaptation’을 ‘적응’으로 번역하기도 한다.<sup>4)</sup> 이와 유사하게 심리학에서는 적응을 어떤 변화에 대하여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여 조화를 이룬 상태로 정의하며 환경에의 적응 이외에 생물학적 및 심리학적 수용능력 역시 적응의 범위로 보았다.<sup>5)</sup> 반면 정신분석학에서는 적응을 적절하고 유익하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면서 외부 세계의 현실에 적당히 맞추는 활동과, 환경을 바꾸거나 더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활동을 그 범위에 포함하였다. 또한 개인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함께 어울림”(adaptedness)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로 이끄는 심리적 과정을 모두 의미

3) 적응, 네이버 국어사전 Retrieved from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2803200>

4) 적응, 두산백과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9221&cid=40942&categoryId=32334>

5) 적응, 교육심리학용어사전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4579&cid=41989&categoryId=41989>

한다.<sup>6)</sup>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적응은 생물학적보다 심리학적 의미에서의 적응(adaptation)에 가깝다. 이와 같은 의미의 적응에 대해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나름의 정의를 내려왔는데, Gates(1923)는 개인이 환경에 대한 관계가 효과적이거나 행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를 적응으로 정의하였고, Lazarus(1976)는 단순히 환경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자신의 실정에 맞도록 변화시켜 가는 적극적 의미로 보았으며, Wolman(1973)은 신체적, 사회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고 욕구에 응하는 능력을 포함한 한 유기체의 환경에 대한 조화적 관계(harmonious relationship)를 적응이라 보았다. Piaget(1952)는 적응으로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 그리고 평형화(equilibration)와 내면화(internalization)로 설명하였는데, 동화란 인지구조에 따라서 환경에 반응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 인지구조가 수정되어가는 과정을 조절이라 하였다. 또한 평형화란 최적순응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험을 재구성하는 생득적 순응성을 말하고 이는 조절의 불균형에서 생긴다고 하였으며, 내면화란 물리적 환경에 덜 의존적이고 인지구조를 보다 많이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인지구조가 발달하고 복잡해감에 따라 내면화는 적응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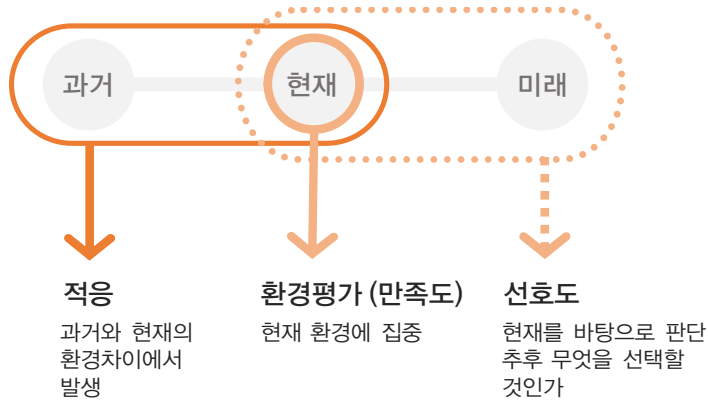
## 2.2.2. 유사개념 비교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적응과 유사개념인 선호도, 환경평가(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개념의 차이는 그림 2-2와 같이 각각의 개념이 적용되는 시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선호도가 현재를 바탕으로 이성적 판단을 내려 미래의 선택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환경평가(만족도)는 선택과 상관없이 현재의 환경과 상태에 집중하는 개념이다. 적응은 앞의 두 개념과 달리 과거에서 현재로의 환경의 변화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현재의 환경만큼 과거의 환경도 중요한 분석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적응과 만족도는 비슷한 정서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만족도와 선호도가 현재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여러 선택지중 무엇을 고를지에 대한 이성적인 개념이라

6) 적응, 정신분석용어사전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5969&cid=48639&categoryId=48639>

면, 적응 정도는 이미 주어진 환경에 얼마나 익숙해지고 편안해졌는지의 상태 혹은 그 과정에 대한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림 2-2] 유사개념의 비교

대학 기숙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주자 개개인이 구체적인 환경을 선택할 수 없고 비교적 단기간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한 거주자의 분석적 관점인 환경평가(만족도)나 선호도보다 이미 주어진 환경에 대한 반응인 적응 정도를 파악하여 거주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2.2.3. 환경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 (1) 기숙사생활 적응

‘기숙사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는 대학 기숙사가 아니라 고등학교 기숙사생활 적응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신웅(2010)은 대안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숙사생활 적응에 관하여 수행해야하는 적응과제와 적응의 촉진요인 및 방해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학교생활이 하루 중 차지하는 비중이 대학생에 비해 몹시 높고 기숙사는 학교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학 기숙사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고등학교의 기숙사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역시 기숙사 자체의 환경 영향력보다는 가정이나 수업 커리

클럽 등의 심리학, 교육학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기숙형 기숙사와 대학교의 기숙사가 갖는 특성 차이로 인해 심리적, 교육학적 관점보다는 물리적 관점에서의 환경요소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기숙사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들에서 정의한 ‘기숙사생활 적응’과는 다른 특성의 ‘기숙사생활 적응’을 정의하고 대학교 기숙사에 적합한 기숙사생활 적응을 다루고자 한다.

## (2) 대학생생활 적응

대학교에서의 적응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기숙사생활 적응’보다는 ‘학교생활 적응’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심리학이나 교육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현정(2007)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가정환경요인, 학교환경요인, 지역환경요인으로 구분하고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준수를 적응척도로 삼았다. 변강희(2009)는 지방캠퍼스 대학생의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면서 적응 영향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지방캠퍼스 대학 생활 변인, 사회적지지 변인을 설정하였으며, 조사측정도구는 사회적지지 척도(박지원, 1985)와 대학생생활 적응 척도(Baker&Siryk, 1984)를 사용하였다. 곽용(2011)은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학환경 지각과 대학생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적응 영향요인인 대학환경 지각을 사회적지지, 캠퍼스 환경, 학습 환경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대학생생활 적응을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 만족도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조지용(2014)은 가족관계에 설명요인의 초점을 두고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표 2-1] 선행연구에서의 적응영향요인

주제	제목	영향요인	적응척도
대학 생활 적응	학생의 환경적 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현정, 2007)	가정환경요인 학교환경요인 지역환경요인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준수
	지방캠퍼스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연구 요인 (변강희, 2009)	인구사회학적 변인 지방캠퍼스 대학생활 변인 사회적지지 변인	대학생활적응척도 (SACQ)
	제한 중국유학생의 대학환경 지각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곽용, 2011)	사회지지 (친구/교사지지) 캠퍼스 환경 학습 환경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 만족도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조지용, 2014)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 부모와의 의사소통	대학생활적응척도 (SACQ)
기숙사 생활 적응	대안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 적응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박신웅, 2010)	적응 촉진요인 적응 방해요인	적응과제1~3 (관계형성, 학업의 성공을 위한 과제)

### (3)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적응

이러한 연구들은 환경 요인보다는 개인의 특성이나 성향과 같이 개개인의 차이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대학생활 적응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기숙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대학 기숙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대학 기숙사의 경우 교내활동 이외의 수면, 생활준비, 가사 등과 같은 주거행위를 자택이 아닌 기숙사라는 한정적 영역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기숙사 거주자들이 하루의 전체를 교내에서 보내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기숙사 사용자의 1일 생활시간은 교내 생활시간과 기숙사내 생활시간으로 구분해야하며 이와 같은 기숙사 내 생활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내 생활과는 소요시간과 형태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되어 다루어져야 한다(정정

갑, 2002).

## 2.3. 기숙사 거주환경요소

### 2.3.1. 거주환경요소의 구분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주택을 포함한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행태와 관련된 사회심리적인 환경으로 구성된다(임성호·김철수·윤병구, 1998).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거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 공간, 시설, 설비뿐 아니라 일조, 채광 등과 같은 실내환경의 조건들을 말하며(최용부, 2005), 주거의 사회심리적 환경은 거주자의 개인적인 행태심리 요소와 관련된 주거환경으로써 거주자의 행동, 신뢰감,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성 등에 영향을 준다(고권수, 2008; 이상렬, 2004).

### 2.3.2. 기숙사 거주환경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 (1) 연구의 범위

기숙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교육학, 심리학의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일부 연구는 건축학의 관점에서 ‘기숙사 거주환경’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거주환경 요소의 범위를 거주공간인 단위실의 실내환경과 평면유형 정도에 한정하고 있다. 정정갑(2002)은 서로 다른 평면유형의 3개 대학 기숙사를 대상으로 평면유형별 거주 후 평가를 실시하였고, 박행자(2008)는 대학 기숙사를 주거공간과 교육공간으로 나누고 기능별 공간들에 주목하여 거주환경요인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의 활동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연구가 단위실에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최근에는 기숙사의 입지적 요소를 강조하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염대봉(2014)은 대학 기숙사의 입지유형을 7개로 분류하고 입지유형이 기숙사생들의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우영식(2015)은 대학 생활관의 거주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생활관을 1차, 2차, 3차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건축 계획적 요

소를 평면계획, 배치계획, 입지계획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하였다.

다른 종류의 기숙사와 달리 대학 기숙사는 캠퍼스 내에서 단지의 형태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숙사 거주자들은 도시와 같이 넓은 범위의 거주환경변화도 함께 경험하게 되므로 기숙사생활 적응을 연구함에 있어서 기숙사와 캠퍼스와의 관계나 외부와의 관계와 같은 입지적 요소 역시 영향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연구주제

기숙사 거주환경요소가 활용된 연구주제는 기숙사 환경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환경평가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이외에는 유사개념인 선호도를 연구하는 경향이 일부 있으나 적응 정도를 다루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각 연구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범위와 기준으로 환경요소를 구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지상(1991)은 대학 기숙사 중 거주공간에 한정된 환경 평가를 시행하면서 물리적 환경과 사회 심리적 환경, 행위 수행 정도를 함께 분석하였고, 박행자(2008)는 행태적 인자, 기능적인자, 기술적인자로 환경요소를 구분하였다. 반면 류숙희(2013)는 실내환경요소에 집중하고 있고 김민경(2015)는 생활공간, 학습공간, 복지편의공간, 외부공간으로 구분하는 등 선호도 조사의 경우 만족도 조사보다 물리적인 요소를 주로 다루는 경향이 나타나며, 그 범위도 실내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표 2-2] 선행연구를 통한 거주환경요소 선정

연구주제	제목	환경요소 구분
환경평가 (만족도)	대학기숙사 거주공간의 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유지상, 1990)	물리적 특성, 물리적 환경, 가구계획, 사회 심리적 환경, 행위 수행 정도
	대학기숙사 거주환경의 인과분석 연구 (박행자, 2008)	행태적 인자, 기능적 인자, 기술적 인자
	국립대학 생활관의 건축계획 특성과 거주성 평가에 대한 연구 (우영식, 2015)	입지계획요소, 배치계획요소, 평면계획요소
	기숙사 단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영역성 지각과 거주만족도 (허진선, 2003)	개인적 특성, 거주환경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
	기숙사와 자가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른 특목고의 기숙사 환경개선 요구도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진애순, 2009)	물리적 주거환경, 사회심리적 주거환경
선호도	대학 기숙사의 실내 색채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 분석 (류숙희, 이은정, 2013)	로비, 식당, 복도, 라운지, 개인공간
	거주자 선호도 분석에 기초한 행복연합기숙사 건축계획 연구 (김민경, 2015)	생활공간, 학습공간, 복지편의공간, 외부공간

## 2.4. 소결

기숙사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을 모두 수용해야하는 시설이며, 학생들이 기숙사 입주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입주가 결정되더라도 방이나 동 등 구체적인 환경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거와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기존의 대학 기숙사에 대한 연구들이 개개인의 성향이 갖는 영향력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가 갖는 영향력을 연구하여 거주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영향 요인을 찾고 이를 기숙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의 적응이나 대학생활 적응 전반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대학 기숙사에서의 적응은 거주환경전반이 달라지는 시기이므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고등학교 기숙사와는 다른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범위에 있어서는 유사개념인 만족도나 선호도와 달리 적응 정도는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이므로 현재의 거주환경요소뿐만 아니라 과거의 거주환경요소도 함께 영향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적응 정도에 대한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과거 각각의 거주환경요소 못지않게 각 거주환경요소의 변화 격차 역시 적응 정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숙사 거주환경요소의 범위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이 단위실의 평면유형이나 실내환경요소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대학 기숙사는 대부분 단지형으로 계획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기숙사에 비해 적응해야하는 거주환경의 범위가 더 넓다. 대학기숙사의 특성과 적응의 특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기숙사 거주환경요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와는 다르게 대학 기숙사에 적합한 거주환경요소를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거주환경요소와 대학 기숙사의 특성을 바탕으로 독립변수인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 제 3 장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 도출

---

### 3.1.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

3.1.1 기존 기숙사 거주환경요소의 문제점

3.1.2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 정의

### 3.2. 분석 대상지의 거주환경요소

3.2.1. 분석 대상지 선정

3.2.2. 분석 대상지의 거주환경요소 도출

---

### 3.1.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

#### 3.1.1. 기존 기숙사 거주환경요소의 문제점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기숙사는 거주자 개인이 거주동이나 단위실 유형 등과 같은 구체적인 환경을 선택할 수 없으며, 다른 유형의 기숙사와 달리 단지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른 종류의 기숙사에 비교하였을 때 학업 이외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이 필수적인 생활공간과 동등하게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각종 여가시설을 포함하게 되는 등 단위실 이외의 공간이 갖는 중요도가 높다. 다른 종류의 기숙사 거주자가 단순히 주거영역의 환경 변화만 겪는다면 대학 기숙사의 거주자는 도시의 차원부터 단위실까지 생활 전반에서 거주환경 변화를 겪는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학 기숙사의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단일건물형인 고등학교 기숙사와 단지형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왔으며, 그 결과 단위실 내부의 실내환경요소나 단위실 배치 유형을 영향요인으로 다루는 연구에 그쳐왔다. 염대봉(2014)의 연구에서 대학 기숙사의 입지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그 후 우영식(2015)에 의해 입지적 요소가 반영된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가 제시되었다.

염대봉(2014)과 우영식(2015)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근거지 개념<sup>7)</sup>에서의 생활공간 내 모든 환경요소를 다루고 있긴 하나 두 연구는 기숙사의 계획단계나 이미 계획된 기숙사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대학의 기숙사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하나의 기숙사를 세분화하여 각 요소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와 그 성격이 다르다. 또한 접근 방식 및 용어 역시 설계자나 건축분야 전공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기숙사 거주자의 입장에서 적응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주환경요소를 새로이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거주환경요소를 종합하여 보편적으로 단지형 대학 기숙사에 적용 가능한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다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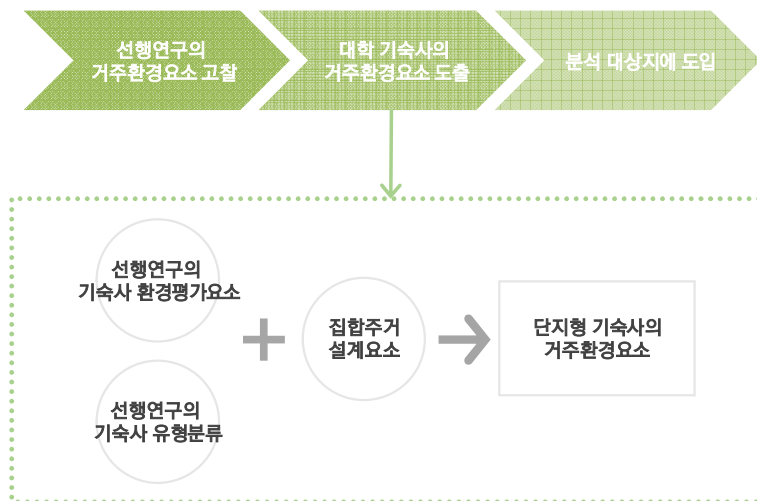
7) 공간적 범주는 크게 주생활과 직접 연관된 활동범위인 근린생활권의 범주(Amos Rapoport, 1997)로 보는 경향과 사회적 공간의 위계인 근거지 개념(Douglas Porteous, 1977)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대학기숙사의 전체시설을 다루는 데에는 근거지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석 대상지에 도입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할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 3.1.2.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 정의

#### (1) 단지형 기숙사

본 연구에서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를 정의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범주의 거주환경요소를 포함시키는 것과 설계를 하는 건축가의 입장이 아니라 조사대상자인 기숙사 거주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소로 세부항목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살펴본 기존의 기숙사 환경평가요소에 심우갑(1993)의 연구에서 제시된 집합주거 설계요소를 반영하여 단일건물이 아닌 단지형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림 3-1] 독립변수 도출 과정

#### (2) 주요요소

단지형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를 구성하는 주요요소는 우영식(2015)의 연구에서 제시된 3가지 영역성 개념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우영식의 연구에서 정의된 대학 기

숙사의 거주환경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역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활동범위에 따라 3차적 영역인 입지계획요소, 2차적 영역인 배치계획요소, 1차적 영역인 평면계획요소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을 표 3-1와 같이 구분하였다. 입지계획요소는 거주동의 입지구조와 관련한 3차적 공간영역 측면에서 캠퍼스 전체 환경에서 거주동이 위치하는 입지여건과 관련된 요소이며, 배치계획요소는 거주동 영역 내 시설배치에 따른 2차적 생활반경을 고려한 것으로 거주동 및 복지시설 등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루는 외부공간 체계를 포함하는 요소이다. 평면계획요소는 숙식의 거주적 기능인 1차적 생활기능적 측면을 다루는 거주동 내부공간의 자체시설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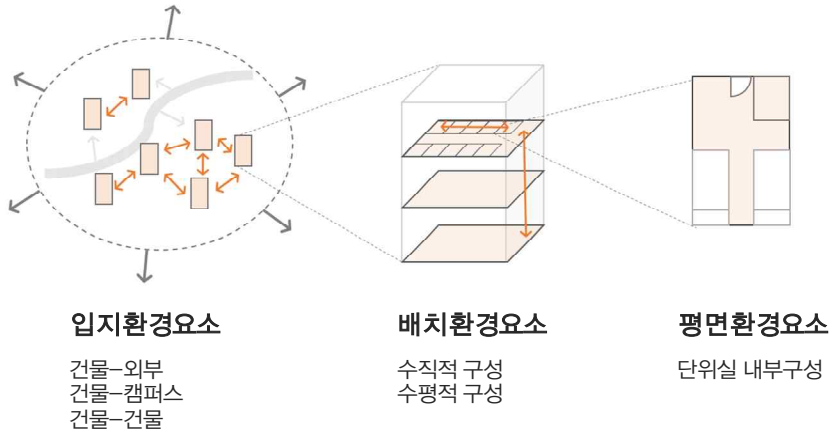
[표 3-1] 생활관 건축계획의 세부설계요소

(출처 : 우영식 (2015). 국립대학 생활관의 건축계획 특성과 거주성 평가에 대한 연구)

영역성 개념	계획적 요소	주요항목	세부설계요소
3차적 영역	입지 계획	공간구조 요소	지형, 용적률, 밀도, 이격거리, 토지이용, 시각적 개방성과 폐쇄성, 보행공간, 크기의 위계, 일체감, 연속성, 방향성, 공간의 위계적 연계성
		수직적, 수평적 관계의 군집형상	지형, 용적률, 이격거리, 지붕/색채/건물높이/길이, 개방성과 폐쇄성, 연속성, 토지이용, 공간밀도, 동일성
2차적 영역	배치 계획	접근체계요소	배치개념, 지형, 토지이용, 보행로형식 및 크기, 시각적 개방성과 폐쇄성, 옥외공간, 중심성, 진입방식, 출입구위치, 시설물(엘터 등), 바닥패턴
		대지계획요소	법규, 대지형성, 방위, 지형, 용적률, 건폐율, 이격거리, 건물배치, 옥외공간구성, 지형에 대한 대응
1차적 영역	평면 계획	건물계획요소	구조체계, 정면패턴, 향, 수평적 수직적 변형, 건축물 높이변화, 개구부 형태, 크기, 위치, 주출입구 위치, 접속방식, 경계부처리, 색채와 재질감
		저층부계획요소	휴게시설과 식생, 진입공간, 전이공간, 바닥재료, 패턴과 색채, 주출입구 형태, 설계특이성

그러나 이는 기숙사를 계획하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도출한 요소라는 점에서 각 계획요소의 범위와 용어가 본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3가지 영역성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 주요항목은 그림 3-2와 같이 재정의하였으며, 그 명칭 역시 계획요소가 아니라 입지환경요소, 배치환경요소, 평면환경요소로 변경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심리적 환경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기숙사생활 이외의 대

학생생활이 동일하도록 하나의 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조사대상자를 선발하였는데 그 결과 입지환경요소와 배치환경요소를 기존의 연구보다 세밀화 시킬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림 3-2] 거주환경요소의 구분 다이어그램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입지환경요소를 3차적 영역, 배치환경요소를 2차적 영역, 평면환경요소를 1차적 영역으로 정의한 것은 동일하게 보았으나 그 세부적 정의는 입지환경요소는 캠퍼스 전체 환경 혹은 기숙사 단지 내에서 생활관이 위치하는 입지 여건으로, 배치환경요소는 생활관 건물 내부에서 각 단위실이 갖는 배치여건으로 정의하였으며, 평면환경요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생활관 내부공간의 자체적 속성으로 재정의하였다. 또한 여기에 기숙사 거주경험과 관련된 거주자의 개인적 요소를 추가하였다.

### (3) 세부항목

각각의 환경요소의 정의에 맞게 세부항목을 설정하면 표 3-2와 같다. 영역성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거주자, 개인공간, 단위실, 기준층, 거주동, 건물군, 단지에 이르는 공간의 위계별로 세부항목을 도출하여 거주자가 체감하는 거주환경요소의 범위를 다양하게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거주자는 개인적 요소, 개인공간과 단위실은 평면환경요소, 기준층과 거주동은 배치환경요소, 건물군과 단지는 입지환경요소에 포함된다.



[표 3-2]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 선정

구분		세부항목
개인적 요소	거주자	성별, 소속, 전공, 입학시기, 동 기숙사 다른 방 거주 경험, 기숙사 전체 거주기간, 기숙사 현재 방 거주기간
평면환경요소	개인공간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단위실	단위실 구성, 침실의 면적, 채광 및 조망, 거주인원, 거주자의 구성, 단위실 내 시설
배치환경요소	기준층	기준층 공간구조1_주거부분형식, 기준층 공간구조2_공용부분형식
	거주동	건물의 노후 정도, 건물 내 시설, 단위실의 건물 내 수직적 입지, 단위실의 건물 내 수평적 입지
입지환경요소	건물군	이격거리, 건물배치, 옥외공간구성, 편의시설과의 관계
	단지	단지 내 가로망 체계,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 단지 외부로부터의 접근성_도보/대중교통, 단지 외부 환경_지역지구/행정구역

개인적 요소는 나머지 주요요소와 달리 비(非)물리적 요소로 구성되며 기숙사 인원선발 시 고려되는 최소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기숙사 거주경험에 대한 요소로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개인적 요소 이외의 세 가지 주요요소의 각 세부항목은 선행연구의 거주환경요소와 집합주거의 설계요소를 종합하여 도출하였다. 집합주거의 설계요소는 심우갑(1993)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을 참고하였으며 표 3-3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지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입지계획요소와 배치계획요소에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선행연구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숙사의 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기숙사의 입지적 요소를 강조한 염대봉(2014), 우영식(2015)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입지환경요소와 배치환경요소의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표 3-3] 물리적 차원과 관계된 집합주거 설계요소  
(출처 : 심우갑 (1993). 집합주거설계의 환경인지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물리적 차원	물리적 속성	집합주거의 설계 요소
군집 형태	배치 형태	가로망체계/토지이용계획/밀도계획/주호군관계/설계개념/상징성/중심성/개방성과 폐쇄성/향/지형/밀도/오픈스페이스/일조조건과 인동간격
	주호군 형태	가로망과 주호군 중심공간 연결형식/통로형식/주출입구방향/주호군평면/수직형태/인동간격/주차장/가로공간/대지조건/지형/향
	수직적 형태	지형/용적률/높이제한/인동간격/창호설계/주호군 배치형태/매스와 스카이라인/지붕/색채/가로와 접근체계/주거동높이/길이/통로형식/개방성과 폐쇄성/반복성/특이성/형상과 재질
	주거동 구성체계	지형/향/수직수평 통로형식/조직체계/설비방식/구조/옥외공간형식/고층부형식/지붕/평면규모/주거동형식/반복수/외부재료/질감
접근 체계	가로망 패턴	배치개념/토지이용/주가로망과 연결관계/공간전개/보행로 형식/외부공간의 구조, 형상/인동간격/시각적 개방성과 폐쇄성
	가로공간	배치개념/토지이용/주가로망과 연결관계/공간전개의 위계성/옥외공간/전정/주거동/주거동 평면형태/주차장/보행로크기/중심성/공공공간의 연계성/놀이터/광장/공원/녹지
	전이공간/출입공간	공간전개형식/주차장/시각적 감시/영역성/주거동의 특이성/출입구의 상징성/주거동조직/수평수직 통로형식/주출입구, 로비, 복도/안전성
	놀이공간	행태적 속성 (도보, 산책, 대화, 놀이)/가로시설물(전화박스, 우편함, 안내판)/조경/바닥패턴/재료/상징성/인식성
	주차공간	지형/용적률/인동간격/접근체계와 연계성/세대수/주거동길이/통로형식/공간형상/패턴/계절변화/가로환경의 구성요소/재료
공간 구조	공간형태	지형/용적률/밀도/인동간격/주거동 평면형태/건물배치/가로/오픈스페이스/연결구조/조경/주거동과 가로망의 연결관계/계절적 변화/배치개념/토지이용/외부공간의 조조, 형상/인동간격/시각적 개방성과 폐쇄성
	공간의 위계성	공간의 중층적 전개/옥외공간/주차장/보행로/주거동 평면형태와 주호군 형성/전정/광장/상징성/크기의 위계/공원/녹지/놀이터/질서의 부여/일체감/연속성/방향성
	공간구성요소	지형/분포밀도/공간의 위계적 연계성/식별성/주거동 평면형식/매스/재료/높이/근린시설/가로시설물/바닥패턴/재료/전화박스/안내판/공간형태(도보, 산책, 대화, 놀이, 휴식, 이동)/수목
주거동 형태	단지설계요소	법규/대지의 형태/방위/지형/용적률/건폐율/경관/건축물 높이 제한/인동 간격/주동 배치/옥외 공간 구성/경관 구성/지형에의 대응/가로구성
	주거동 설계요소	구조체계/설비체계/수직수평 통로형식/엘리베이터의 효율성/공용면적/전용면적비/외기와 접하는 면적/향/프라이버시
	건축적 처리에 의한 변화	횡적, 종적 변형/몇 세대의 제거/주호유형의 혼합/건축물 높이 변화/평면의 전후좌우 회전
	저층부 설계 요소	가로폭/주차장계획/휴게시설과 식생/가로공간/진입공간/바닥재료/패턴과 색채/주출입구 형태/색채/설계 특이성/단위주호설계/전정의 영역성
	단위주호 설계요소	통로형식/단위주호의 전면구성 형태/재료크기/발코니와 창호의 형태, 색채/색채와 재질감

심우갑(1993)의 연구는 그 대상이 기숙사가 아니라 집합주거이며 건축가들이 계획의 단계에서 활용할 만한 내용이다. 따라서 주차공간과 같이 기숙사생활과 연관성이 적은 요소는 배제하고 입지환경요소 및 배치환경요소의 정의에 충실하여 입면의 재질이나 색채 등과 같은 미적 측면보다는 공간의 구조, 관계 등과 같이 기능적, 행태적 측면에 집중하였다.

[표 3-4] 기숙사의 거주환경평가요인

구분		기숙사의 거주평가요인
정정갑 (2000)	단위실의 기능적인 면	기숙사의 방향, 단위실 사용인원, 단위실 형식, 취침 형식, 단위실 활용(학습시간/취침시간), 룸메이트 및 친교생활
	기숙사의 실내환경	거주 인원수, 방의 크기 적절성, 침대크기 적절성, 책상배치 적절성, 침실의 향, 침실의 형태, 실내 마감재료 및 시공상태, 실내온도의 쾌적감, 낮 시간의 실내밝기, 저녁시간의 조명 적합도, 실내공기의 신선도, 외부소음의 방음상태, 인접실의 방음상태, 복도소음의 방음상태
박행자 (2008)	기술적 인자	조명시설(자연채광, 인공조명), 냉난방시설, 구조적 안전성, 화재안전, 내부위생 및 청결, 실내마감시공도, 방음(내외부 소음), 전기관련시설
	기능적 인자	주거기능공간내의 공용공간으로의 연속성/연계성, 보안/방법시설, 공용공간으로의 접근성, 조망, 사용인원수, 향, 각 실과의 수평동선기능, 각 실과의 수직동선기능, 단위 주거실의 수납공간 편의성, 단위 주거실의 수납공간 배치의 효율성, 각 실의 내부구성, 실들의 다양성, 각 공간의 독립성, 각 공간의 융통성, 배치에 따른 공간의 활용성
	행태적 인자	개인/공용공간 분리의 적정성, 사생활보호의 적정성, 개인공간의 확보정도, 공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각 공간의 식별성, 각 공간의 위치감, 각 공간에서의 소속감, 각 공간의 동질성/친밀감, 각 공간의 과밀성, 각 공간별 심리적 안정성, 각 공간 내부의 전반적 이미지, 각 공간의 사인표시, 각 공간내부의 시각적 아름다움
임혜진 (2012)	실내환경 평가요소	자연환기, 기계환기, 옆방소음차단, 층간소음차단, 운동장소음차단, 교통소음차단, 설비소음차단, 창문의 기밀성, 바닥온도, 외벽의 단열, 햇빛 유입, 통풍, 일사차단, 실내밝기(자연광), 실내조명 밝기, 실내조명 색상

배치환경요소와 평면환경요소는 선행연구에서 기숙사의 환경평가요인과 기숙사의 유형분류를 참고로 도출하였다. 정정갑, 박행자, 임혜진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으며 입지환경요소와 마찬가지로 설계자의 입장이 아닌 거주자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주환경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숙사 거주자들이 기숙사의 거주환경으로 인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기술적인 부분이나 법규에 대한 내용과 같이 설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항목은 모두 제외하였다. 특히 평면환경요소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는 마감재와 같이 실내공간의 이미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고 객관화하기 어려우므로 건물의 노후정도와 같이 정량적인 요소로 한정하였다. 입지계획요소와 및 배치계획요소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거주자의 경험 즉 기능과 행태적인 부분에 집중하고자 하였는데, 예를 들어 기숙사 실내공간의 거주환경평가 중 임혜진(2012)의 연구나 박행자(2008)의 기술적 인자, 정정갑(2000)의 기숙사의 실내환경 중 설비요소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고 단위실의 기능적인 면이나 기능적 인자, 행태적 인자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 3.2. 분석 대상지의 거주환경요소

### 3.2.1. 분석 대상지 선정

#### (1) 선정 이유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가 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대상지로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위치한 기숙사인 관악학생생활관을 선정하였다. 관악학생생활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는 거주동들이 여러 시기에 걸쳐 계획 및 건축되면서 각기 다른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17개의 거주동은 기숙사의 질적 성장과정이 반영되며 변화해 왔으며, 캠퍼스 및 기숙사가 도심과 분리되어 있어 캠퍼스 외부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이 작으므로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가 갖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적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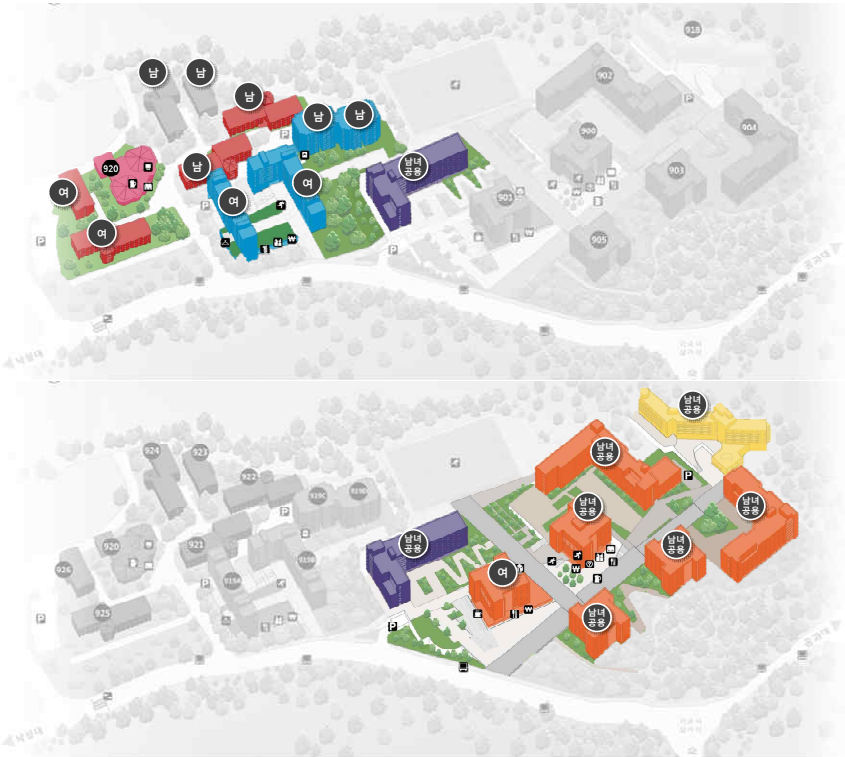
## (2)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은 다양한 시기에 건축된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악학생생활관은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75년 8월에 ‘관악사’라는 명칭으로 남학생 970명을 위한 6개동을 개사하였고, 이후 1982년에 남학생 692명을 위한 5개동을 추가 개사하였다. 1983년에는 여학생 288명을 위한 2개동을 개사하였으며 1986년에는 남학생 204명을 위한 1개동을, 1989년에는 관리동을 개사하였다. 1990년에 들어와서는 1990년에 남학생 298명을 위한 1개동을, 1996년에 총 200세대를 위한 5개동의 가족생활관을 개사하였고, 1999년에는 대학원 생활관(918동)을 개관하였다. 2004년에는 대학원 생활관(919동)을 추가로 개관하고 2010년에는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7개동의 대학원생활관을 신축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일부 대학원동은 학부동으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의 범위는 관악학생생활관에서 가족생활관을 제외한 학부동과 대학원동으로 동별 배치 현황은 그림 3-3와 같다. 900~905동 및 918동은 대학원생 전용이며, 906동은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공동으로 거주한다. 919A~D동 및 921~926동은 학부생 전용이며, 관리동은 900동 지하에 위치한다. 대학원동은 동별로 남녀구분이 없으나 901동만을 여학생 전용으로 하고 있으며, 학부동은 919A~B동, 925~926동은 여학생동으로, 919C~D동, 921~924동은 남학생동으로 성별로 구분하고 있다.

[표 3-5] 관악학생생활관 학생비율  
(출처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구분			전체	
			인원(명)	비율(%)
학부생활관	남	906, 919C~D, 921~924	1,378	28.8
	여	906, 919A~B, 925~926	1,050	22.0
소계			2,428	50.8
대학원생활관	남	900, 902~906, 918	1,313	27.5
	여	900~906, 918	1,036	21.5
소계			2,349	49.2
총계			4,777	100



[그림 3-3] 학부생활관(상)과 대학원생활관(하)

관악학생생활관의 거주자는 총 4,777명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거주하고 있다. 거주자의 성별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경향을 보인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학부생활관은 입학 1년 이내인 신입생과 재학생이 50:50의 비율로 선발되고, 대학원생활관은 과정생과 연구생이 85:15의 비율로 선발된다.

### 3.2.2. 분석 대상지의 거주환경요소 도출

앞서 도출한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를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의 현황에 맞게 구체화하면 표 3-6과 같으며, 각각의 환경요소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3-6] 관악학생생활관의 거주환경요소 구체화

구분		세부항목	측정방법
개인적 요소	거주자	거주기간	기숙사 총 거주기간
			현재 방 거주기간
평면 환경 요소	개인공간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롤스크린 유무 / 1인실 여부
	단위실	단위실 구성	단위실의 공간 구성
		침실의 면적	침실의 면적
		채광 및 조망	침실의 창문 크기
		거주인원	단위실의 동거인 수
		거주자의 구성	동거인의 구성
		단위실 내 시설	단위실에서의 행태 범위
배치 환경 요소	기준층	기준층 공간구조	주거부분의 형식
			공용부분의 형식
	거주동	건물의 노후 정도	건축연도
		건물 내 시설	건물 내 편의시설 유무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	수직 : 거주중인 층수 수평 : 거주동 주출입구로부터의 깊이
입지 환경 요소	건물군	건물군 내 편의시설과의 관계	식당 및 상가로부터의 깊이
	단지	단지 내 가로망 체계	단지 내에서의 통합도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	캠퍼스 진입부로부터의 깊이
		외부와의 관계	도보 : 순환도로로부터의 깊이
			대중교통 : 버스정류장으로부터의 깊이

### (1) 관악학생생활관의 평면환경요소

평면환경요소는 크게 개인공간과 단위실로 나뉜다. 개인공간은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로 구성되며 단위실은 단위실의 구성, 침실의 면적, 채광 및 조망, 거주인원, 거주자의 구성, 단위실 내 시설로 구성된다.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는 1인실이어서 방 전체가 개인공간인 경우와 2인실이나 단위실 내부에 칸막이가 있어 방의 절반을 개인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칸막이가 없어서 개인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단위실의 구성은 화장실 유무와 실의 구성에 따라 개실형, 원룸형, 아파트형으로 구분된다.<sup>8)</sup> 관악학생생활관은 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각 유형의 조감도와 거주인원 수 및 동 분포는 표 3-7과 같다.

[표 3-7] 단위실 구성에 따른 평면환경요소

구분	구성		거주인원	거주동의 분포
개실형	침실		1인실 2인실	918동, 921동, 922동, 923동, 924동, 925동, 926동
원룸형	침실+화장실		1인실 2인실	900동, 901동, 902동, 903동, 904동, 905동, 906동
아파트형	침실3개+화장실+거실+베란다		6인실	919A동, 919B동, 919C동, 919D동

침실의 면적은 단위실의 전체 면적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공간으로 인지하는 침실영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아파트형은 6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과 베란다는 제외한 본인의 침실 면적만이 해당되고, 화장실이 단위실에 포함된 원룸형의 경우에도 화장실 면적을 제외하였다.

채광 및 조망은 단위실의 위치와도 관계가 있는 요소이지만 공통적으로 창의 크기가 클수록 채광과 조망이 좋아진다. 따라서 각 단위실의 침실 창문의 크기를 채

8) 정정갑 (2002). 대학기숙사 건축의 평면유형별 거주 후 평가 - 전남, 광주지역소재 대학기숙사를 대상으로 -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 및 조망의 지표로 삼았고 단위실마다 창문의 높이는 비슷하므로 창문의 폭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단위실의 거주인원은 하나의 현관을 공유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침실은 2인이 공유하지만 현관과 거실, 화장실을 6인이 공유하는 아파트형의 경우 6인실로 구분하였다.

거주자의 구성은 본인 이외의 동거인이 기숙사에 거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지 같은 단위실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지에 따라 본인혼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단위실 내 시설은 단위실에서 가능한 행태를 기준으로 삼았다. 단위실에서 수면만 가능한 경우와 수면 및 세면이 가능한 경우 수면, 세면, 세탁이 가능한 경우, 수면, 세면, 세탁, 취사의 모든 기본적인 주거 행태가 가능한지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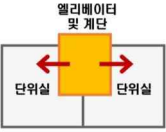


## (2) 관악학생생활관의 배치환경요소

배치환경요소는 기준층과 거주동으로 나뉜다. 기준층의 세부항목은 주거부분의 형식과 공용부분의 형식으로 구성되며 거주동의 세부항목은 건물의 노후 정도, 건물 내 시설, 단위실의 건물 내 수직적 입지, 단위실의 건물 내 수평적 입지로 구성된다.

기숙사는 주거 부분의 형식에 따라 계단실형, 타워형(코어형), 편복도형, 중복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9)</sup> 관악학생생활관은 주거부분의 형식에 있어서는 편복도형을 제외한 세 가지 유형의 거주동을 모두 한 단지 내에 포함하고 있으며, 919A~D동은 계단실형, 900~903동은 타워형, 904~906동, 918동, 921~926동은 복도형에 해당된다.

9) 9) J. Chira, H. Callender (1983) Time Saver Standards for Building Types. New York: Mc Grawhill Book Company.

[표 3-8] 거주동의 수평적 구성에 따른 배치환경요소

	구분	거주동의 분포
계단실형		919A동, 919B동, 919C동, 919D동
타워형		900동, 901동, 902동, 903동,
복도형		904동, 905동, 906동, 918동, 921동, 922동, 923동, 924동, 925동, 926동

공용부분의 형식은 공용부분 집약형, 공용부분 분산형, 개실 집약형으로 구분되며 공용부분 집약형은 공용부가 집약되어 있으며 관리성이 양호하고 국내대학에서 가장 선호되는 형식이다. 공용부분 분산형은 5~6인실 단위로 공용부분을 분산하는 형식으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된다. 개실 집약형은 단위실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형식으로 취사 및 화장실을 겸비한 형식이다.<sup>10)</sup>

건물의 노후 정도는 거주동의 건축시기를 지표로 삼으며 각 거주동의 건축시기는 921~926동, 918동(1999년), 919A~D동(2004년), 900~906동(2010년)의 순서로 오래되었으며 각 시기별 대학 기숙사 건축양식과 계획성향이 반영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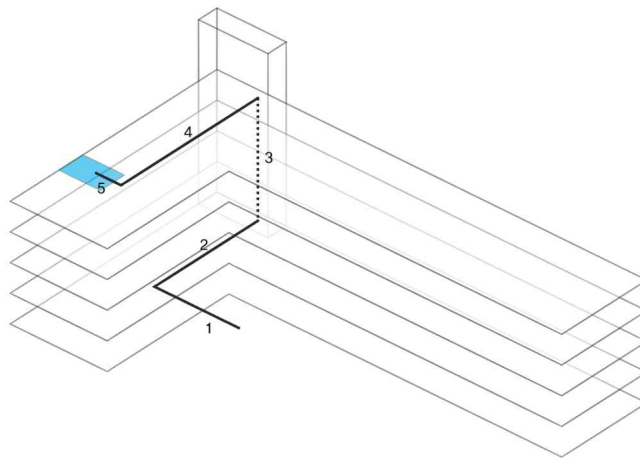
건물 내 시설은 커뮤니티의 유무, 운동시설의 유무, 상가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분석 대상지의 경우 모든 건물에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가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동시설도 함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커뮤니티

10) 이찬 (2004). 대학기숙사 건축 및 디자인 계획 현황과 전망, 조형논총, 국민대학교 출판부.

티 및 운동, 커뮤니티 및 운동, 상가의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대학원동에서는 900동에 상가시설과 운동, 행정시설 등 편의시설이 모여 있으며, 901동에 식당 및 카페가 위치한다. 학부동에서는 919A~D동에 걸쳐서 식당, 매점, 세탁소, 운동 시설, 취사시설이 모여 있다.

단위실의 건물 내 수직적 입지는 단위실이 수직적으로 건물의 몇 층에 위치하는가를 지표로 삼았으며 1~9층의 범위에 한정된다. 900동은 1~7층, 901동, 918동은 2~8층, 902~동은 1~8층, 919A~D동은 2~9층, 921동~926동은 1~4층에 주거공간이 위치한다.

단위실의 건물 내 수평적 입지는 주출입구로부터 단위실까지의 깊이를 지표로 삼고자 하였다. 1층에 단위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주출입구부터 엘리베이터 혹은 계단까지의 깊이에 엘리베이터 혹은 코어의 깊이를 1 더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혹은 계단으로부터 단위실까지의 깊이를 더하는 식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3-10]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수평)

#### (4) 관악학생생활관의 입지환경요소

관악학생생활관은 그림 3-11과 같이 캠퍼스 전체를 두르고 있는 순환도로에서 단지로의 가로가 뺀어져 나온 형태의 가로체계를 보이며, 캠퍼스의 외곽에 위치한다.



[그림 3-11] 기숙사의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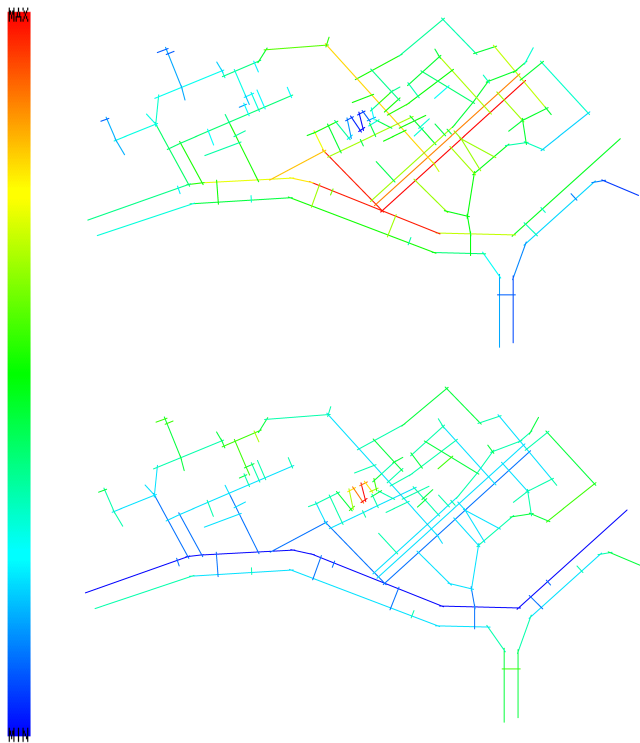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입지환경요소의 세부항목으로 건물군 내 편의시설과의 관계, 단지 내 가로망 체계,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 외부와의 관계(도보/편의시설)를 도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입지환경요소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는 공간구문론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공간구문론(Space Syntax)<sup>11)</sup>은 공간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특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분석기법으로, 이를 통해 각 단위 공간간의 관계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동선들과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건물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교류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최재필, 2010). 공간구문론에서 단위 공간을 설정하는 방식에는 볼록공간도(convex map)와 축선도(axial map)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로체계 및 외부공간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축선도 방식을 사용하였다. 공간구문론의 지표에는 연결도(connectivity), 통제도(control value), 통합도(integration) 등이 있으며, 이 중 활용도가 가능 높은 통합도는 임의의 한 단위 공간에서 다른 단위 공간까지 연결관계의 상대적 깊이(depth)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깊이는 특정 단위 공간에서 다른 단위공간으로 이동할 때 거치게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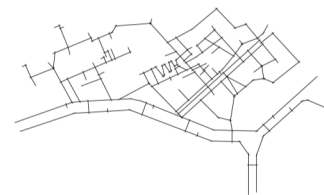
11)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은 런던대(UCL) 바틀렛 건축학부의 힐리어(B. Hillier) 등에 의해 개발된 대표적인 정량적 공간분석기법으로, 공간구조를 구성요소 단위공간 간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여 공간배치형태 상의 위상학적 중심성, 접근성, 동선효율성 등의 공간속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는 최소한의 단위공간 수로 결국 통합도는 접근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환경요소의 세부항목 중 단지 내 가로망 체계를 측정하는 지표로 통합도를 활용하고, 건물군 내 편의시설과의 관계,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 외부와의 관계1\_도보, 외부와의 관계2\_대중교통은 특정 단위공간으로부터의 깊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Point Depth(PD)를 사용하였다. 기숙사 가로체계 및 보행자의 동선에 맞게 축선도를 그린 결과는 그림 3-12와 같고, 통합도와 각 단위공간으로부터의 PD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13과 같다.



[그림 3-13] 통합도 분석결과(상)와  
순환도로의 Point Depth 분석결과(하)



[그림 3-12]  
기숙사의 가로체계 축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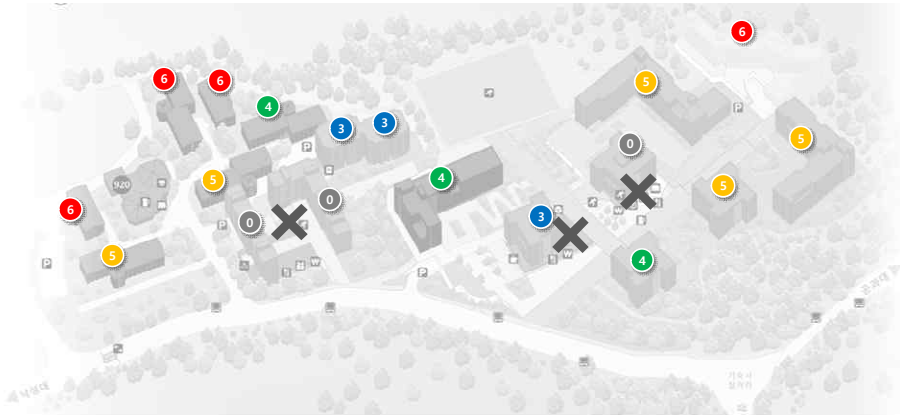
외부와의 관계 중 도보를 통한 관계는 순환도로 이후에는 모두 동일하므로 순환도로로부터의 깊이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는 순환도로로부터 각 거주동까지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위공간의 수를 의미한다.



[그림 3-14] 순환도로로부터의 Point Dep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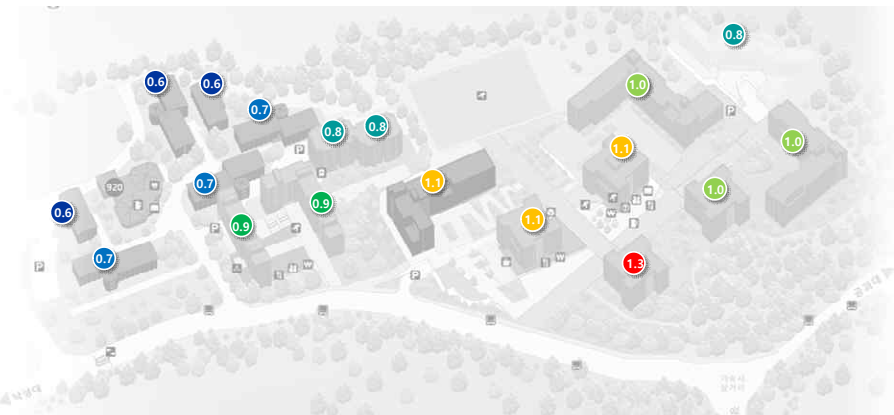
그림 3-14는 순환도로에 대한 각 생활동의 Point Depth를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순환도로로부터의 물리적 거리로 생각하면 925동 919A, B동, 906동, 902동이 모두 같은 값을 보여야 하지만 분석결과 각각 2 또는 3의 Point Depth를 갖는 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oint Depth의 기준이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거쳐야하는 단위공간의 수이기 때문이며, 각 거주동의 입구의 위치와 보행자 접근 동선에 따라 거리가 가깝더라도 깊이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나머지 입지환경요소도 동일한 방법으로 Point Depth를 측정하고 그 값을 통계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건물군 내 편의시설과의 관계는 각 동의 출입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편의시설까지의 깊이를 지표로 삼았다. 편의시설은 매점 편의점과 같은 상가와 식당을 포함하며 동일건물 내에 편의시설이 있어 건물의 출입구를 거치지 않고 편의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 그 깊이를 '0'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15] 편의시설로부터의 Point Depth

단지 내 가로망 체계는 단지 내부 가로망과 외부로 연결되는 순환도로를 포함한 것으로 단지 내 통합도를 지표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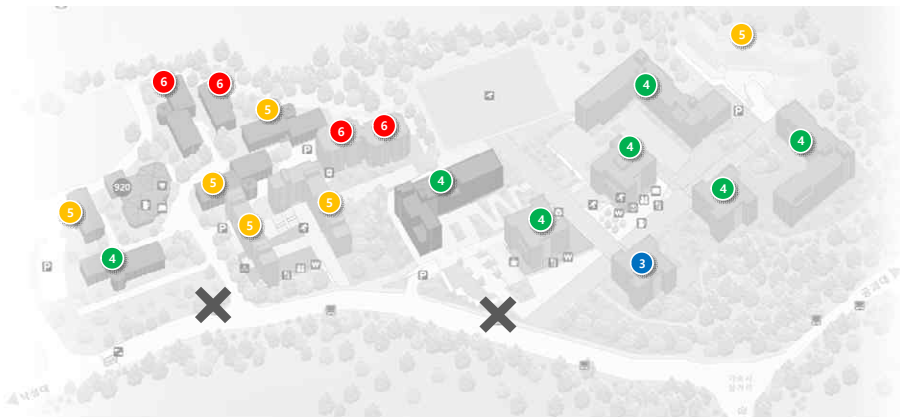
[그림 3-16] 단지 내에서의 통합도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는 학습영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을 통해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거주자들의 전공은 제각각이나 학습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두 동일한 횡단보도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학습영역의 진입부라고 할 수 있는 횡단보도로부터 각 거주동까지의 깊이를 지표로 삼았다.



[그림 3-17] 캠퍼스 학습영역 진입부로부터의 Point Depth

외부와의 관계 중 대중교통을 통한 관계는 외부로 나가는 버스정류장으로부터의 깊이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림 3-18] 버스정류장으로부터의 Point Depth

분석 대상지인 관악학생생활관의 경우 대부분의 거주환경요소는 어느 동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표 3-9는 앞서 설명한 거주환경요소 측정 지표 중 거주동에 따라 달라지는 거주환경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류기준과 지표를 통해 5장에서는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표 3-9] 동별 거주환경요소

거주환경요소			거주동																			
구분	세부항목	기준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18	919A	919B	919C	919D	921	922	923	924	925	926		
일반특성	성별	남/여	남/여	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여	여	남	남	남	남	남	남	여	여		
	소속	학부/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학부/대학원	대학원	학부	학부	학부	학부	학부	학부	학부	학부	학부	학부		
평면	개인 공간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2인실 홀스크린 유무 /1인실 여부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단위실	단위실 구성	단위실의 공간 구성	원룸형	원룸형	원룸형	원룸형	원룸형	원룸형	원룸형	개실형	아파트형	아파트형	아파트형	아파트형	개실형	개실형	개실형	개실형	개실형	개실형	
		침실의 면적	침실의 면적	11/18	11/18	11/18	11/18	11/18	11/18	11/18	9	12	12	12	12	14	14	15	14	14	15	
		채광 및 조망	침실 창문 크기(가로폭)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2000	1200	1200	2700	27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거주인원	단위실의 동거인 수	1인/2인	1인/2인	1인/2인	1인/2인	1인/2인	1인/2인	1인/2인	1인	6인	6인	6인	6인	2인	2인	2인	2인	2인	2인	
		단위실 내 시설	단위실에서의 행태범위	세면	세면	세면	세면	세면	세면	세면	수면만	세탁	세탁	세탁	세탁	수면	수면	수면	수면	수면	수면	
배치	기준층	기준층 공간구조	주거부분형식	타워형	타워형	타워형	타워형	복도형	복도형	복도형	복도형	계단실형	계단실형	타워형	타워형	복도형	복도형	복도형	복도형	복도형	복도형	
		공용부분형식	공용부분 분산형	공용부분 분산형	공용부분 분산형	공용부분 분산형	공용부분 분산형	공용부분 분산형	공용부분 분산형	공용부분 분산형	공용부분 분산형	개실 집약형	개실 집약형	개실 집약형	개실 집약형	공용부분 집약형	공용부분 집약형	공용부분 집약형	공용부분 집약형	공용부분 집약형	공용부분 집약형	
	거주동	건물 내 시설	건물 내 편의시설의 유무	운동/상가	식당	-	-	-	-	-	운동	운동/상가 /식당	운동/상가 /식당	운동/상가 /식당	운동/상가 /식당	-	-	-	-	-	-	
		건물의 노후 정도	건축연도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1999	2004	2004	2004	2004	1989	1989	1989	1989	1989	1989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2 수평	주출입구로부터의 깊이	6	6	7	6	5	5	5	7	5	5	4	4	5	5	4	5	5	4	
입지	건물군	건물군 내 편의시설과의 관계	식당 및 상가로부터의 깊이	동일건물	3	4	5	5	5	4	6	동일건물	동일건물	동일건물	동일건물	5	4	6	6	5	6	
		단지	단지 내 가로망 체계	단지 내 통합도	1.1	1.1	1.3	1.0	1.0	1.0	1.1	0.8	0.9	0.9	0.8	0.8	0.7	0.7	0.6	0.6	0.7	0.6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	캠퍼스 진입부로부터의 깊이	6	6	5	6	6	6	6	7	7	7	8	8	10	10	11	11	9	10
			외부와의 관계	순환도로로부터의 깊이	3	3	2	3	3	3	3	4	2	2	3	3	4	4	5	5	3	4
				정류장으로부터의 깊이	4	4	3	4	4	4	4	5	5	5	6	6	5	5	6	6	4	5

## 제 4 장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 측정

---

### 4.1. 기숙사생활 적응

4.1.1. 기숙사생활 적응의 정의

4.1.2. 기숙사생활 적응 척도

### 4.2. 기숙사생활 적응에 대한 설문조사

4.2.1. 설문지의 구성

4.2.2. 설문조사 실시

4.2.3.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

## 4.1. 기숙사생활 적응

### 4.1.1. 기숙사생활 적응의 정의

적응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Baker와 Siryk의 대학생활 질문지(SACQ)<sup>12)</sup>가 있다. 그러나 이 도구는 대학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숙사생활에서의 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여타 연구에서도 기숙사생활 적응을 측정할 만한 적합한 도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척도 개발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직접 질문지를 작성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후 이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척도는 무엇보다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는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sup>13)</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와 유사개념과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대학 기숙사에서 '기숙사생활 적응'을 '인지적으로 기숙사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익숙해진 상태, 감정적으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기초로 하여 척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 4.1.2. 기숙사생활 적응 척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척도 개발에 있어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용재(2013)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된 타당성 검증 방법과 Churchill(1979: 김성훈, 2011 재인용)의 척도 개발 8단계를 참고하여 척도를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12) SACQ는 1984년 Baker에 의해 개발되었고, 대학생활 적응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총 67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에에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그리고 대학환경에 적응의 4개 하위척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를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라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져 왔다.

13) 최용재 (2013). 특수학급 교사의 교직 적응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성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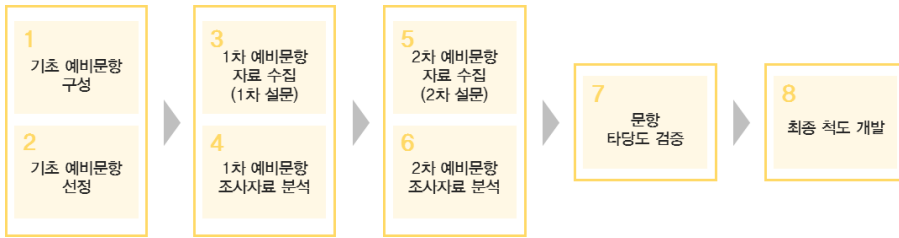


그림 4-1] 척도 개발 8단계 모형  
(출처 : 최용재 (2013) 박사학위논문 재편집)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예비문항 작성 후 문항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척도의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통성 및 요인적재치가 일정 수치를 넘으면 척도가 해당 개념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앞서 설정한 기숙사생활 적응의 개념적 정의에 충실하게 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해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과정에서 타당도를 검증할 예비문항 선정에 있어서는 SACQ의 문항 중 기숙사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전반적인 내용과 표현을 점검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거주중인 학부생 1명과 대학원생 1명을 인터뷰하였다.

## 4.2. 기숙사생활 적응에 대한 설문조사

### 4.2.1.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응답자의 거주환경요소를 수집하고 현재의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기본 정보와 현재 거주중인 기숙사에 대한 정보, 기숙사 이전 거주지에 대한 정보, 적응 정도의 네 가지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 정보

응답자의 기본 정보에는 성별 및 나이, 소속, 전공, 입학시기 등과 같이 거주자의

기본적인 개인특성을 포함하였으며, 추후에 표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서 최소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거주환경요소

본 연구는 변화를 전제로 하는 ‘적응’을 다루고 있으므로 현재 거주중인 기숙사와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를 모두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표 4-1과 같이 앞서 도출해낸 관악학생생활관의 거주환경요소와 함께 이에 대응되는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를 도출하여 설문문항에 반영하였다.

현재 기숙사에 대한 정보는 기숙사의 특성상 거주환경요소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어느 동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거주기간이나 룸메이트에 대한 정보, 단지 내 편의시설 이용 행태 및 단위실 내 이용행태와 같이 개인별로 다른 요소에 집중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전 거주지를 묻는 문항을 구성하면서 가장 많이 고려한 부분은 응답의 정확성이다. 이전 거주지에 대한 정보는 너무 광범위하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며,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정보를 수집하여야하기 때문에 치수나 전문적인 용어가 포함된 지표들은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일부 항목의 경우 응답자들이 답을 떠올리기 쉬운 항목으로 현재 거주지와 지표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입지환경요소의 경우,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과 학교 및 상업시설까지의 물리적인 거리 대신 이동 소요시간으로 대표하였는데, 이는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응답자들에게서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 쉽고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거리는 물리적 거리보다 시간적 거리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배치환경요소는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 후 공동주택을 선택한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건물의 구성을 묻는 식으로 문항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주거부분의 형식과 같이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가장 유사한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위실과 공용공간의 관계나 건물 주출입구와의 관계 등과 같이 경우의 수가 많고 유형화하기 어려운 항목은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 평면환경요소에 있어서는 이전 거주지의 실 구성을 조사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를 유형화 시키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현재 기숙사와 동일하게 방을 공유한 사람의 수와 구성, 방에서의 이용행태를 조사하되 실 구성에서 거실 및 부엌이 있는 경우에는 ‘집’으로 분류하여 집을 공유한 사람의 수

와 구성, 집에서의 이용행태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단위세대 내 가구 현황 등은 기숙사와 달리 언제든 변동 가능한 부분이므로 제외하였다.

변화격차의 경우 추가로 설문항목을 추가하지 않고 현재 기숙사에 대한 정보와 이전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조합하여 유추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전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항목은 변화격차 역시 분석항목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나 단지 내의 공간구성과 같이 현재 기숙사와 이전 거주지에서 조사한 정보가 단위가 다른 경우 역시 직접적으로 변화격차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분석항목에서 제외하였다.

[표 4-1] 설문항목에 포함된 거주환경요소

구분		세부항목	현재기숙사		이전거주지		변화격차	
개인	거주자	거주기간	A01-1	기숙사 총 거주기간	B01	거주기간	C01	짧다 / 같다 / 길다
			A01-2	현재 방 거주기간				
		거주형태		(동일)	B02	자택 / 기숙사 / 자취 / 기타	C02	같다 / 다르다
평면 환경 요소	개인공간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A11	롤스크린 유무 / 1인실 여부	B11	침실 공유 여부	C11	같다 / 다르다
	단위실	단위실 구성	A12	단위실의 공간 구성	B12	단위실의 공간 구성	C12	같다 / 다르다
		침실의 면적	A13	침실의 면적				
		채광 및 조망	A14	침실의 창문 크기				
		거주인원	A15	단위실의 동거인 수	B15	단위실의 동거인 수	C15	적어졌다 / 같다 / 많아졌다
		거주자의 구성	A16	동거인의 구성	B16	동거인의 구성	C16	같다 / 다르다
		단위실 내 시설	A17	단위실에서의 행태 범위	B17	단위실에서의 행태 범위	C17	같다 / 다르다
배치 환경 요소	기준층	기준층 공간구조1_주거부분	A21	주거부분 형식	B21	주거부분 형식	C21	같다 / 다르다
		기준층 공간구조2_공용부분	A22	공용부분 형식				
	거주동	건물 내 시설	A23	건물 내 편의시설 유무	B23	건물 내 편의시설 유무	C23	같다 / 다르다
		건물의 노후 정도	A24	건축연도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1_수직	A25	거주중인 층수	B25	거주했던 층수	C25	낮아졌다 / 같다 / 높아졌다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2_수평	A26	주출입구로부터의 깊이				
입지 환경 요소	건물군	건물군 내 편의시설과의 관계	A31	식당 및 상가로부터의 깊이	B31	상업시설까지의 시간		
	단지	단지 내 가로망 체계	A32	단지 내에서의 통합도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	A33	캠퍼스 진입부로부터의 깊이	B33	교육시설까지의 시간		
		외부와의 관계1_도보	A34	순환도로로부터의 깊이				
		외부와의 관계2_대중교통	A35	버스정류장로부터의 깊이	B35	대중교통까지의 시간		
		단지 외부 환경1_지역지구		(동일)	B36	지역지구	C36	같다 / 다르다
		단지 외부 환경2_행정구역		(동일)	B37	행정구역	C37	거리 차이

#### (4)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

적응 정도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념적 정의인 ‘인지적으로 기숙사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익숙해진 상태, 감정적으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에 부합하는 문항으로 SACQ에서 일부 발췌하고, 실제로 기숙사에 거주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용과 표현을 수정 보완하여 총 15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 기본정보	● 현재 기숙사	● 이전 거주지	● 적응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나이</li> <li>- 소속 (학부/대학원)</li> <li>- 전공</li> <li>- 입학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 기간</li> <li>- 거주 층</li> <li>- 단위실 유형 (1인실/2인실/6인실)</li> <li>- 룸메이트 구성</li> <li>- 편의시설 이용 현황</li> <li>- 단위실에서의 활동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역</li> <li>- 거주 기간</li> <li>- 거주 방식 (자택/통학/기숙사/자취)</li> <li>- 단위실 유형</li> <li>- 통학/통근 시간</li> <li>- 상가까지의 시간</li> <li>- 대중교통수단까지의 시간</li> <li>- 주변 환경</li> <li>- 주거 유형 (단독/공동)</li> <li>- 단위실 배치 (계단실형/타워형/복도형)</li> <li>- 거주 층</li> <li>- 동일 건물 내 편의시설</li> <li>- 거주지 공간구성</li> <li>- 동거인 수 및 구성</li> <li>- 집 및 방에서의 활동</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는 기숙사에서 자라는 것이 편안하다.</li> <li>2) 나는 기숙사에서 자라는 것이 익숙하다.</li> <li>3) 나는 기숙사에 들어오기 전에 지내던 곳이 그랬다.</li> <li>4) 나는 하루 중 되도록이면 기숙사에 있지 않으려 한다.</li> <li>5) 나는 기숙사에 들어오고부터 잠을 잘 자지 못한다.</li> <li>6) 나는 기숙사 내 방이 어둡다.</li> <li>7) 나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기숙사 내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알고 있다.</li> <li>8) 나는 기숙사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li> <li>9) 나는 기숙사를 집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li> <li>10) 나는 기숙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였다.</li> <li>11)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숙사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다.</li> <li>12) 나는 기숙사에서 자라고부터 건강되거나 신장이 예민해져 있다.</li> <li>13) 나는 기숙사가 이전에 살던 곳만큼 편안하다.</li> <li>14) 나는 기숙사가 이전에 살던 곳만큼 익숙하다.</li> <li>15) 나는 기숙사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였다.</li> </ol>

[그림 4-2] 설문지의 구성

### 4.2.2. 설문조사 실시

#### (1) 조사 범위 및 방법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의 거주자 중 가족생활동 거주자를 제외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를 점검하기 위한 예비조사 및 인터뷰와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본조사의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 (2) 예비조사 및 인터뷰

설문지 구성 후 본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문지를 점검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목적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거주환경요소에 대한 설문항목이 적절한 내용과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항목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과 내용 전반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기본 정보에 대한 3개 문항, 현재 기숙사에 대한 7개 문항, 이전 거주지에 대한 18개 문항,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대한 10개 문항, 추가질문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항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조사는 2016년 9월 4일~7일에 걸쳐 인터넷 링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23명의 응답을 확보하였다. 변수가 다양한 것에 비해 표본이 작아 통계적 분석보다는 설문 문항의 표현을 점검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추가문항의 답변 이외에도 예비조사 응답자 중 학부생 1명 및 대학원생 1명과의 인터뷰를 추가로 활용하였다.

[그림 4-3] 예비조사 설문지 링크

그 결과 일부 문항의 표현을 수정하고 추가질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문항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기본 정보에 대한 8개 문항, 현재 기숙사에 대한 5개 문항, 이전 거주지에 대한 16개 문항, 적응 정도에 대한 15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 (3) 본조사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사용하였던 인터넷 링크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법과 기숙사를 찾아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2016년 9월 한 달 동안 인터넷 링크를 통해 조사 후 부족한 인원을 2016년 10월 한 달 동안 추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그림 4-6과 같은 분포와 그림 4-5과 같은 특성의 응답 267개를 확보하였다.



[그림 4-4] 기숙사 내 설문지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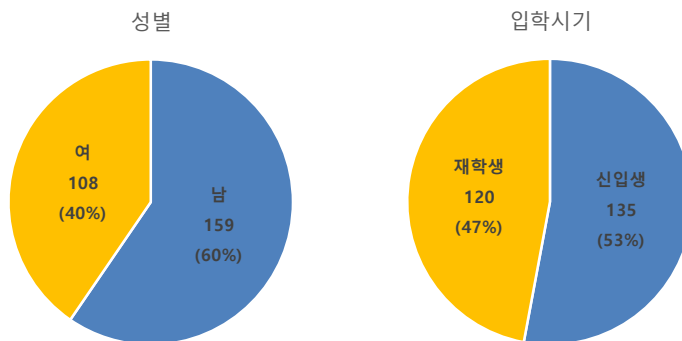


그림 4-5 응답자의 성별 및 입학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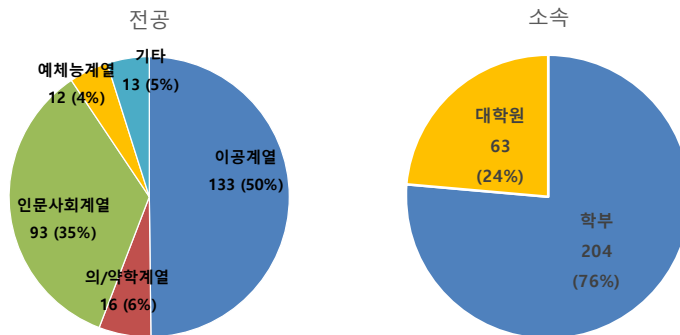


그림 4-6 응답자의 소속 및 전공

#### 4.2.3.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267명의 응답 중 적응 척도를 일부만 응답한 4명을 제외하고 총 263명의 응답을 통해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추정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회전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0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직각회전 방법 중 직접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요인간의 상관성을 허용하므로 현실적합성이 높아 사회과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으로(김계수, 2007), 요인의 적재치는  $\pm 0.40$  이상으로 하였다.

표 4-1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합도가 0.86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chi^2=1843.195$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여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통성에 있어서는 9번 항목의 공통성이 0.4 미만으로 나타나 척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9번 항목을 제외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번, 3번, 8번, 13번, 14번 항목이 요인1로 2번, 7번, 10번, 11번, 15번 항목이 요인2로, 4번, 5번, 6번, 12번 항목이 요인3으로 구분되었으며 요인의 적재치가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적재치가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은 예비문항을 구성할 때 설정한 정의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변화수용도 요인이 3, 8, 9, 13, 14번이 아니라 공통성이 부족한 9번 항목이 제외되고 안정감 요인으로 구분했던 1번 항목이 추가되는 정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 외에 익숙함 요인으로 구분한 2, 7, 10, 11, 15번 항목은 그대로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인1을 변화수용도, 요인2를 익숙함, 요인3을 안정감으로 명명하였다. 세 가지 요인은 모두 요인의 적재치가  $\pm 0.4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세 가지 요인이 모두 0.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 기숙사생활 적응 척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분	성분		
	변화수용도	익숙함	불안감
13. 나는 기숙사가 이전에 살던 곳만큼 편안하다.	.845	.213	-.199
14. 나는 기숙사가 이전에 살던 곳만큼 익숙하다.	.757	.377	-.188
3. 나는 기숙사에 들어오기 전에 지내던 곳이 그림다.	-.740		.102
8. 나는 기숙사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586	.155	.332
1. 나는 현재 거주 중인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이 편안하다.	.551	.312	-.337
11.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숙사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다.	.177	.844	
10. 나는 기숙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였다.	.398	.725	-.188
7. 나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기숙사 내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알고 있다.	-.132	.722	
15. 나는 기숙사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였다.	.492	.653	-.179
2. 나는 현재 거주 중인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이 익숙하다.	.361	.508	-.416
5. 나는 기숙사에 들어오고부터 잠을 잘 자지 못한다.	-.172	-.142	.800
4. 나는 하루 중 되도록 기숙사에 있지 않으려 한다.			.663
6. 나는 기숙사 내 방이 어색하다.	-.304	-.302	.652
12. 나는 기숙사에서 지내고부터 긴장되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350	-.159	.623
고유값	3.438	2.930	2.454
분산설명 (%)	22.921	19.535	16.360
누적설명 (%)	22.921	42.455	58.816
신뢰도	.821	.830	.714

KMO = 0.866, Bartlett's test 결과  $\chi^2=1843.195$  (df=105, Sig.=0.000)



## 제 5 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

### 5.1. 분석 방법

### 5.2 분석 결과

- 5.2.1. 일반특성에 따른 적응 정도의 차이
- 5.2.2.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에 따른 적응 정도의 차이
- 5.2.3.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에 따른 적응 정도의 차이
- 5.2.4. 거주환경요소 변화격차에 따른 적응 정도의 차이

### 5.3. 결과 해석

- 5.3.1. 거주환경요소 분류에 따른 영향요인 분석
  - 5.3.2. 세 가지 요인의 영향요인 분석
  - 5.3.3. 국내 기숙사 변화과정 평가 및 방향 제안
-

## 5.1. 분석 방법

4장의 설문조사에서 얻어낸 267명의 응답 중 거주환경요소에 대해 불성실한 응답을 한 12명을 제외하고 총 255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장에서 도출한 관악학생활관의 거주환경요소와 이에 대응되는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 둘 사이의 변화격차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4장에서 도출한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의 세 가지 요인인 변화수용도, 익숙함, 불안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예상 영향요인은 표 5-1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현재 기숙사에 대한 항목이 20개, 기숙사 이전 거주지에 대한 항목이 15개, 기숙사로 이사하면서 겪게 된 변화격차에 대한 항목이 12개로 총 47개이다. 여기에 입학시기와 동 기숙사에서의 다른 방 거주 경험 유무 등의 일반특성을 포함시켜 총 52개의 항목을 예상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예상 영향요인에는 물리적 거주환경요소 뿐만 아니라 거주인원 등과 같이 물리적 거주환경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거주형태와 같이 물리적 거주환경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비(非)물리적 거주환경요소도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로 쓰일 세 요인의 점수는 요인별로 해당 문항의 점수를 모두 더하여 평균을 낸 값인 산술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다 높은 정확도를 위하여 4장에서 실시한 요인분석을 통해 평균 0, 분산 1의 요인점수를 구하고 이를 다시 교육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T점수<sup>14)</sup>로 환산한 것을 사용하였다.

14) 평균 50, 분산 10로 변환한 표준점수.  $T=10 \cdot Z + 50$

[표 5-1] 예상 영향요인

구분			코드	세부항목	기준
일반특성			X01	성별	남/여
			X02	소속	학부/대학원
			X03	전공	인문계열/이공계열/의약학계열/예체능계열
			X04	입학시기	신입생(2016년입학자)/재학생
			X05	동 기숙사 다른 방 거주 경험	있음/없음
현재 기숙사	개인적 요소	거주자	A01-1	거주기간1_기숙사 전체	기숙사 총 거주기간
			A01-2	거주기간2_현재 거주 중인 방	현재 방 거주기간
	평면환경 요소	개인공간	A11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2인실 톨스크린 유무 / 1인실 여부
			A12	단위실 구성	단위실의 공간 구성(개실형/원룸형/아파트형)
			A13	침실의 면적	침실의 면적
			A14	채광 및 조망	침실의 창문 크기(가로폭)
			A15	거주인원	단위실의 동거인 수
			A16	거주자의 구성	동거인의 구성
			A17	단위실 내 시설	단위실에서의 행태 범위(수면/세면/세탁)
	배치환경 요소	기준층	A21	기준층 공간구조1_주거부분형식	주거부분형식(복도형/계단실형/타워형)
			A22	기준층 공간구조2_공용부분형식	공용부분형식(공용부분분산형/집약형/개실집약형)
		거주동	A23	건물의 노후 정도	건축연도
			A24	건물 내 시설	건물 내 편의시설의 유무(운동/상업/커뮤니티)
			A25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1_수직	거주중인 층수(저층부/중층부/고층부)
			A26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2_수평	주출입구로부터의 깊이
	입지환경 요소	건물군	A31	건물군 내 편의시설과의 관계	식당 및 상가로부터의 깊이
			A32	단지 내 가로망 체계	단지 내에서의 통합도
		단지	A33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	캠퍼스 진입부(월단보도)로부터의 깊이
			A34	외부와의 관계1_도보	순환도로로부터의 깊이
			A35	외부와의 관계2_대중교통	버스정류장으로부터의 깊이
이전 거주지	개인적 요소	거주자	B01	거주기간	거주기간
			B02	거주형태	자택 / 기숙사 / 자취 / 기타
	평면환경 요소	개인공간	B11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침실 공유 여부
			B12	단위실 구성	단위실의 공간 구성
			B15	거주인원	단위실의 동거인 수
			B16	거주자의 구성	동거인의 구성
			B17	단위실 내 시설	단위실에서의 행태 범위
	배치환경 요소	기준층	B21	기준층 공간구조1_주거부분형식	주거부분형식(복도형/계단실형/타워형)
			B24	건물 내 시설	건물 내 편의시설의 유무(운동/상업/커뮤니티)
		거주동	B25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1_수직	거주했던 층수(저층부/중층부/고층부)
	입지환경 요소	건물군	B31	편의시설과의 관계	상업시설까지의 시간
			B33	교육시설과의 관계	교육시설까지의 시간
			B35	외부와의 관계_대중교통	대중교통까지의 시간
			B36	외부 환경1_지역지구	지역지구
			B37	외부 환경2_행정구역	행정구역
변화 격차	개인적 요소	거주자	C01	거주기간	짧다 / 같다 / 길다
			C02	거주형태	같다 / 다르다
	평면환경 요소	개인공간	C11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같다 / 다르다
			C12	단위실 구성	같다 / 다르다
			C15	거주인원	적어졌다 / 같다 / 많아졌다
			C16	거주자의 구성	같다 / 다르다
			C17	단위실 내 시설	같다 / 다르다
	배치환경 요소	기준층	C21	기준층 공간구조1_주거부분 형식	같다 / 다르다
			C24	건물 내 시설	같다 / 다르다
		거주동	C25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1_수직	낮아졌다 / 같다 / 높아졌다
	입지환경 요소	단지	C36	외부 환경1_지역지구	같다 / 다르다
			C37	외부 환경2_행정구역	거리 차이



본 장에서는 예상 영향요인의 영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거주환경요소의 기준에 따라 집단은 나누고 각 집단의 평균 적응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사후분석을 통하여 어떤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유형 간의 평균차이 및 순서를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23.0이며 주로 사용한 분석방법은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F-검정)이다.

영향요인으로 판별된 거주환경요소들의 분포를 통해 독립변수인 현재 기숙사, 이전 거주지, 변화 격차로 나누어 분포가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종속변수인 변화수용도, 불안감, 익숙함을 기준으로 나누어 각 요인별 영향요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영향요인의 분포와 특징을 선행연구에서 밝혀한 기존의 국내 기숙사 변화과정에 대입하여 이를 점검해보고 기숙사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기숙사 건축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5.2. 분석 결과

### 5.2.1. 일반특성에 따른 적응 정도의 차이

거주환경요소에 따른 적응 정도를 분석하기에 앞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주자의 일반특성을 바탕으로 적응 정도를 파악하였다. 설문을 통해 파악한 거주자의 일반특성은 성별, 소속, 전공, 입학시기, 동기숙사 거주경험 유무 등이다.

#### ① 성별 (X01)

남녀로 구분되는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 이는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변화수용도, 익숙함, 불안감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음을 뜻하며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가 거주자의 성별

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2]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성별	N	M	SD	t	p
요인1 변화수용도	남	153	49.53	10.42	-0.654	0.513
	여	102	50.38	9.51		
요인2 익숙함	남	153	50.50	9.76	1.073	0.284
	여	102	49.12	10.36		
요인3 불안감	남	153	50.51	10.29	0.925	0.356
	여	102	49.32	9.77		

\*p<0.05, \*\*p<0.01, \*\*\*p<0.001

## ② 소속 (X02)

거주자의 소속은 학부, 대학원으로 구분되며 각 소속에 따라 정원과 거주동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거주자의 소속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 이는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변화수용도, 익숙함, 불안감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음을 뜻하며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가 거주자의 소속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3] 소속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소속	N	M	SD	t	p
요인1 변화수용도	학부	195	49.34	10.32	-1.520	0.130
	대학원	60	51.59	9.03		
요인2 익숙함	학부	195	49.50	10.34	-1.277	0.203
	대학원	60	51.39	8.78		
요인3 불안감	학부	195	49.59	10.28	-1.274	0.204
	대학원	60	51.48	9.34		

\*p<0.05, \*\*p<0.01, \*\*\*p<0.001

### ③ 전공 (X03)

거주자의 전공은 인문계열, 이공계열, 의약학계열, 예체능계열, 기타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기타에는 자유전공학부나 어학원 소속과 같이 전공이 불분명한 거주자를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 이는 전공이 다르다고 해서 변화수용도, 익숙함, 불안감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음을 뜻하며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가 거주자의 전공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4] 전공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전공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인문사회계열	90	50.73	9.59	0.639	0.635	
	이공계열	129	49.69	10.69			
	의/약학계열	16	49.43	10.05			
	예체능계열	11	49.35	6.79			
	기타	9	45.35	9.01			
요인2 익숙함	인문사회계열	90	49.25	10.60	0.820	0.514	
	이공계열	129	50.39	9.95			
	의/약학계열	16	51.60	8.65			
	예체능계열	11	46.10	8.60			
	기타	9	52.36	8.44			
요인3 불안감	인문사회계열	90	49.57	9.23	1.084	0.365	
	이공계열	129	50.93	10.65			
	의/약학계열	16	45.58	6.44			
	예체능계열	11	49.79	12.76			
	기타	9	49.99	11.31			

\* $p<0.05$ , \*\* $p<0.01$ , \*\*\* $p<0.001$

### ④ 입학시기 (X04)

입학시기는 소속과 마찬가지로 선발 시 거주자의 비율을 가르는 기준에 따라 2016년도 입학자인 신입생과 그 이전 입학자인 재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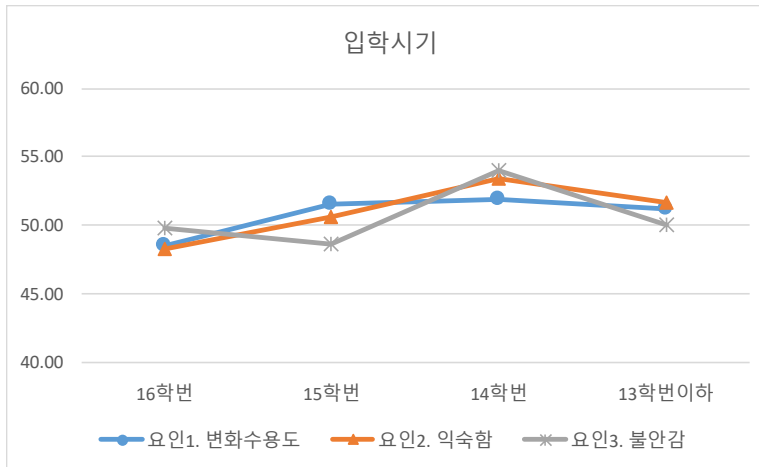
하였다. 그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익숙함은 각각 유의확률 0.020과 0.00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요인3 불안감은 유의확률 0.66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그림 5-1과 같이 학년에 따른 적응 정도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불안감은 학년과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변화수용도와 익숙함은 입학시기가 이룰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16학년과 15학년 사이에서 변화의 폭이 가장 컸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입학시기는 기숙사생활 적응 중 변화수용도와 익숙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요인1. 변화수용도는 신입생보다 재학생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입생 거주자가 재학생 거주자보다 거주환경의 변화를 더 크게 체감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신입생은 거주환경 이외에도 학교체계 등의 생활 전반이 함께 변하기 때문에 거주환경 변화가 크게 와닿는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요인2. 익숙함 역시 신입생보다 재학생의 평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재학생의 경우 이미 캠퍼스 전반이나 기숙사 시설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요인3. 불안감은 단순히 평균만 비교해보면 신입생보다 재학생이 더 높게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학년과의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으므로 입학시기 이외의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5-5] 입학시기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입학시기	N	M	SD	t	p
요인1 변화수용도	신입생	132	<b>48.46</b>	9.96	-2.335	<b>0.020*</b>
	재학생	123	<b>51.38</b>	9.99		
요인2 익숙함	신입생	132	<b>48.32</b>	10.26	-2.718	<b>0.007**</b>
	재학생	123	<b>51.69</b>	9.47		
요인3 불안감	신입생	132	49.77	10.53	-0.435	0.664
	재학생	123	50.32	9.61		

\*p&lt;0.05, \*\*p&lt;0.01, \*\*\*p&lt;0.001



[그림 5-1] 입학시기에 따른 적응 정도

#### ⑤ 동 기숙사의 다른 방 거주 경험 (X05)

현재 거주중인 방 이외에도 이전에 동 기숙사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가에 따라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각각 유의확률 0.017과 0.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요인3은 유의확률 0.11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기숙사의 다른 방 거주 경험이 기숙사생활 적응 중 변화수용도와 익숙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뜻한다.

요인1. 변화수용도는 거주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악학생생활관 거주 경험이 없는 거주자들에 비해 거주경험이 있는 거주자들이 재학생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단위실이나 건물 이외의 입지 환경요소가 기숙사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암시한다. 또한 요인2. 익숙함 역시 거주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숙사 총 거주기간이 길다보니 기숙사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대로 요인3. 불안감은 관악학생생활관의 다른 방 거주경험 여부와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숙사 거주자들에게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기숙사생활이 익

숙해져도 그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불안요인의 영향요인을 밝혀낸다면 거주자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5-6] 동 기숙사 거주경험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거주경험	N	M	SD	t	p
요인1	없음	202	<b>49.10</b>	10.18	-2.406	<b>0.017*</b>
변화수용도	있음	53	<b>52.80</b>	9.10		
요인2	없음	202	<b>48.99</b>	9.91	-3.025	<b>0.003**</b>
익숙함	있음	53	<b>53.59</b>	9.61		
요인3	없음	202	49.52	10.10	-1.602	0.110
불안감	있음	53	52.00	9.84		

\*p<0.05, \*\*p<0.01, \*\*\*p<0.001

차이검정 결과 다섯 가지 일반특성 중 성별, 소속, 전공은 기숙사생활 적응의 세 가지 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별과 소속은 분석 대상지에서 거주자의 거주동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통제되지 않아도 되는 변인으로 판단하여 기숙사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해도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2.2.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에 따른 적응 정도의 차이

#### (1) 개인적 요소

##### ① 기숙사 총 거주기간 (A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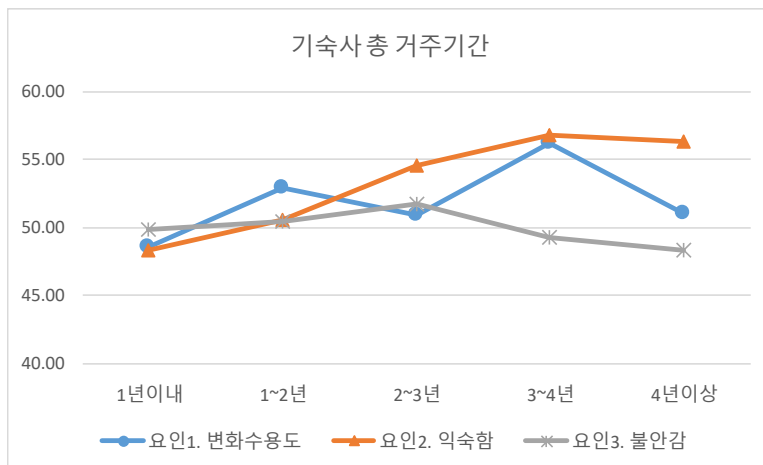
기숙사 총 거주기간은 1년 이내와 1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이 각각 유의확률 0.005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3, 불안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그림 5-2와 같이 거주기간 변화에 따른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

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요인2. 익숙함은 거주기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7] 관악학생생활관 총 거주기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거주기간	N	M	SD	t	p
요인1	1년 이내	170	<b>48.61</b>	10.10	-2.858	<b>0.005**</b>
변화수용도	1년 이상	85	<b>52.38</b>	9.55		
요인2	1년 이내	170	<b>48.28</b>	10.05	-3.859	<b>0.000***</b>
익숙함	1년 이상	85	<b>53.28</b>	9.10		
요인3	1년 이내	170	49.89	10.40	-0.318	0.751
불안감	1년 이상	85	50.32	9.45		

\*p<0.05, \*\*p<0.01, \*\*\*p<0.001



[그림 5-2] 기숙사 총 거주기간에 따른 적응 정도

요인1. 변화수용도는 일관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으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복은 있으나 조금씩 이전 거주지와와 거주 환경 차이를 극복하고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2. 익숙함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확연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3년까지는 익숙함 점수의 변화폭이 크다가 그 이후에는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입학시기 및 관악학생생활관의 다른 방 거주 경험 유무에 따른 적응 정도를 분석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로, 변화수용도와 익숙함은 기숙사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뜻하며 기숙사에서 총 거주기간이 길어져도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됨을 의미한다.

## ② 현재 거주중인 방에서의 거주기간 (A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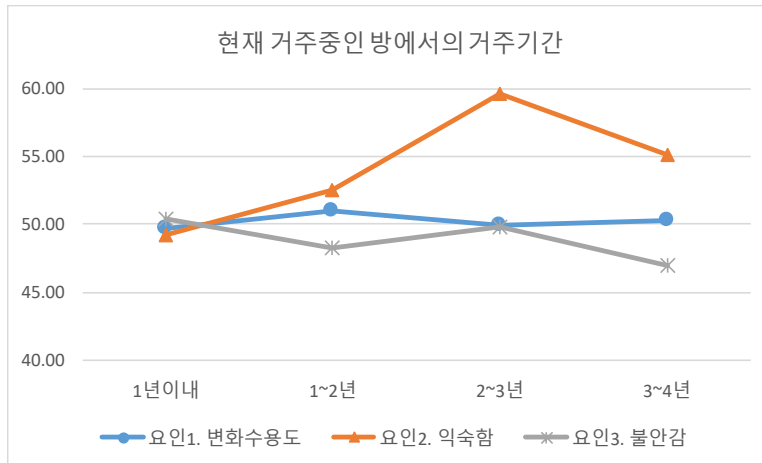
현재 방에서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2016년도 입주자인 거주 1년 이내와 그 이전 입주자인 1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의 유의확률은 0.508, 요인3. 불안감은 0.21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요인2. 익숙함만이 0.00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림 5-3과 같이 세분화하여 꺾은선그래프로 살펴본 결과 현재방에서의 거주기간 3년까지는 급격한 익숙함의 증가를 보였으며 변화수용도와 불안감은 거주기간의 변화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표 5-8] 현재 거주중인 방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거주기간	N	M	SD	t	p
요인1	1년 이내	214	49.70	9.87	-0.599	0.550
변화수용도	1년 이상	41	50.73	11.06		
요인2	1년 이내	214	<b>49.23</b>	10.07	-2.632	<b>0.009**</b>
익숙함	1년 이상	41	<b>53.67</b>	8.89		
요인3	1년 이내	214	50.36	10.31	1.196	0.233
불안감	1년 이상	41	48.31	8.70		

\*p<0.05, \*\*p<0.01, \*\*\*p<0.001





[그림 5-3] 현재 거주중인 방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른 적응 정도

요인2 익숙함은 기숙사 총 거주기간보다 그래프의 변화폭이 더 큰 모습을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3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현재 방 및 기숙사 거주환경에 익숙해지는 데에는 약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1 변화수용도는 기숙사 총 거주기간과 그래프의 모양은 유사하다 변화폭이 훨씬 줄어든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거주기간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유사한 결과가 나왔지만 단위실 이외의 요소 즉 입지환경요소의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거주중인 방에서의 거주기간은 기숙사 총 거주기간과는 유사하기는 하나 다른 영향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익숙함의 영향요인이기는 하나 변화수용도와 불안감의 영향요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2) 기숙사의 평면환경요소

### ①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A11)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는 1인실이어서 방 전체가 개인공간인 경우와 2인실이나 단위실 내부에 칸막이가 있어 방의 절반을 개인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칸막이가 없어서 개인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

라 분석한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요인3 불안감은 유의확률 0.04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분석에서는 집단 간 비교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표 5-9] 개인공간 확보 정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개인공간 확보 정도	N	M	SD	F	p	Post-Hoc (Duncan)
요인1 변화수용도	2인실(칸막이없음)	176	49.19	10.30	1.325	0.268	
	2인실(칸막이있음)	62	51.34	9.71			
	1인실	17	51.59	8.37			
요인2 익숙함	2인실(칸막이없음)	176	49.20	10.34	2.801	0.063	
	2인실(칸막이있음)	62	52.52	8.52			
	1인실	17	48.36	10.49			
요인3 불안감	2인실(칸막이없음)	176	<b>48.97</b>	10.15	3.273	<b>0.040*</b>	
	2인실(칸막이있음)	62	<b>52.57</b>	9.28			
	1인실	17	<b>51.82</b>	10.86			

\*p<0.05, \*\*p<0.01, \*\*\*p<0.001

[표 5-10] 개인공간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개인공간	N	M	SD	t	p
요인1 변화수용도	없음	176	49.19	10.30	-1.629	0.105
	있음	79	51.40	9.39		
요인2 익숙함	없음	176	49.20	10.34	-1.800	0.073
	있음	79	51.62	9.07		
요인3 불안감	없음	176	<b>48.97</b>	10.15	-2.548	<b>0.011*</b>
	있음	79	<b>52.40</b>	9.57		

\*p<0.05, \*\*p<0.01, \*\*\*p<0.001

요인3 불안감의 집단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개인공간 확보가 가장 적은 칸막이 없는 2인실의 불안감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1인실, 칸막이 있는 2인실로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와 불안감 사이에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다른 요소의 영향에 의해 우연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1인실의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으므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두 번째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를 다시 개인공간의 유무로만 나누어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개인공간이 없는 경우의 불안감이 낮고 개인공간이 있는 경우의 불안감이 높고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개인공간의 확보가 오히려 단절감과 고립된 느낌을 주어 불안감을 높게 만든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변화수용도와 익숙함은 구분 기준과 상관없이 개인공간 확보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② 단위실 구성 (A12)

단위실은 하나의 현관으로 묶이는 공간으로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단위실의 구성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화장실의 유무 및 거실의 유무 등과 같은 공간구성의 차이를 기준으로 아파트형, 원룸형, 개실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결과 관악학생생활관의 경우 동일 공간 구성에 따라 단위실 내 시설과 공용부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되어 단위실 구성에 의한 집단 구분이 단위실 내 시설, 공용부분의 형식과 동일하게 구분되어 동일한 통계적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

차이검정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요인3 불안감은 유의확률 0.007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나타난 요인3. 불안감은 추가로 사후분석 실시하였고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 0.023으로 등분산이 아니므로 등분산을 가정하는 Duncan이 아니라 Tamhane의 T2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요인3 불안감은 아파트형일 경우 불안감이 가장 낮았으며 개실형 및 원룸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실이 있는 ‘집’의 형태를 한 단위실이 현관과 침실이 바로 붙어있는 ‘방’의 형태인 단위실보다 불안감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11] 단위실 구성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단위실 구성	N	M	SD	F	p	Post-Hoc (Tamhane)
요인1 변화수용도	개실형	112	48.56	10.18	1.837	0.161	
	원룸형	70	51.35	9.74			
	아파트형	73	50.46	10.05			
요인2 익숙함	개실형	112	49.53	8.70	1.734	0.179	
	원룸형	70	51.78	9.17			
	아파트형	73	48.83	12.30			
요인3 불안감	개실형(a)	112	50.47	11.14	5.017	<b>0.007**</b>	c<b
	원룸형(b)	70	52.32	9.07			
	아파트형(c)	73	47.17	8.64			

\*p&lt;0.05, \*\*p&lt;0.01, \*\*\*p&lt;0.001

사후분석 결과와 상관없이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개실형과 원룸형 사이에도 아파트형과 원룸형의 차이 못지않은 평균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화장실이 단위실 내부에 있는 편이 이용에는 편리하지만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와 마찬가지로 단절감과 고립감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서로 알고 지내는 6명의 소그룹과 거실 및 화장실을 공유하는 아파트형의 경우 가족과 마찬가지로 소속감을 느끼기 가장 좋은 환경이고 화장실 및 커뮤니티 공간을 같은 층의 거주자들과 공유하는 개실형의 경우 역시 타인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룸형의 경우 1인 혹은 2인만이 사용하는 단위실 내부에서 기본적인 주거기능을 모두 해결하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고 이로 인해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단위실의 구성 및 단위실 내 시설, 공용부분의 형식은 기숙사생활 적응 중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③ 침실의 면적 (A13)

침실의 면적은 단위실의 전체 면적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공간으로 인지하는 침실영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아파트형은 6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과 베란다를 제외한 본인의 침실 면적만이 해당되고, 화장실이 단위실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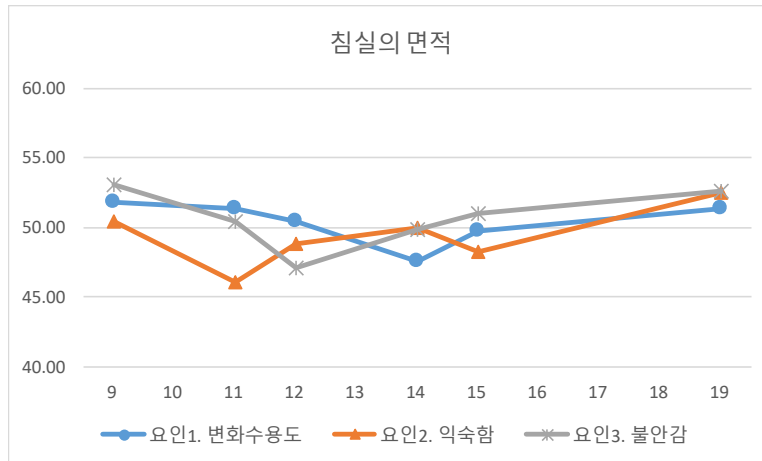
된 원룸형의 경우에도 화장실 면적을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요인3 불안감은 유의확률 0.05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분산분석 결과와는 달리 사후분석 결과상으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 5-4와 같이 꺾은선그래프를 통해 침실 면적 변화에 따른 각 기숙사생활 적응 요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5-12] 침실의 면적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침실 면적 (m <sup>2</sup> )	N	M	SD	F	p	Post-Hoc (Duncan)
요인1 변화수용도	9	9	51.79	6.32	1.128	0.346	
	11	8	51.36	10.69			
	12	73	50.46	10.05			
	14	70	47.61	11.00			
	15	33	49.70	9.07			
	19	62	51.34	9.71			
요인2 익숙함	9	9	50.43	8.64	1.450	0.207	
	11	8	46.03	12.43			
	12	73	48.83	12.30			
	14	70	50.01	9.18			
	15	33	48.28	7.73			
	19	62	52.52	8.52			
요인3 불안감	9	9	53.07	13.56	2.250	0.050*	
	11	8	50.41	7.43			
	12	73	47.17	8.64			
	14	70	49.88	11.49			
	15	33	51.00	9.84			
	19	62	52.57	9.28			

\*p<0.05, \*\*p<0.01, \*\*\*p<0.001



[그림 5-4] 침실의 면적에 따른 적응 정도

그 결과 세 요인 모두 침실의 면적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면적 이외의 다른 요소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요인3 불안감의 경우 두드러지게 낮은 불안감을 보인 12m²의 침실은 앞서 분석한 단위실의 구성 유형 중 아파트형에 해당되며 나머지 면적은 개실형과 원룸형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실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불안감과 침실의 면적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으므로 기숙사생활 적응은 침실의 면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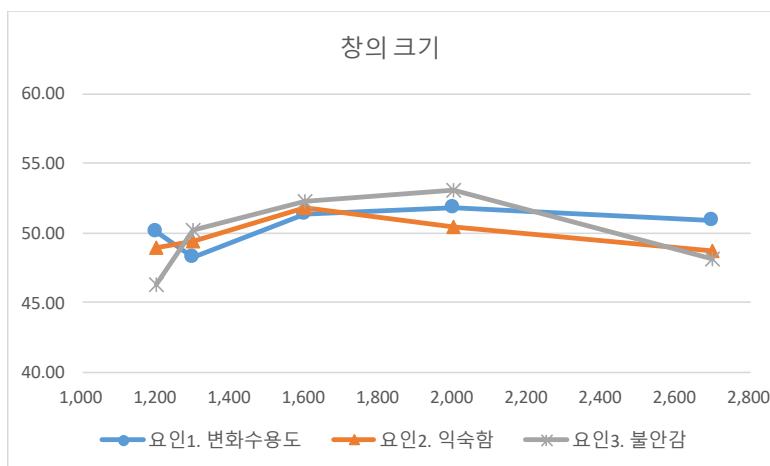
#### ④ 채광 및 조망 (A14)

각 단위실의 채광 및 조망은 단위실의 위치와도 관계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창 크기 클수록 좋아진다. 따라서 각 단위실 창의 가로 폭을 기준으로 차이검정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요인3 불안감은 유의확률 0.025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13] 창의 크기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창크기(mm)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1200	39	50.04	10.03	1.204	0.309	
	1300	103	48.28	10.43			
	1600	70	51.35	9.74			
	2000	9	51.79	6.32			
	2700	34	50.94	10.20			
요인2 익숙함	1200	39	48.94	12.94	0.882	0.475	
	1300	103	49.46	8.74			
	1600	70	51.78	9.17			
	2000	9	50.43	8.64			
	2700	34	48.70	11.70			
요인3 불안감	1200(a)	39	46.31	8.25	2.825	<b>0.025*</b>	a<c,d
	1300(b)	103	50.24	10.95			
	1600(c)	70	52.32	9.07			
	2000(d)	9	53.07	13.56			
	2700(e)	34	48.15	9.09			

\*p<0.05, \*\*p<0.01, \*\*\*p<0.001



[그림 5-5] 창 크기에 따른 적응 정도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창 크기 1200mm와 1600,2000mm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5-5와 같이 꺾은선그래프로 적응 정도를 살펴본

결과 창 의 크기와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1200mm는 아파트형 단위실이며 1600mm와 2000mm는 원룸형과 개실형 단위실이므로 단위실 구성과 같은 다른 요소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요인3 불안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창 의 크기에 의한 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숙사생활 적응은 창 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⑤ 거주인원 (A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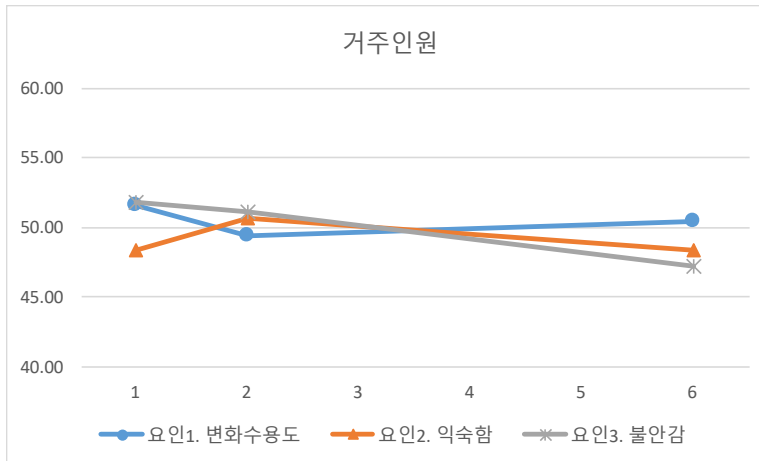
단위실의 거주인원은 하나의 현관을 공유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침실은 2인이 공유하지만 현관과 거실, 화장실을 6인이 공유하는 아파트형의 경우 6인실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으로 분석한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요인3 불안감은 유의확률 0.01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5-14] 거주인원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거주인원	N	M	SD	F	p	Post-Hoc (Duncan)
요인1 변화수용도	1인실	17	51.59	8.37	0.528	0.591	
	2인실	165	49.43	10.24			
	6인실	73	50.46	10.05			
요인2 익숙함	1인실	17	48.36	10.49	1.031	0.358	
	2인실	165	50.61	8.76			
	6인실	73	48.83	12.30			
요인3 불안감	1인실	17	51.82	10.86	4.280	<b>0.015*</b>	
	2인실	165	51.12	10.39			
	6인실	73	47.17	8.64			

\*p<0.05, \*\*p<0.01, \*\*\*p<0.001





[그림 5-6] 거주인원에 따른 적응 정도

그러나 분산분석 후 사후검정에서는 집단 간에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림 5-6과 같이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유추하였다. 그 결과 요인3 불안감은 1인실이 가장 높고 2인실, 6인실의 순서로 낮아져 거주인원이 많아질수록 불안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거주인원은 기숙사생활 적응 중 변화수용도와 익숙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불안감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⑥ 거주자의 구성 (A16)

거주자의 구성은 본인 이외의 동거인이 기숙사에 거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지 같은 단위실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지에 따라 본인혼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각각의 유의확률이 0.046, 0.0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3 불안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는 동거인이 아는 사람인 경우와 모르는 사람인 경우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요인2 익숙함 역시 본인 혼자 방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거인이 아는 사람인 경우는 차이가 없으나 이 둘의 경우와 동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거주자의 구성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거주자 구성	N	M	SD	F	p	Post-Hoc (Duncan)
요인1 변화수용도	본인혼자(a)	17	51.59	8.37	3.124	<b>0.046*</b>	c<b
	아는사람(b)	14	55.93	7.76			
	모르는사람(c)	224	49.36	10.19			
요인2 익숙함	본인혼자(a)	17	48.36	10.49	4.717	<b>0.010*</b>	a,c<b
	아는사람(b)	14	57.72	8.45			
	모르는사람(c)	224	49.58	9.89			
요인3 불안감	본인혼자	17	51.82	10.86	0.660	0.518	
	아는사람	14	47.64	6.77			
	모르는사람	224	50.05	10.20			

\*p&lt;0.05, \*\*p&lt;0.01, \*\*\*p&lt;0.001

변화수용도와 익숙함 모두 모르는 사람과 함께 방을 쓰는 경우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기숙사 거주자가 적응해야하는 환경에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동거인도 포함됨을 의미한다. 특히 1인실인 경우와 아는 사람과 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몇 명이 함께 단위실을 사용하는가보다 누구와 함께 사용하는가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거주자의 구성은 기숙사생활 적응 중 변화수용도와 익숙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거주인원이 기숙사생활 적응 중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사실과 상반된 결과이며 거주인원은 물리적 환경의 계획을 통해 결정되는 요소이지만 거주자의 구성은 비(非)물리적 환경이라는 차이가 있다.

#### ⑦ 단위실 내 시설 (A17)

단위실 내 시설은 단위실에서 가능한 행태를 기준으로 삼았다. 단위실에서 수면만 가능한 경우와 수면 및 세면이 가능한 경우 수면, 세면, 세탁이 가능한 경우, 수면, 세면, 세탁, 취사의 모든 기본적인 주거 행태가 가능한지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앞서 분석한 단위실 구성 및 공용부분형식과 동일한 집단으로

뭉이게 되었고, 동일한 통계적 결과를 보이게 되어 단위실의 구성 및 단위실 내 시설, 공용부분의 형식은 기숙사생활 적응 중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표 5-16] 단위실 내 시설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단위실 내 시설	N	M	SD	F	p	Post-Hoc (Tamhane)
요인1 변화수용도	수면	112	48.56	10.18	1.837	0.161	
	수면세면	70	51.35	9.74			
	수면세면세탁	73	50.46	10.05			
요인2 익숙함	수면	112	49.53	8.70	1.734	0.179	
	수면세면	70	51.78	9.17			
	수면세면세탁	73	48.83	12.30			
요인3 불안감	수면(a)	112	50.47	11.14	5.017	<b>0.007**</b>	c<b
	수면세면(b)	70	52.32	9.07			
	수면세면세탁(c)	73	47.17	8.64			

\*p<0.05, \*\*p<0.01, \*\*\*p<0.001

### (3) 기숙사의 배치환경요소

#### ① 주거부분 형식 (A21)

주거부분의 형식은 단위실의 배치방식에 따라 복도형, 계단실형, 타워형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요인3 불안감은 유의확률 0.04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은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 0.017로 등분산이 아니므로 ‘Tamhane의 T2’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타워형보다 계단실형의 불안감이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5-17] 주거부분 형식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주거부분형식	N	M	SD	F	p	Post-Hoc (Tamhane)
요인1 변화수용도	복도형	159	49.39	10.00	0.593	0.553	
	계단실형	39	50.04	10.03			
	타워형	57	51.08	10.30			
요인2 익숙함	복도형	159	50.45	8.86	0.532	0.588	
	계단실형	39	48.94	12.94			
	타워형	57	49.25	10.81			
요인3 불안감	복도형(a)	159	50.76	10.75	3.207	<b>0.042*</b>	b<a
	계단실형(b)	39	46.31	8.25			
	타워형(c)	57	50.55	8.78			

\*p&lt;0.05, \*\*p&lt;0.01, \*\*\*p&lt;0.001

사후분석 결과와 상관없이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요인1. 변화수용도의 경우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타워형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계단실형, 복도형의 순서를 보이나 계단실형과 타워형의 평균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2. 익숙함의 경우 역시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복도형이 기숙사 환경에 가장 익숙하다고 느끼며 계단실형, 타워형으로 갈수록 덜 익숙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인 요인3. 불안감의 경우 계단실형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가장 불안감을 적게 느끼고, 타워형, 복도형의 순서로 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단실형은 모두 단위실의 구성이 아파트형이며 타워형은 아파트형과 원룸형이 섞여 있어 주거부분 형식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단위실 구성의 영향이 포함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일한 단위실 구성일 때 주거부분형식의 차이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관악학생생활관의 경우 아파트형은 계단실형과 타워형 두 가지로, 원룸형은 타워형과 복도형 두 가지로, 개실형은 복도형 한 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아파트형일 때 계단실형과 타워형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동일한 원룸형일 때 타워형과 복도형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 주거부분 형식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5-18] 아파트형의 주거부분 형식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주거부분형식	N	M	SD	t	p
요인1	계단실형	39	50.04	10.03	-0.380	0.705
변화수용도	타워형	34	50.94	10.20		
요인2	계단실형	39	48.94	12.94	-0.079	0.937
익숙함	타워형	34	48.71	11.70		
요인3	계단실형	39	46.31	8.25	-0.908	0.367
불안감	타워형	34	48.45	9.09		

\*p<0.05, \*\*p<0.01, \*\*\*p<0.001

[표 5-19] 원룸형의 주거부분 형식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주거부분형식	N	M	SD	t	p
요인1	타워형	23	51.28	10.67	-0.038	0.970
변화수용도	복도형	47	51.38	9.38		
요인2	타워형	23	50.06	9.54	-1.096	0.277
익숙함	복도형	47	52.62	8.97		
요인3	타워형	23	54.11	7.07	1.291	0.202
불안감	복도형	47	51.45	9.84		

\*p<0.05, \*\*p<0.01, \*\*\*p<0.001

그 결과 아파트형과 원룸형 모두 동일한 단위실 구성일 때 주거부분 형식의 차이에 따라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 유의미함과 무관하게 각 요인의 평균을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요인1 변화수용도는 평균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으며 요인2 익숙함의 경우 타워형과 복도형 중 복도형의 평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복도형 기숙사가 가장 오래된 만큼 거주자들의 인식 속에서 익숙한 기숙사의 배치방식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요인3 불안감은 나머지 두 요인에 비해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단실형과 복도형의 불안감에 비해 타워형의 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주거부분 형식은 기숙사생활 적응 중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그 영향력의 크기가 단위실 구성보다는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 ② 공용부분 형식 (A22)

공용부분의 형식은 공용부분의 배치방식을 기준으로 공용부분분산형, 공용부분 집약형, 개실집약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앞서 분석한 단위실 구성 및 단위실 내 시설과 동일한 집단으로 묶이게 되었고, 동일한 통계적 결과를 보이게 되어 단위실의 구성 및 단위실 내 시설, 공용부분의 형식은 기숙사생활 적응 중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표 5-20] 공용부분 형식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공용부분형식	N	M	SD	F	p	Post-Hoc (Tamhane)
요인1 변화수용도	공용부분집약형	112	48.56	10.18	1.837	0.161	
	공용부분분산형	70	51.35	9.74			
	개실집약형	73	50.46	10.05			
요인2 익숙함	공용부분집약형	112	49.53	8.70	1.734	0.179	
	공용부분분산형	70	51.78	9.17			
	개실집약형	73	48.83	12.30			
요인3 불안감	공용부분집약형(a)	112	50.47	11.14	5.017	0.007**	c<b
	공용부분분산형(b)	70	52.32	9.07			
	개실집약형(c)	73	47.17	8.64			

\*p&lt;0.05, \*\*p&lt;0.01, \*\*\*p&lt;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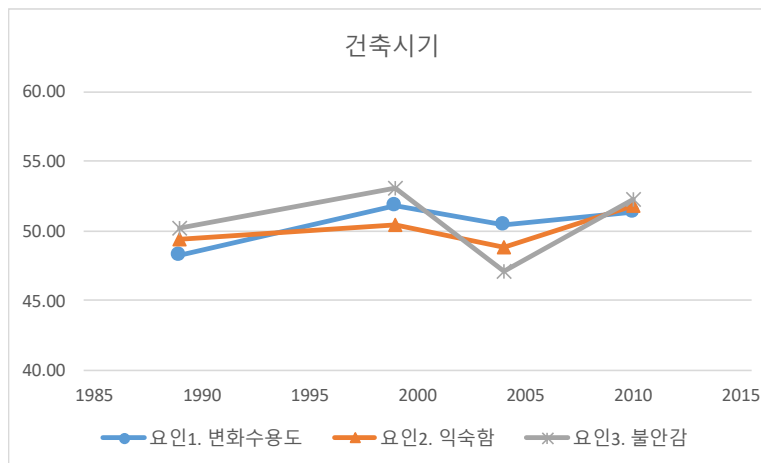
## ③ 건물의 노후 정도 (A23)

관악학생생활관의 노후 정도는 건축시기를 지표로 삼으며 1989년, 1999년, 2004년, 2010년의 4가지로 구분되며 1989년 집단에는 921~926동, 1999년 집단에는 918동, 2004년 집단에는 919A~D동, 2010년 집단에는 900~906동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요인3 불안감은 유의확률 0.01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은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 0.036으로 등분산이 아니므로 Tamhane의 T2로 대체하여 시행하였다.

[표 5-21] 건축시기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건축시기	N	M	SD	F	p	Post-Hoc (Tamhane)
요인1 변화수용도	1989	103	48.28	10.43	1.562	0.199	
	1999	9	51.79	6.32			
	2004	73	50.46	10.05			
	2010	70	51.35	9.74			
요인2 익숙함	1989	103	49.46	8.74	1.178	0.319	
	1999	9	50.43	8.64			
	2004	73	48.83	12.30			
	2010	70	51.78	9.17			
요인3 불안감	1989(a)	103	50.24	10.95	3.564	<b>0.015*</b>	c<d
	1999(b)	9	53.07	13.56			
	2004(c)	73	47.17	8.64			
	2010(d)	70	52.32	9.07			

\*p<0.05, \*\*p<0.01, \*\*\*p<0.001



[그림 5-7] 건축시기에 따른 적응 정도

그 결과 건축시기가 2004년인 집단과 2010년인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2010년이 2004년보다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건축시기에 따른 기숙사생활 적

응 정도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5-7과 같이 꺾은선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건축시기와 불안감 사이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가장 낮은 불안감을 보이는 2004년 집단은 앞서 낮은 불안감을 보였던 아파트형이며 가장 높은 불안감을 보이는 2010년 집단은 앞서 높은 불안감을 보였던 원룸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건축시기만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개실형의 복도형이라는 동일한 단위실 구성과 주거부분의 형식을 가진 1989년 집단과 1999년 집단이 평균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나 이 역시 1999년 집단의 거주인원이 1989년 집단의 거주인원보다 적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어 건축시기의 영향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숙사의 노후 정도는 기숙사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른 영향요인에 비해 훨씬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 ④ 건물 내 시설 (A24)

건물 내 시설은 커뮤니티의 유무, 운동시설의 유무, 상가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분석 대상지의 경우 모든 건물에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가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동시설도 함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커뮤니티 및 운동, 커뮤니티 및 운동, 상가의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분으로 분석한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요인3 불안감은 유의확률 0.017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은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가 유의확률 0.006으로 등분산이 아니므로 Tamhane의 T2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거주동에 커뮤니티만 있는 집단과 운동과 상가가 함께 배치된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시설과 상가의 영향력을 판별하기 위하여 운동시설의 유무와 상가의 유무로 다시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운동시설의 유무와 상가의 유무 모두 요인3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것이 더 영향력이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운동시설이나 상가와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거주동 내에 배치되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확연히 낮은 불안감을 보인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거주중인 건물 내에 배치된 시설의 종류가 기숙사생활 적응 중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22] 건물 내 시설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건물내시설	N	M	SD	F	p	Post-Hoc (Tamhane)
요인1 변화수용도	커뮤니티	164	49.23	10.28	0.964	0.383	
	커뮤니티운동	9	51.79	6.32			
	커뮤니티운동상가	82	50.94	9.91			
요인2 익숙함	커뮤니티	164	50.17	8.99	0.146	0.864	
	커뮤니티운동	9	50.43	8.64			
	커뮤니티운동상가	82	49.46	11.99			
요인3 불안감	커뮤니티(a)	164	51.14	10.50	4.135	<b>0.017*</b>	c<a
	커뮤니티운동(b)	9	53.07	13.56			
	커뮤니티운동상가(c)	82	47.48	8.28			

\*p<0.05, \*\*p<0.01, \*\*\*p<0.001

[표 5-23] 거주동 내 운동시설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운동시설	N	M	SD	t	p
요인1 변화수용도	없음	164	49.23	10.28	-1.370	0.172
	있음	91	51.03	9.59		
요인2 익숙함	없음	164	50.17	8.98	0.433	0.666
	있음	91	49.56	11.67		
요인3 불안감	없음	164	<b>51.14</b>	10.50	2.490	<b>0.014*</b>
	있음	91	<b>48.03</b>	8.99		

[표 5-24] 거주동 내 상가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상가	N	M	SD	t	p
요인1 변화수용도	없음	173	49.36	10.12	-1.174	0.241
	있음	82	50.94	9.91		
요인2 익숙함	없음	173	50.18	8.94	0.484	0.630
	있음	82	49.46	11.99		
요인3 불안감	없음	173	<b>51.24</b>	10.64	3.084	<b>0.002*</b>
	있음	82	<b>47.48</b>	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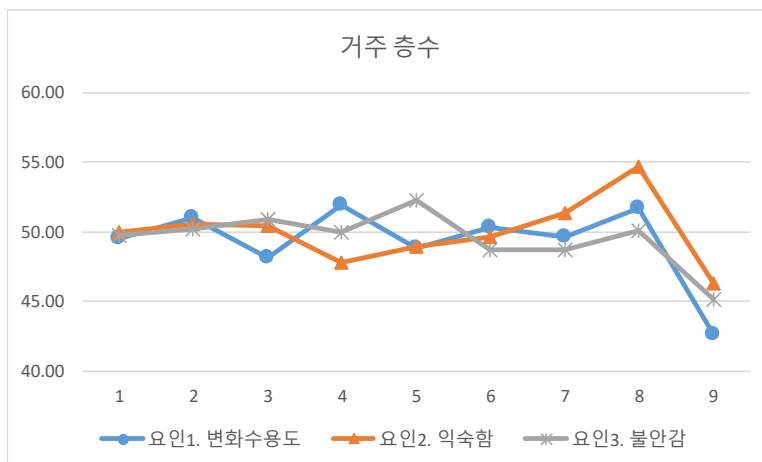
## ⑤ 단위실의 건물 내 수직적 입지 (A25)

단위실의 건물 내 수직적 입지는 단위실이 몇 층에 위치하는가를 지표로 삼았다. 분석 대상지의 층수 분포는 1~9층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이를 저층부(1,2층), 중층부(3~5층), 고층부(6~9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와 같은 구분으로 분석한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

[표 5-25] 단위실의 수직적 입지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수직적입지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저층부	65	50.56	10.46	0.209	0.812	
	중층부	121	49.67	9.97			
	고층부	69	49.57	9.95			
요인2 익숙함	저층부	65	50.35	8.46	0.699	0.498	
	중층부	121	49.19	9.91			
	고층부	69	50.89	11.46			
요인3 불안감	저층부	65	50.10	9.41	0.991	0.373	
	중층부	121	50.79	11.12			
	고층부	69	48.65	8.67			

\* $p<0.05$ , \*\* $p<0.01$ , \*\*\* $p<0.001$



[그림 5-8] 거주 층수에 따른 적응 정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림 5-8과 같이 꺾은선그래프를 그려 층수의 변화에 따른 적응 정도의 변화양상을 확인한 결과, 층수와 세 가지 요인 점수 사이에 일관된 상관관계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이를 종합하면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가 단위실의 건물 내 수직적 입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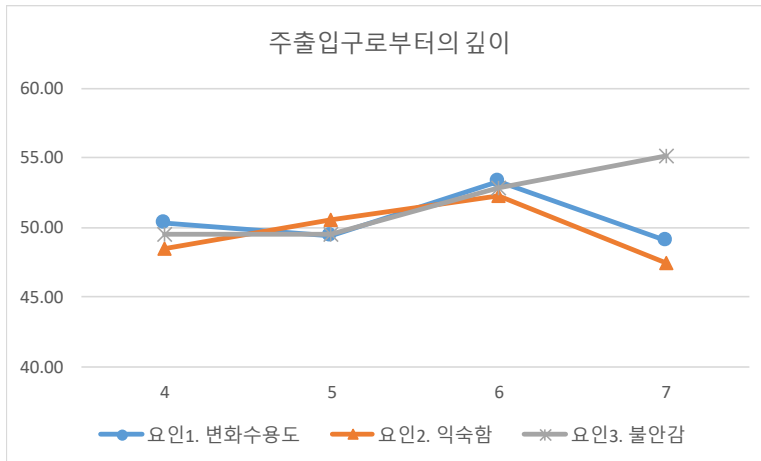
#### ⑥ 단위실의 건물 내 수평적 입지 (A26)

단위실의 건물 내 수평적 입지는 공간구문론의 Point Depth를 활용하여 단위실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깊이를 지표로 삼았다. 919C~D동, 923동, 926동은 4, 904~906동, 919A~B동, 921~922동, 924~925동은 5, 900~901동, 903동은 6, 902동 918동은 7의 분포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

[표 5-26] 주출입구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깊이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4	67	50.33	9.61	0.917	0.433	
	5	156	49.35	10.36			
	6	18	53.30	10.16			
	7	14	49.01	8.44			
요인2 익숙함	4	67	48.49	9.87	1.260	0.289	
	5	156	50.53	10.22			
	6	18	52.27	8.54			
	7	14	47.46	9.53			
요인3 불안감	4	67	49.56	9.50	1.879	0.134	
	5	156	49.46	10.40			
	6	18	52.80	5.01			
	7	14	55.13	12.74			

$p<0.05$ ,  $**p<0.01$ ,  $***p<0.001$



[그림 5-9] 주출입구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적응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림 5-9와 같이 주출입구까지의 깊이에 따른 세 요인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주출입구로부터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요인3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출입구로부터 단위실까지의 이동경로가 복잡해지면 불안감이 증가함을 의미하는데 외부환경으로부터의 단절된 느낌이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주출입구로부터의 깊이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상관관계로 볼 때 기숙사생활 적응 중 불안감은 주출입구로부터의 깊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된다.

#### (4) 기숙사의 입지환경요소

##### ① 건물군 내 편의시설과의 관계 (A31)

건물군 내 편의시설과의 관계는 공간구문론의 Point Depth를 활용하였으며 각 동의 출입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편의시설까지의 깊이를 지표로 삼았다. 편의시설은 매점 편의점과 같은 상가와 식당을 포함하며 동일건물 내에 편의시설이 있어 건물의 출입구를 거치지 않고 편의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 그 깊이를 '0'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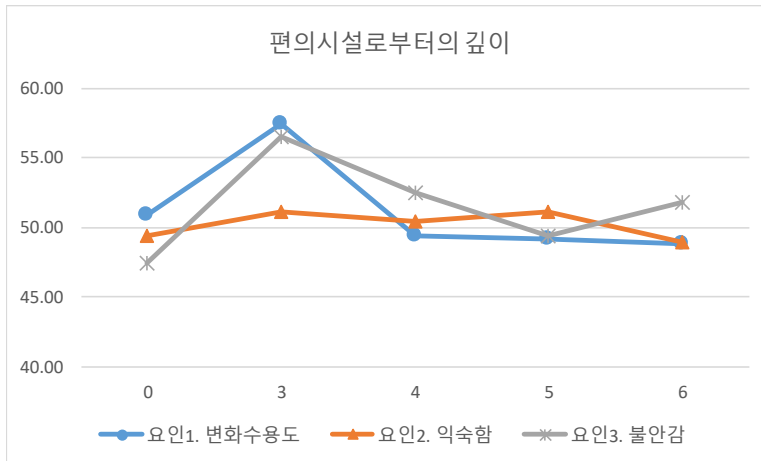
를 보이지 않았으며 요인3 불안감은 유의확률 0.016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3. 불안감은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 0.013으로 등분산이 아니므로 Tamhane의 T2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불안감에 대한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5-10과 같이 꺾은선그래프를 그려 편의시설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기숙사 생활 적응 정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으나 세 요인 모두 편의시설로부터의 깊이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요인2 익숙함의 경우 편의시설로부터의 깊이와 무관하게 일정한 평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3 불안감은 편의시설로부터의 깊이의 변화와 무관하게 들쭉날쭉한 결과를 보여 다른 요소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5-27] 편의시설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깊이	N	M	SD	F	p	Post-Hoc (Tamhane)
요인1 변화수용도	0	82	50.94	9.91	1.190	0.315	
	3	5	57.40	9.68			
	4	44	49.36	9.34			
	5	64	49.23	11.15			
	6	60	48.84	9.48			
요인2 익숙함	0	82	49.46	11.99	0.455	0.769	
	3	5	51.15	5.72			
	4	44	50.46	9.41			
	5	64	51.09	8.81			
	6	60	48.93	9.00			
요인3 불안감	0	82	47.48	8.28	3.099	0.016*	
	3	5	56.50	4.99			
	4	44	52.50	11.31			
	5	64	49.45	10.15			
	6	60	51.79	10.86			

\*p<0.05, \*\*p<0.01, \*\*\*p<0.001



[그림 5-10] 편의시설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적응 정도

요인3 불안감은 편의시설이 동일 건물 내에 있을 때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분석한 건물 내 시설과 동일한 결과로 두 가지 요소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볼 때 동일 건물 내에 어떤 시설이 있느냐는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동일 건물 내에 편의시설이 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의시설까지의 접근성과 불안감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통계적 분석결과와 달리 편의시설로부터의 깊이는 기숙사 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단지 내 가로망 체계 (A32)

단지 내 가로망 체계는 공간구문론의 통합도를 지표로 삼았으며 분석 범위는 단지 내부 가로망과 외부로 연결되는 순환도로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각 거주동의 주출입구는 0.6에서 1.3의 다양한 통합도를 보였는데 이를 0.1 단위로 나누어 각 집단의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요인3 불안감은 유의확률 0.024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실시 결과 통합도 0.6이상 1.1미만의 집단은 1.3이상 1.4미만의 집단보다 불안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그림 5-11과 같이 꺾은선그래프를 그려 통합도에 따른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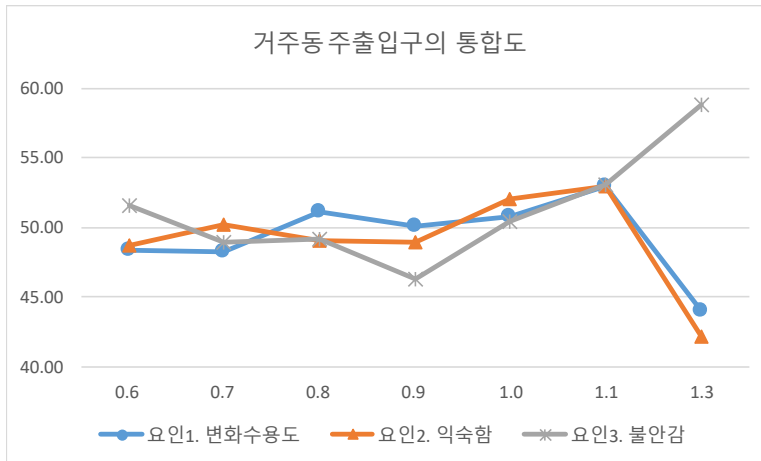
와 요인2 익숙함은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요인3 불안감의 경우에는 통합도 0.9미만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다가 0.9를 기점으로 양의 상관관계로 변하는 양상을 보였다.

통합도가 낮다는 것은 해당 건물에서 단지 내 다른 공간까지의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 근처의 통행량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자들이 불안감을 가장 적게 느끼는 적당한 접근성은 통합도 분포의 중앙값인 0.9로 볼 수 있는데, 통합도는 상대적인 값이므로 0.9라는 수치보다 통합도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가로망을 계획해야 전반적인 불안감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28] 동별 주출입구의 통합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통합도	N	M	SD	F	p	Post-Hoc (Duncan)
요인1 변화수용도	0.6	51	48.32	9.89	1.411	0.211	
	0.7	52	48.25	11.02			
	0.8	43	51.12	9.46			
	0.9	39	50.04	10.03			
	1.0	32	50.81	9.31			
	1.1	33	52.98	9.82			
	1.3	5	44.00	10.15			
요인2 익숙함	0.6	51	48.66	9.12	1.537	0.167	
	0.7	52	50.23	8.37			
	0.8	43	49.07	11.06			
	0.9	39	48.94	12.94			
	1.0	32	52.06	9.04			
	1.1	33	52.97	8.65			
	1.3	5	42.13	9.51			
요인3 불안감	0.6(a)	51	51.56	10.46	2.477	0.024*	a,b,c,d,e <g
	0.7(b)	52	48.95	11.37			
	0.8(c)	43	49.18	10.20			
	0.9(d)	39	46.31	8.25			
	1.0(e)	32	50.49	9.27			
	1.1(f)	33	53.12	8.17			
	1.3(g)	5	58.82	11.54			

\*p<0.05, \*\*p<0.01, \*\*\*p<0.001



[그림 5-11] 거주동 주출입구의 통합도에 따른 적응 정도

통합도 0.9에 해당하는 거주동은 앞서 불안감이 낮은 것으로 밝혀진 아파트형이자 건물 내에 편의시설이 배치된 거주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동일한 거주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통합도가 0.8인 거주동이 더 높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다른 요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가로망 체계에 따른 건물의 단지 내 입지가 불안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출입구의 통합도가 너무 낮으면 단지 내에서 고립되고 반대로 통합도가 너무 높으면 해당 동의 거주자 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로 볼 때 단지 내 가로망 체계는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 중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 ③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 (A33)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는 캠퍼스로부터의 접근성을 뜻하며 공간구문론의 Point Depth를 통해 캠퍼스로부터 각 거주동까지의 깊이를 측정하였다. 거주자들의 전공은 제각각이나 학습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두 동일한 횡단보도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학습영역의 진입부인 횡단보도로부터의 깊이를 지표로 삼아 기숙사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가 갖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습영역의 진입부로부터의 깊이를 '1' 단위로 구분하여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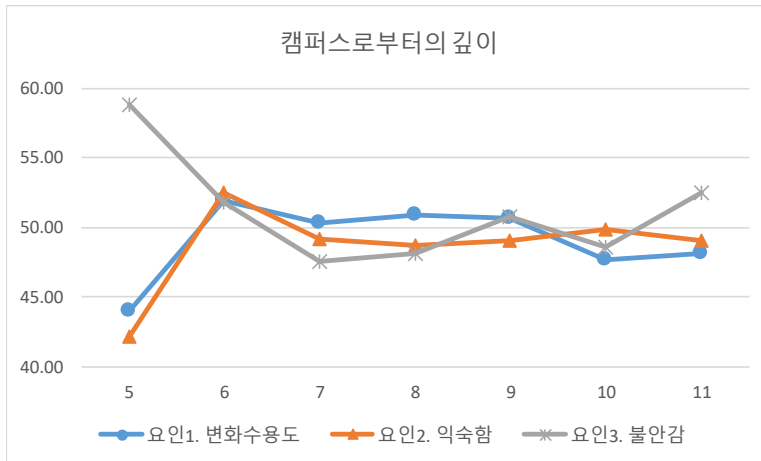
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요인3 불안함은 유의확률 0.04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실시 결과 가장 낮은 값인 5이상 6미만의 집단의 불안감이 나머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림 5-12와 같이 꺾은선그래프로 깊이에 따른 세 요인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깊이 5인 집단이 낮은 평균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3 불안감은 앞서 분석한 단지 내에서의 통합도와 마찬가지로 중앙값이 가장 낮은 불안감을 보이고 이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불안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표 5-29] 캠퍼스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깊이	N	M	SD	F	p	Post-Hoc (Duncan)
요인1 변화수용도	5	5	44.00	10.15	1.441	0.200	
	6	65	51.91	9.56			
	7	48	50.37	9.41			
	8	34	50.94	10.20			
	9	16	50.66	9.88			
	10	52	47.66	10.73			
	11	35	48.12	10.35			
요인2 익숙함	5	5	42.13	9.51	1.445	0.198	
	6	65	52.52	8.79			
	7	48	49.22	12.19			
	8	34	48.70	11.70			
	9	16	49.01	6.66			
	10	52	49.89	8.83			
	11	35	49.02	9.60			
요인3 불안감	5(a)	5	58.82	11.54	2.236	<b>0.040*</b>	b,c,d,e,f<a
	6(b)	65	51.82	8.76			
	7(c)	48	47.58	9.67			
	8(d)	34	48.15	9.09			
	9(e)	16	50.73	11.77			
	10(f)	52	48.60	11.04			
	11(g)	35	52.46	10.33			

\*p<0.05, \*\*p<0.01, \*\*\*p<0.001



[그림 5-12] 캠퍼스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적응 정도

이러한 점들은 모두 단지 내 통합도의 영향력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깊이 9인 집단은 전반적인 경향과 다르게 깊이 10보다 높은 불안감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집단들이 단지 내 통합도와 반비례한 반면 깊이 9인 집단은 단지 내 통합도 대비 낮은 깊이를 보인 집단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화수용도와 익숙함 역시 이러한 경향이 동일하므로 캠퍼스로부터의 깊이보다 단지 내 통합도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는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더라도 단지 내 통합도에 비해 그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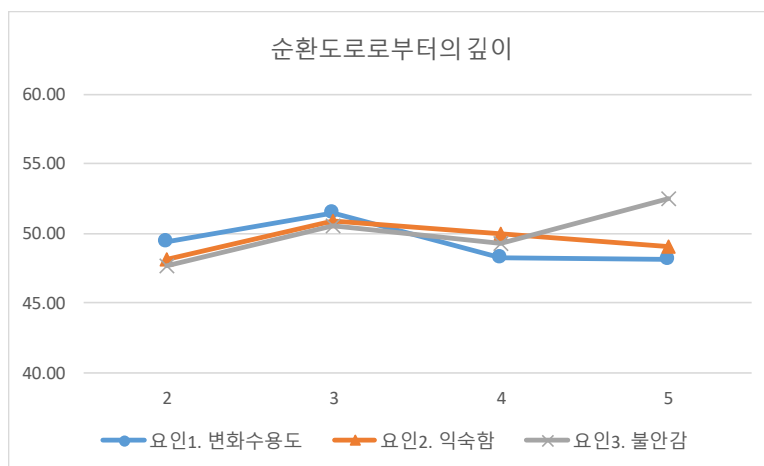
#### ④ 외부와의 관계1: 도보 (A34)

외부와의 관계 중 도보를 통한 관계는 순환도로 이후에는 모두 동일하므로 순환도로로부터의 깊이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는 순환도로로부터 각 거주동까지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위공간의 수를 의미한다. 순환도로로부터의 깊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세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

[표 5-30] 순환도로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깊이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2	44	49.35	10.11	1.874	0.134	
	3	115	51.45	9.72			
	4	61	48.27	10.26			
	5	35	48.12	10.35			
요인2 익숙함	2	44	49.35	10.11	0.917	0.433	
	3	115	51.45	9.72			
	4	61	48.27	10.26			
	5	35	48.12	10.35			
요인3 불안감	2	44	49.35	10.11	1.688	0.170	
	3	115	51.45	9.72			
	4	61	48.27	10.26			
	5	35	48.12	10.35			

\*p<0.05, \*\*p<0.01, \*\*\*p<0.001



[그림 5-13] 순환도로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적응 정도

그림 5-13과 같이 통계적 유의함과 무관하게 각 집단의 평균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순환도로로부터의 깊이와 세 요인 사이에 일관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으며 각 요인의 변화폭도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도 볼 때 순환도로로부터의 깊이는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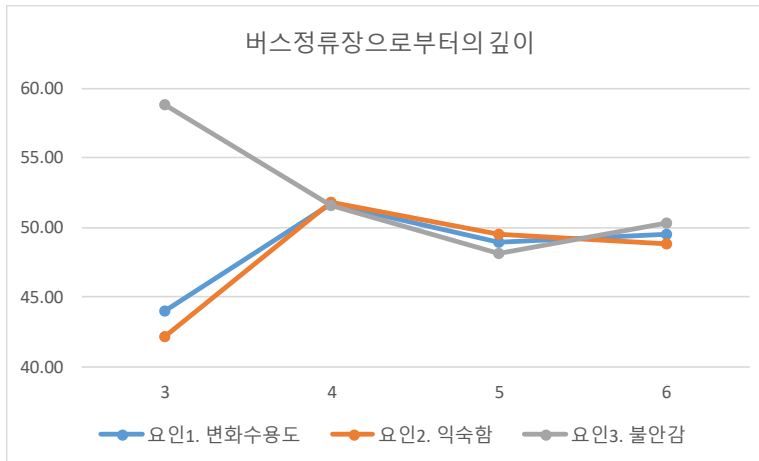
#### ⑤ 외부와의 관계: 대중교통 (A35)

외부와의 관계 중 대중교통을 통한 관계는 외부로 나가는 버스정류장으로부터의 깊이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요인3 불안감은 유의확률 0.02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깊이 3인 집단과 나머지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31] 버스정류장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깊이	N	M	SD	F	p	Post-Hoc (Duncan)
요인1 변화수용도	3	5	44.00	10.15	1.744	0.159	
	4	81	51.66	9.57			
	5	100	48.96	10.16			
	6	69	49.51	10.30			
요인2 익숙함	3	5	42.13	9.51	2.324	0.075	
	4	81	51.83	8.49			
	5	100	49.57	10.52			
	6	69	48.86	10.61			
요인3 불안감	3(a)	5	58.82	11.54	3.242	<b>0.023*</b>	b,c,d<a
	4(b)	81	51.61	9.36			
	5(c)	100	48.11	10.37			
	6(d)	69	50.34	9.91			

\*p<0.05, \*\*p<0.01, \*\*\*p<0.001



[그림 5-14] 버스정류장으로부터의 깊이

버스정류장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세 요인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앞서 분석한 단지 내 통합도와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나머지 집단과 확인한 차이를 보이는 깊이 3에 해당되는 집단은 가장 높은 단지 내 통합도와 가장 낮은 캠퍼스 진입부로부터의 깊이를 보였던 집단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머지 집단과 달리 높은 불안감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버스정류장으로부터의 깊이는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더라도 단지 내 통합도에 비해 그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 5.2.3.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에 따른 적응 정도의 차이

#### (1) 이전 거주지에서의 개인적 특성

##### ① 거주기간 (B01)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은 기숙사에서에서의 거주기간에 비해 다양한 분포를 보이므로 이를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는 유의확률 0.008, 요인2 익숙함은 유의확률 0.001, 요인3 불안감은 유의확률 0.031로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는 5년을 기점으로 1년 이내부터 5년까지의 집단과

5~10년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요인2 익숙함은 1년 이내부터 3년까지와 10년 이상이 5~10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요인3 불안감은 사후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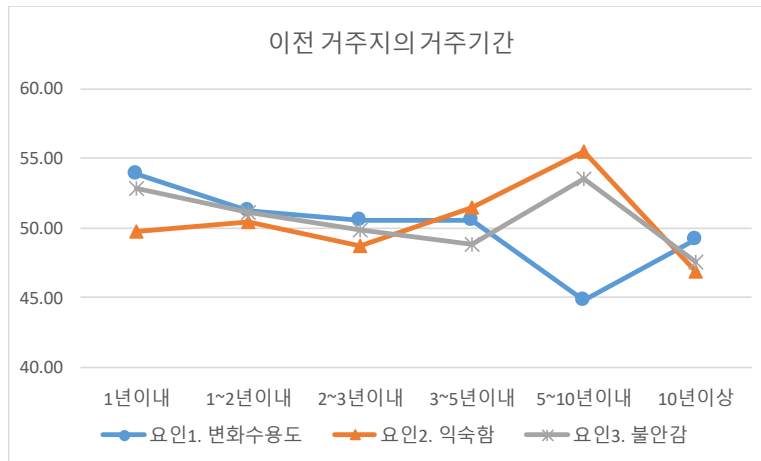
[표 5-32] 이전 거주지의 거주기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거주기간	N	M	SD	F	p	Post-Hoc (Duncan)
요인1 변화수용도	1년이내 (a)	32	53.91	8.71	3.179	<b>0.008**</b>	e<a,b,c,d
	1~2년 (b)	33	51.27	9.60			
	2~3년 (c)	29	50.56	10.77			
	3~5년 (d)	49	50.59	9.28			
	5~10년 (e)	35	44.87	11.39			
	10년이상 (f)	77	49.15	9.64			
요인2 익숙함	1년이내 (a)	32	49.79	11.59	4.239	<b>0.001***</b>	a,b,c,f<e
	1~2년 (b)	33	50.41	9.86			
	2~3년 (c)	29	48.66	9.87			
	3~5년 (d)	49	51.43	8.38			
	5~10년 (e)	35	55.51	10.37			
	10년이상 (f)	77	46.83	9.19			
요인3 불안감	1년이내 (a)	32	52.83	8.88	2.511	<b>0.031*</b>	
	1~2년 (b)	33	51.18	8.84			
	2~3년 (c)	29	49.84	10.36			
	3~5년 (d)	49	48.88	8.95			
	5~10년 (e)	35	53.52	12.91			
	10년이상 (f)	77	47.60	9.67			

\*p<0.05, \*\*p<0.01, \*\*\*p<0.001

그림 5-15와 같이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른 세 요인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세 요인 모두 5~10년 구간에서 그래프의 양상이 급격히 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세 요인이 모두 같은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볼 때 이는 5~10년 구간의 표본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거주기간보다 영향력이 강한 어떤 영향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다. 5~10년 집단의 평균값이 예외적인 수치를 보였다고 가정하고 분석 시 요인1 변화수용도는 이전 거주지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거주기간이 긴만큼 새로운 환경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2 익숙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과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요인3 불안감은 5~10년 집단의 평균값을 제외하면 이전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5-15] 이전 거주지의 거주기간에 따른 적응 정도

이를 종합하면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은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 중 변화수용도와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② 거주형태 (B02)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형태는 자택, 다른 기숙사, 자취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는 유의확률 0.03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요인2 익숙함과 요인3 불안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후검정 실시 결과 이전 거주지가 자택인 경우의 변화수용도가 자취인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택에서 거주하다가 기숙사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가 자취하다가 기숙사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보다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전 거주지에 비해 현재 기숙사를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33]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형태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거주형태	N	M	SD	F	p	Post-Hoc (Duncan)
요인1 변화수용도	자택 (a)	126	48.11	10.01	3.504	<b>0.032*</b>	a<c
	기숙사(b)	51	50.50	10.91			
	자취 (c)	73	51.86	9.04			
요인2 익숙함	자택	126	49.73	9.69	0.012	0.988	
	기숙사	51	49.96	9.69			
	자취	73	49.89	10.81			
요인3 불안감	자택	126	49.37	10.89	0.620	0.539	
	기숙사	51	49.56	10.18			
	자취	73	50.98	8.05			

\*p&lt;0.05, \*\*p&lt;0.01, \*\*\*p&lt;0.001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요인1 변화수용도는 자택의 평균이 가장 낮고 기숙사, 자취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기숙사와 동일한 거주형태인 기숙사보다 자취의 변화수용도가 높은 것은 자취에서의 거주기간이 자택이나 기숙사에서의 거주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거주기간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추측된다. 또한 이전 거주지가 자택이라는 것은 이전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서울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행정구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변화수용도는 이전 거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재 기숙사를 평가한 것이므로 현재 기숙사와 거주자의 구성부터 단위실 구성까지 가장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자택의 변화수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형태는 기숙사생활 적응 중 변화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 (2) 이전 거주지의 평면환경요소

### ① 개인공간 확보 정도 (B11)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는 이전 거주지에서 타인과 침실을 공유했는지 여부에 따



라 개인공간 유무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 이는 개인공간의 유무에 따라 변화수용도, 익숙함, 불안감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음을 뜻하며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가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34] 이전 거주지의 개인공간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개인공간	N	M	SD	t	p
요인1 변화수용도	없음	85	50.46	9.90	-0.657	0.512
	있음	170	49.58	10.16		
요인2 익숙함	없음	85	51.24	9.30	-1.465	0.144
	있음	170	49.30	10.31		
요인3 불안감	없음	85	49.33	9.26	0.789	0.431
	있음	170	50.39	10.48		

\* $p<0.05$ , \*\* $p<0.01$ , \*\*\* $p<0.001$

## ② 단위실 구성 (B12)

이전 거주지에서의 단위실 구성은 현재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개실형 원룸형 아파트형의 세 집단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요인 1 변화수용도 유의확률 0.03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요인2 익숙함과 요인3 불안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인1 변화수용도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형과 개실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형의 변화수용도가 개실형의 변화수용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가 이전 거주지와 현재 기숙사의 상대적 평가를 의미하는 요인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변화수용도가 높을수록 이전 거주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현재 어떤 단위실 구성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개실형의 거주지에서 기숙사로 이사한 경우, 이전 거주지와 현재 기숙사의 비교에서 현재 기숙사를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형에 비해 원룸형이나 개실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35] 이전 거주지의 단위실 구성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단위실 구성	N	M	SD	F	p	Post-Hoc (Duncan)
요인1 변화수용도	개실형(a)	31	53.06	10.70	3.428	<b>0.034*</b>	c<a
	원룸형(b)	70	51.21	10.25			
	아파트형(c)	154	48.62	9.68			
요인2 익숙함	개실형	31	52.03	8.66	1.210	0.300	
	원룸형	70	50.60	9.46			
	아파트형	154	49.23	10.47			
요인3 불안감	개실형	31	50.71	9.13	0.082	0.922	
	원룸형	70	50.00	9.42			
	아파트형	154	49.91	10.59			

\*p<0.05, \*\*p<0.01, \*\*\*p<0.001

통계적 유의함과 상관없이 요인별로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세 요인 모두 아파트형이 가장 낮고 원룸형, 개실형의 순서로 점점 평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요인1 변화수용도에서의 집단 간 평균차이에 비해 요인 3 불안감은 평균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일정하게 나타나 현재 기숙사의 단위실 구성이 불안감의 영향요인이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이전 거주지에서의 단위실 구성은 기숙사생활 적응 중 변화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익숙함과 불안감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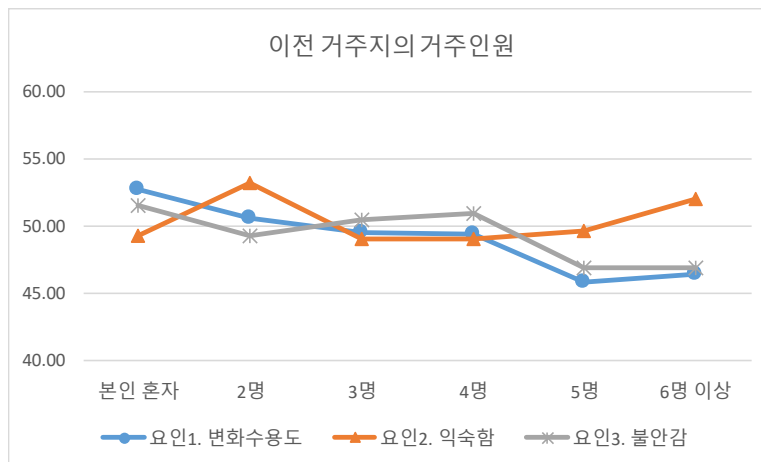
### ③ 거주인원 (B15)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인원은 현재 기숙사와 동일하게 하나의 현관을 공유하는 인원으로 기준을 삼았다. 이에 따라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

[표 5-36] 이전 거주지의 거주인원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거주인원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본인혼자	51	52.64	9.92	1.828	0.108	
	2명	45	50.56	9.77			
	3명	34	49.55	8.74			
	4명	92	49.41	9.44			
	5명	24	45.84	12.62			
	6명이상	7	46.35	14.72			
요인2 익숙함	본인혼자	51	52.64	9.92	1.306	0.262	
	2명	45	50.56	9.77			
	3명	34	49.55	8.74			
	4명	92	49.41	9.44			
	5명	24	45.84	12.62			
	6명이상	7	46.35	14.72			
요인3 불안감	본인혼자	51	52.64	9.92	1.021	0.406	
	2명	45	50.56	9.77			
	3명	34	49.55	8.74			
	4명	92	49.41	9.44			
	5명	24	45.84	12.62			
	6명이상	7	46.35	14.72			

\*p<0.05, \*\*p<0.01, \*\*\*p<0.001



[그림 5-16] 이전 거주지의 거주인원에 따른 적응 정도

통계적 유의함과 상관없이 거주인원에 따른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였으며 요인3 불안감은 나머지 두 요인과 반대되는 변화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세 요인에서 모두 거주인원과의 일관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인원은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④ 거주자의 구성 (B16)

이전 거주지의 거주자 구성은 현재 기숙사와 기준인 본인 혼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 가족을 추가하여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는 유의확률 0.03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요인2 익숙함과 요인3 불안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인1 변화수용도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인 및 가족과 살았던 경우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살았던 경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7] 이전 거주지의 거주자 구성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거주자 구성	N	M	SD	F	p	Post-Hoc (Duncan)
요인1 변화수용도	본인혼자(a)	52	52.50	9.87	2.907	<b>0.035*</b>	b,d<c
	지인(b)	42	48.87	10.13			
	모르는사람(c)	18	53.75	10.21			
	가족(d)	143	48.72	9.89			
요인2 익숙함	본인혼자	52	49.12	9.73	0.422	0.737	
	지인	42	49.61	12.12			
	모르는사람	18	52.13	7.94			
	가족	143	50.07	9.71			
요인3 불안감	본인혼자	52	51.10	8.99	0.950	0.417	
	지인	42	49.11	10.44			
	모르는사람	18	53.01	8.54			
	가족	143	49.54	10.51			

\*p<0.05, \*\*p<0.01, \*\*\*p<0.001

요인1 변화수용도는 지인 및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경우보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살았던 경우에 변화수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했었기 때문에 현재 기숙사에서 지인, 가족 구성이 어떻게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통계적 유의함과 상관없이 평균을 비교해보았을 때 요인2 익숙함은 본인 혼자, 지인, 가족 그룹은 유사한 평균을 보여 모르는 사람과 살았던 거주자들의 익숙함이 다른 그룹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현재 기숙사에서 모르는 사람과 단위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환경이 유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 3 불안감은 요인1 변화수용도와 마찬가지로 지인 및 가족 그룹의 평균이 가장 낮고 본인 혼자, 모르는 사람의 순서로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변화수용도와 비교하면 평균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다른 영향요인에 의한 차이로 추측된다.

이를 통해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자 구성은 거주인원과 함께 기숙사생활 적응 중 변화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현재 기숙사의 거주자 구성과는 달리 익숙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⑤ 단위실 내 시설 (B17)

단위실 내 시설은 현재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단위실에서 가능한 행태를 기준으로 삼았다. 단위실에서 수면만 가능한 경우와 수면 및 세면이 가능한 경우 수면, 세면, 세탁이 가능한 경우, 수면, 세면, 세탁, 취사의 모든 기본적인 주거 행태가 가능한지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 또한 단위실 내 시설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과 세 요인 사이에서도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단위실에서 가능한 행태의 범위가 다르다고 해서 변화수용도, 익숙함, 불안감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음을 뜻하며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가 단위실 내 시설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5-38] 이전 거주지의 단위실 내 시설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단위실 내 시설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수면	31	53.06	10.70	1.885	0.133	
	수면세면	24	48.93	11.40			
	수면세면세탁	22	52.34	9.33			
	수면세면세탁취사	178	49.14	9.76			
요인2 익숙함	수면	31	52.03	8.66	0.713	0.545	
	수면세면	24	48.49	9.09			
	수면세면세탁	22	48.78	9.89			
	수면세면세탁취사	178	49.93	10.36			
요인3 불안감	수면	31	50.71	9.13	0.340	0.796	
	수면세면	24	48.14	10.36			
	수면세면세탁	22	50.33	8.67			
	수면세면세탁취사	178	50.13	10.40			

\*p&lt;0.05, \*\*p&lt;0.01, \*\*\*p&lt;0.001

### (3) 이전 거주지의 배치환경요소

#### ① 주거부분 형식 (B21)

주거부분 형식은 현재 기숙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위실의 배치방식에 따라 복도형, 계단실형, 타워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 이는 이전 거주지의 주거부분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현재 기숙사에서 느끼는 변화수용도, 익숙함, 불안감이 달라지지 않음을 뜻하며, 이전 거주지가 기숙사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표 5-39] 이전 거주지의 주거부분 형식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주거부분형식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복도형	113	50.91	10.25	2.424	0.091	
	계단실형	101	47.94	10.14			
	타워형	20	50.62	8.67			
요인2 익숙함	복도형	113	50.43	8.98	0.566	0.569	
	계단실형	101	49.02	10.98			
	타워형	20	49.13	10.62			
요인3 불안감	복도형	113	49.42	9.40	1.207	0.301	
	계단실형	101	50.27	11.15			
	타워형	20	53.27	10.59			

\*p<0.05, \*\*p<0.01, \*\*\*p<0.001

## ② 건물 내 시설 (B24)

건물 내 시설은 현재 기숙사에서 기준과 동일하게 커뮤니티의 유무, 운동시설의 유무, 상가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응답자의 응답을 토대로 정리한 결과 총 일곱 가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요인3 불안감은 유의확률 0.047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커뮤니티만 있는 경우와 커뮤니티와 상가가 같이 있는 경우 사이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뮤니티만 있는 경우보다 상가가 같이 있는 경우가 더 불안감이 높았다.

[표 5-40] 건물 내 시설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건물내시설	N	M	SD	F	p	Post-Hoc (Duncan)
요인1 변화수용도	없음	146	50.75	10.15	0.963	0.451	
	커뮤니티	3	49.95	9.64			
	상가	20	51.80	8.55			
	커뮤니티운동	38	48.37	9.48			
	운동상가	7	46.16	10.39			
	커뮤니티상가	16	49.06	12.94			
	커뮤니티운동상가	25	47.01	9.38			
요인2 익숙함	없음	146	49.94	10.21	0.381	0.891	
	커뮤니티	3	54.83	2.39			
	상가	20	49.59	14.33			
	커뮤니티운동	38	49.61	8.12			
	운동상가	7	52.53	8.60			
	커뮤니티상가	16	47.69	11.06			
	커뮤니티운동상가	25	50.96	7.76			
요인3 불안감	없음(a)	146	49.73	9.68	2.166	<b>0.047*</b>	b<f
	커뮤니티(b)	3	44.92	4.47			
	상가(c)	20	47.13	10.55			
	커뮤니티운동(d)	38	47.91	9.19			
	운동상가(e)	7	55.82	8.52			
	커뮤니티상가(f)	16	53.24	10.83			
	커뮤니티운동상가(g)	25	54.30	12.02			

\*p&lt;0.05, \*\*p&lt;0.01, \*\*\*p&lt;0.001

[표 5-41] 이전 거주지의 건물 내 커뮤니티시설의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커뮤니티	N	M	SD	t	p
요인1 변화수용도	없음	182	50.72	10.22	2.141	<b>0.033*</b>
	있음	73	47.76	9.38		
요인2 익숙함	없음	182	49.70	10.75	-0.711	0.478
	있음	73	50.57	7.87		
요인3 불안감	없음	182	49.75	9.91	-0.700	0.496
	있음	73	50.73	10.52		



[표 5-42] 이전 거주지의 건물 내 운동시설의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운동	N	M	SD	t	p
요인1	없음	176	50.67	9.95	1.917	0.056
변화수용도	있음	79	48.08	10.13		
요인2	없음	176	50.08	10.58	0.346	0.730
익숙함	있음	79	49.65	8.64		
요인3	없음	176	49.59	9.75	-1.037	0.301
불안감	있음	79	51.01	10.78		

[표 5-43] 이전 거주지의 건물 내 상가의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상가	N	M	SD	t	p
요인1	없음	187	50.25	10.01	1.010	0.313
변화수용도	있음	68	48.81	10.20		
요인2	없음	187	49.95	9.74	-0.002	0.998
익숙함	있음	68	49.95	10.78		
요인3	없음	187	49.28	9.53	-1.836	0.069
불안감	있음	68	52.10	11.27		

나머지 집단의 불안감을 살펴보면 커뮤니티만 있는 경우의 불안감이 가장 낮았고 상가만 있는 경우와 커뮤니티와 운동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 아무 시설도 없는 경우, 커뮤니티와 상가가 같이 있는 경우, 커뮤니티와 운동시설 및 상가가 모두 같이 있는 경우, 운동과 상가만 같이 있는 경우의 순서로 불안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편의시설의 종류가 많고 적음은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고 밝혀진 두 집단은 표본의 수가 너무 작아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커뮤니티의 유무와 상가의 유무, 운동시설의 유무에 따라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커뮤니티의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변화수용도는 건물 내 시설 전체 조합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요인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이전 거주지의 건물 내 시설의 영향이 아니라 현재 기숙사의 모든 건물에 커뮤니티시설이 있는 것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그 외의 모든 경

우에서는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설의 조합으로 분류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불안감 역시 시설의 유무를 따로 분류했을 때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이전 거주지의 건물 내 시설은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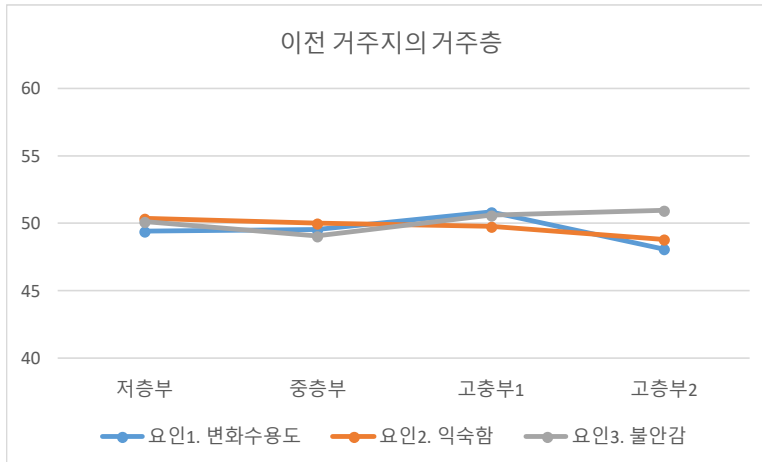
### ③ 단위실의 건물 내 수직적 입지 (B25)

단위실의 건물 내 수직적 입지는 현재 기숙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위실이 몇 층에 위치하는가를 지표로 삼았다. 이전 거주지의 층수 분포는 기숙사보다 다양하므로 현재 기숙사에서와 동일하게 1,2층을 저층부, 3~5층을 중층부, 6~9층을 고층부로 정의하고 10층 이상을 추가하여 이에 따른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또한 통계적 유의함과 상관 없이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모든 집단의 평균이 유사하게 나타나 건물 내 수직적 입지는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44] 이전 거주지 단위실의 수직적 입지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수직적입지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저층부	65	49.49	10.26	0.488	0.691	
	중층부	88	49.57	10.52			
	고층부1	37	50.87	9.01			
	고층부2	44	48.16	9.70			
요인2 익숙함	저층부	65	50.38	9.97	0.234	0.872	
	중층부	88	50.05	9.98			
	고층부1	37	49.81	8.40			
	고층부2	44	48.79	11.75			
요인3 불안감	저층부	65	50.09	9.50	0.447	0.719	
	중층부	88	49.03	10.38			
	고층부1	37	50.62	9.18			
	고층부2	44	51.01	11.94			

\* $p<0.05$ , \*\* $p<0.01$ , \*\*\* $p<0.001$



[그림 5-17] 이전 거주지의 거주층에 따른 적응 정도

#### (4) 이전 거주지의 입지환경요소

##### ① 편의시설과의 관계 (B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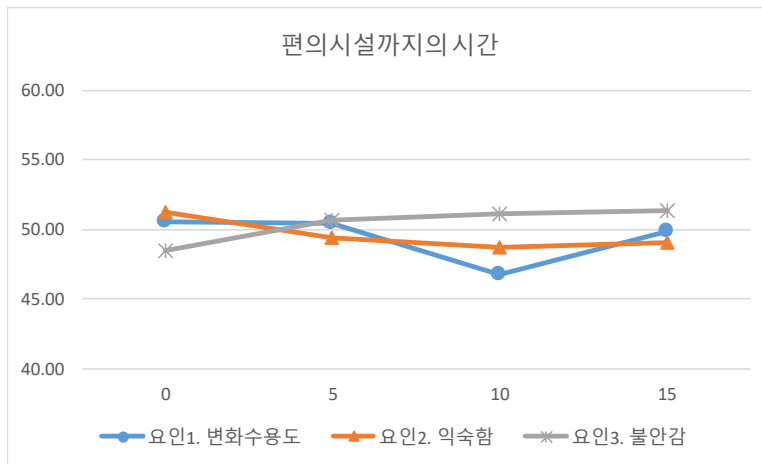
이전 거주지에서 편의시설과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상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지표로 삼았다. 이는 거리보다 시간으로 떠올리는 편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고, 물리적 거리보다 거주자가 체감한 거리가 더 중요한 지표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응답은 1분부터 30분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이를 5분 간격으로 집단을 나누어 차이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0.05$ )

편의시설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른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의 변화양상을 보기 위하여 그림 5-18과 같이 꺾은선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요인2 익숙함은 편의시설까지의 시간이 길수록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엔 그 변화의 폭이 너무 작다. 요인3 불안감도 편의시설까지의 시간이 길수록 조금 증가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였으나 이 역시 그 변화의 폭이 너무 작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표 5-45] 편의시설까지의 시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시간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5분 이내	85	50.56	9.90	1.691	0.170	
	5~10분 이내	99	50.41	9.98			
	10~15분 이내	45	46.72	9.62			
	15분 이상	22	49.86	11.59			
요인2 익숙함	5분 이내	85	51.28	9.69	0.861	0.462	
	5~10분 이내	99	49.45	10.94			
	10~15분 이내	45	48.73	8.66			
	15분 이상	22	49.06	9.43			
요인3 불안감	5분 이내	85	48.54	10.14	1.039	0.376	
	5~10분 이내	99	50.61	9.94			
	10~15분 이내	45	51.17	10.84			
	15분 이상	22	51.34	8.93			

\*p&lt;0.05, \*\*p&lt;0.01, \*\*\*p&lt;0.001



[그림 5-18] 편의시설까지의 시간에 따른 적응 정도

이를 종합하면 편의시설까지의 시간은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영향력이 몹시 작은 것으로 판단되어 영향요인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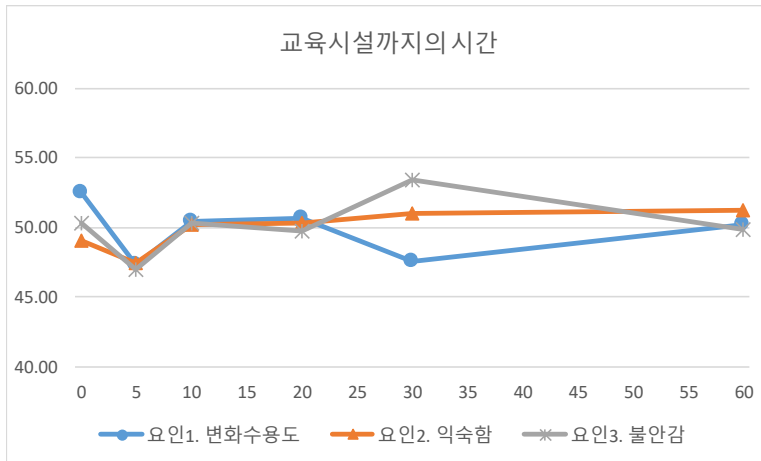
② 교육시설과의 관계 (B33)

이전 거주지와 교육시설과의 관계 역시 편의시설과 마찬가지로 교육시설까지의 통학시간을 지표로 삼았다. 교육시설에서 바로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과 같이 매일 정기적으로 가는 곳을 기준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그 결과 1분부터 60분 이상까지 다양한 응답을 얻었다. 이를 5분 혹은 10분 단위로 구분하여 6개 집단으로 나누어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표 5-46] 교육시설까지의 시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시간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5분 이내	28	52.51	8.42	1.260	0.282	
	5~10분 이내	35	47.28	12.42			
	10~20분 이내	77	50.40	10.21			
	20~30분 이내	39	50.63	8.97			
	30~60분 이내	31	47.61	8.64			
	60분 이상	44	50.17	10.42			
요인2 익숙함	5분 이내	28	49.11	9.65	0.698	0.625	
	5~10분 이내	35	47.48	9.87			
	10~20분 이내	77	50.24	9.83			
	20~30분 이내	39	50.36	10.33			
	30~60분 이내	31	51.02	8.63			
	60분 이상	44	51.20	11.15			
요인3 불안감	5분 이내	28	50.26	9.80	1.373	0.235	
	5~10분 이내	35	46.94	10.13			
	10~20분 이내	77	50.27	8.76			
	20~30분 이내	39	49.73	10.29			
	30~60분 이내	31	53.39	11.34			
	60분 이상	44	49.87	11.12			

\* $p<0.05$ , \*\* $p<0.01$ , \*\*\* $p<0.001$



[그림 5-19] 교육시설까지의 시간에 따른 적응 정도

이를 그림 5-19와 같이 꺾은선그래프로 표현하여 그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세 요인 모두 교육시설까지의 시간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0분에서 높은 값을 보인 것은 이전 거주지의 형태가 기숙사인 경우가 대다수인 영향으로 보이며 30분 이상인 경우는 이전 거주지의 형태가 자택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두 지점에서 세 요인의 그래프 형태가 변화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편의시설까지의 시간에 의해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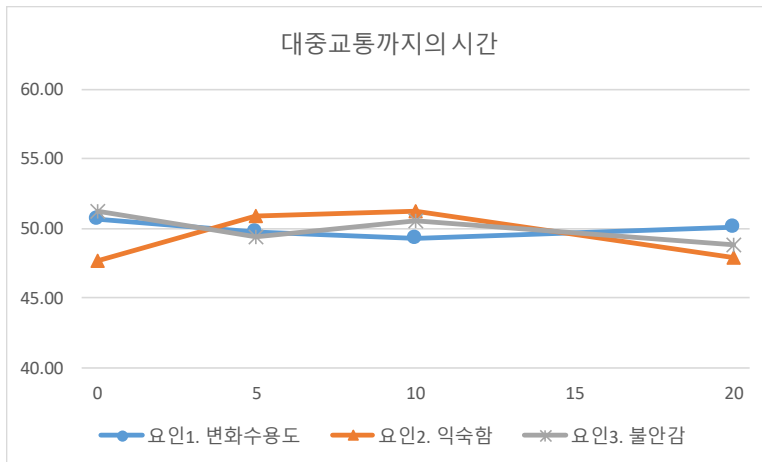
### ③ 외부와의 관계2 : 대중교통 (B35)

이전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을 통한 외부와의 관계는 앞서 분석한 두 요소와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시설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지표로 삼았다. 이에 대한 응답은 1분에서 60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5분 혹은 10분 간격으로 나누어 4개 집단의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

[표 5-47] 대중교통까지의 시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시간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5분이내	61	50.68	9.67	0.230	0.875	
	5~10분이내	100	49.75	10.26			
	10~20분이내	72	49.23	8.56			
	20분이상	15	50.06	16.40			
요인2 익숙함	5분이내	61	47.64	11.03	1.986	0.117	
	5~10분이내	100	50.85	8.77			
	10~20분이내	72	51.25	10.67			
	20분이상	15	47.90	9.37			
요인3 불안감	5분이내	61	51.19	9.94	0.520	0.669	
	5~10분이내	100	49.40	10.21			
	10~20분이내	72	50.59	10.01			
	20분이상	15	48.85	2.95			

\*p<0.05, \*\*p<0.01, \*\*\*p<0.001



[그림 5-20] 대중교통까지의 시간에 따른 적응 정도

이를 그림 5-20과 같이 꺾은선그래프로 표현하여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세 요인 모두 5~10분에서 수치의 변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그 변화의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통한 외부와의 관계는 기숙사생활 적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 ④ 단지 외부환경1 : 지역지구 (B36)

지역지구에 의한 단지 외부환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세 가지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 통계적 유의함과 무관하게 각각의 평균을 살펴보면 요인1 변화수용도의 경우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가장 낮고 상업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요인2 익숙함은 상업지역이 가장 낮고 공업지역이 가장 높았다. 요인3 불안감의 경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가장 낮고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세 요인 사이에서도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전 거주지의 지역지구가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48] 이전 거주지의 지역지구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지역지구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주거지역	211	49.75	9.81	1.831	0.142	
	상업지역	23	53.79	9.74			
	공업지역	5	47.27	14.29			
	녹지지역	16	46.70	11.58			
요인2 익숙함	주거지역	211	49.95	10.21	1.583	0.194	
	상업지역	23	47.51	7.88			
	공업지역	5	57.96	8.25			
	녹지지역	16	50.89	9.76			
요인3 불안감	주거지역	211	50.06	9.75	0.052	0.984	
	상업지역	23	49.62	11.71			
	공업지역	5	48.98	7.70			
	녹지지역	16	50.66	13.11			

\* $p<0.05$ , \*\* $p<0.01$ , \*\*\* $p<0.001$



### ⑤ 단지 외부환경2 : 행정구역 (B37)

행정구역에 따른 단지의 외부환경은 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전 거주지가 어느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의 8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는 유의확률 0.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요인2 익숙함과 요인3 불안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이가 나타난 요인1 변화수용도의 사후분석 결과 강원도와 나머지 지역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강원도는 표본이 너무 작아 이 결과가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각 집단의 평균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보았을 때 전라도와 경기도 사이에서 다른 지역보다 큰 평균차이가 발생하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집단을 다시 설정하여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이전 거주지가 수도권이었던 거주자가 비수도권이던 거주자에 비해 변화수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요인2 익숙함과 요인3 불안감은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전 거주지에 오갈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이전 거주지와 상대적 비교를 의미하는 변화수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현재 기숙사에 대한 익숙함이나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5-49] 이전 거주지의 행정구역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지역지구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서울(a)	69	52.65	9.43	2.900	<b>0.006**</b>	c<a,b,c,d,e ,g,h
	경기(b)	66	51.43	9.71			
	강원(c)	3	39.04	20.87			
	충청(d)	17	48.61	7.39			
	전라(e)	27	48.62	10.53			
	경상(f)	55	46.18	9.97			
	제주(g)	5	53.20	8.34			
	해외(h)	13	48.24	10.40			
요인2 익숙함	서울	69	51.13	10.36	0.830	0.563	
	경기	66	49.23	9.51			
	강원	3	60.30	7.59			
	충청	17	47.74	8.23			
	전라	27	50.19	10.98			
	경상	55	49.71	10.16			
	제주	5	47.09	7.81			
	해외	13	49.42	11.30			
요인3 불안감	서울	69	51.12	8.05	0.783	0.602	
	경기	66	48.79	10.24			
	강원	3	45.52	17.25			
	충청	17	49.35	9.22			
	전라	27	51.09	9.96			
	경상	55	49.96	11.97			
	제주	5	44.11	10.91			
	해외	13	52.85	10.35			

\*p&lt;0.05, \*\*p&lt;0.01, \*\*\*p&lt;0.001

[표 5-50] 이전 거주지의 행정구역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개인공간	N	M	SD	t	p
요인1 변화수용도	수도권	69	52.65	9.43	2.722	<b>0.007**</b>
	비수도권	186	48.84	10.11		
요인2 익숙함	수도권	69	51.13	10.36	1.150	0.251
	비수도권	186	49.51	9.86		
요인3 불안감	수도권	69	51.12	8.05	1.050	0.295
	비수도권	186	49.63	10.73		

\*p&lt;0.05, \*\*p&lt;0.01, \*\*\*p&lt;0.001

이를 통해 이전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 중 변화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행정구역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후에 분석할 ‘행정구역의 변화격차 (C37)’ 역시 변화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것으로 추측된다.

#### 5.2.4. 거주환경요소 변화격차에 따른 적응 정도의 차이

##### (1) 개인적 특성의 변화격차

###### ① 거주기간 (C01)

거주기간의 변화격차는 현재 기숙사에서 거주기간과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을 비교하는 것을 지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더 긴 경우, 둘의 거주기간이 같은 경우, 현재 기숙사에서 거주기간이 더 긴 경우 총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차이검정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중인 방에서의 거주기간은 요인2 익숙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은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3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기간 사이의 격차는 세 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하게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요소이나 그 시점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 또한 거주기간의 차이와 상관없이 현재 거주중인 방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 그 환경에 익숙해지고 기숙사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전 거주지의 거주기간이 길면 환경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5-51] 거주기간의 차이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거주기간차이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이전>기숙사	216	49.45	10.15	0.876	0.418	
	이전=기숙사	19	50.84	7.58			
	이전<기숙사	16	52.66	11.40			
요인2 익숙함	이전>기숙사	216	49.52	9.73	0.865	0.422	
	이전=기숙사	19	51.23	13.80			
	이전<기숙사	16	52.52	8.30			
요인3 불안감	이전>기숙사	216	49.83	10.33	0.752	0.473	
	이전=기숙사	19	51.08	8.56			
	이전<기숙사	16	52.84	8.82			

\*p&lt;0.05, \*\*p&lt;0.01, \*\*\*p&lt;0.001

## ② 거주형태 (C02)

거주형태의 차이는 현재의 거주형태가 기숙사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전 거주지가 기숙사인지 자택, 자취와 같이 다른 형태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 이는 이전 거주지의 거주형태의 분석에서 요인1 변화수용도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서 해석해볼 수 있는데 이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의 거주형태가 달라졌는가의 여부보다 이전 거주지가 자택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52] 거주형태 차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거주형태차이	N	M	SD	t	p
요인1 변화수용도	같다	51	50.50	10.91	0.499	0.619
	다르다	204	49.71	9.86		
요인2 익숙함	같다	51	49.96	9.69	0.007	0.994
	다르다	204	49.95	10.11		
요인3 불안감	같다	51	49.56	10.18	-0.375	0.708
	다르다	204	50.15	10.08		

\*p&lt;0.05, \*\*p&lt;0.01, \*\*\*p&lt;0.001

## (2) 평면환경요소의 변화격차

### ①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C11)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차이는 침실을 혼자 사용한 경우, 공유하되 칸막이가 있는 경우, 칸막이 없이 공유하는 경우의 순서로 개인공간이 감소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이전 거주지에서 현재 기숙사로 거주환경이 변하면서 개인공간이 증가하였는지, 동일한지, 감소하였는지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p>0.05$ ),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차이는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님을 뜻한다. 이는 이전 거주지에서의 개인공간 확보 정도와는 동일한 결과이나 현재 기숙사에서의 개인공간 확보 정도가 불안감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표 5-53] 개인공간 확보 정도 변화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개인공간변화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감소	20	52.68	8.59	0.866	0.422	
	동일	78	49.82	9.89			
	증가	157	49.54	10.31			
요인2 익숙함	감소	20	54.71	8.93	2.494	0.085	
	동일	78	49.42	9.44			
	증가	157	49.60	10.30			
요인3 불안감	감소	20	52.57	9.24	1.059	0.348	
	동일	78	49.02	9.46			
	증가	157	50.22	10.46			

\* $p<0.05$ , \*\* $p<0.01$ , \*\*\* $p<0.001$

### ② 단위공간 구성 (C12)

단위실의 구성 차이는 앞서 분석에 사용한 개실형, 원룸형, 아파트형의 세 유형을 기준으로 이전 거주지와 현재 기숙사의 유형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누어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단위공간의 구성 차이가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님을 의미한다.

앞서 실시한 분석 결과 현재 기숙사에서 단위실 구성은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립감이 그 원인으로 추측되었으며 이전 거주지에서의 단위실 구성은 변화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전 거주지가 온전한 집의 구성을 갖추었을 때 기숙사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둘의 변화격차가 불안감과 변화수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감은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과 무관하게 현재의 거주환경에 영향을 받는 반면 변화수용도는 현재의 거주환경과 무관하게 이전의 거주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분석의 결과에서는 단위실 구성의 영향력이 다른 요소에 비해 큰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이전 거주지와 유사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54] 단위실 구성 차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단위실구성차이	N	M	SD	t	p
요인1 변화수용도	같다	68	50.53	10.29	0.628	0.531
	다르다	187	49.63	9.99		
요인2 익숙함	같다	68	50.13	8.74	0.171	0.864
	다르다	187	49.88	10.45		
요인3 불안감	같다	68	50.91	9.95	0.839	0.402
	다르다	187	49.71	10.14		

\*p<0.05, \*\*p<0.01, \*\*\*p<0.001

### ③ 거주인원 (C15)

거주인원의 변화 격차는 단위실을 공유하는 인원의 차이를 기준으로 현재 기숙사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거주인원이 감소한 경우와 동일한 경우, 증가한 경우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3 불안감은 각각 0.039와 0.025의 유의확률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요인2 익숙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나타난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3. 불안감은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요인1. 변화수용도는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 0.819로 등분산이므로 Duncan으로, 요인3. 불안감은 유의확률 0.014로 등분산이 아니므로 Tamhane의 T2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요인3 불안감은 거주인원이 감소한 경우와 증가한 경우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증가한 경우의 불안감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5-55] 거주인원 변화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거주인원변화	N	M	SD	F	p	Post-Hoc (Tamhane)
요인1 변화수용도	감소	110	51.29	10.03	3.279	<b>0.039*</b>	
	동일	35	51.11	9.38			
	증가	108	48.00	10.15			
요인2 익숙함	감소	110	48.99	11.42	1.035	0.357	
	동일	35	51.54	9.89			
	증가	108	50.36	8.37			
요인3 불안감	감소	110	48.21	8.71	3.757	<b>0.025*</b>	a<c
	동일	35	51.85	9.71			
	증가	108	51.59	77.05			

\*p<0.05, \*\*p<0.01, \*\*\*p<0.001

요인1 변화수용도의 경우 현재 기숙사의 거주인원과 이전 기숙사의 거주인원에서는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주인원의 변화격차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여보면 거주인원이 증가한 경우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경우보다 변화수용도가 낮아 현재 기숙사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요인3 불안감의 경향과 일치한다.

#### ④ 거주자의 구성 (C16)

거주자의 구성은 앞서 본인 혼자, 지인, 모르는 사람의 세 집단으로 구분되며 이전 거주지 단위실에서의 거주자 구성과 현재 기숙사 단위실에서의 거주자 구성이 동일한가의 여부에 따라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거주자의 구성이 달라진다고 해서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가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기숙사의 거주자 구성과 이전 거주지의 거주자 구성이 변화수용도와 익숙함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나 거주자의 구성이 동일할 때 변화수용도와 익숙함의 평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볼 때 현재 기숙사나 이전 거주지 개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클 뿐 거주자 구성 차이가 변화수용도와 익숙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거주자의 구성 차이는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영향력이 몹시 작은 것으로 판단되어 영향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 5-56] 거주자구성 차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거주자구성차이	N	M	SD	t	p
요인1	같다	26	51.91	10.01	1.089	0.277
변화수용도	다르다	229	49.64	10.06		
요인2	같다	26	50.44	9.90	0.265	0.791
익숙함	다르다	229	49.89	10.04		
요인3	같다	26	53.19	9.43	1.693	0.092
불안감	다르다	229	49.67	10.11		

\*p<0.05, \*\*p<0.01, \*\*\*p<0.001

#### ⑤ 단위실 내 시설 (C17)

단위실 내 시설은 현재 기숙사와 이전 거주지에서의 기준과 같이 수면, 수면세면, 수면세면세탁, 수면세면세탁취사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현재 기숙사와 이전 거주지의 유형이 일치하는가의 여부로 나누어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1 변화수용도는 유의확률 0.0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유형이 동일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변화수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요인2 익숙함과 요인3 불안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단위실 내 시



설 차이가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 중 변화수용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뜻하며 현재 기숙사의 단위실 내 시설은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전 거주지의 단위실 내 시설은 세 요인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표 5-57] 단위실 내 시설 차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단위실시설차이	N	M	SD	t	p
요인1	같다	21	54.91	8.78	2.421	<b>0.016*</b>
변화수용도	다르다	234	49.42	10.06		
요인2	같다	21	52.48	7.52	1.212	0.226
익숙함	다르다	234	49.72	10.18		
요인3	같다	21	50.88	6.49	0.590	0.560
불안감	다르다	234	49.96	10.35		

\*p<0.05, \*\*p<0.01, \*\*\*p<0.001

### (3) 배치환경요소의 변화격차

#### ① 주거부분 형식 (C21)

주거부분의 형식은 복도형, 계단실형, 타워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주거부분 형식의 차이는 현재 기숙사와 이전 거주지의 주거부분 형식이 동일한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 세 요인 모두 통계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집단 간 평균도 거의 같게 나타나 주거부분 형식의 변화는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8] 주거부분 차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주거부분차이	N	M	SD	t	p
요인1	같다	89	50.76	10.05	1.037	0.301
변화수용도	다르다	166	49.39	10.06		
요인2	같다	89	49.73	10.59	-0.251	0.802
익숙함	다르다	166	50.06	9.71		
요인3	같다	89	49.12	9.37	-1.057	0.291
불안감	다르다	166	50.52	10.44		

\*p&lt;0.05, \*\*p&lt;0.01, \*\*\*p&lt;0.001

## ② 건물 내 시설 (C24)

건물 내 시설은 커뮤니티의 유무, 운동시설의 유무, 상가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건물 내 시설의 변화격차는 현재 기숙사와 이전 거주지의 거주건물에 배치된 시설의 종류가 동일한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

통계적 유의함과 상관없이 각 집단의 평균을 살펴보면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3 불안감은 건물 내 시설이 동일한 경우 더 낮게 나타났으나 요인2 익숙함은 건물 내 시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두 집단의 표본 수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로 보기 어렵다.

[표 5-59] 건물 내 시설 차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건물내시설차이	N	M	SD	t	p
요인1	같다	8	48.26	6.96	-0.459	0.646
변화수용도	다르다	247	49.92	10.15		
요인2	같다	8	51.33	7.29	0.395	0.693
익숙함	다르다	247	49.90	10.09		
요인3	같다	8	45.59	5.75	-1.267	0.206
불안감	다르다	247	50.18	10.16		

\*p&lt;0.05, \*\*p&lt;0.01, \*\*\*p&lt;0.001

### ③ 단위실의 건물 내 수직적 입지 (C25)

건물 내 수직적 입지는 단위실이 위치한 층수를 지표로 삼으며 수직적 입지의 차이는 이전 거주지에서의 층수와 비교하였을 때 현재 기숙사의 층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세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p>0.05$ ), 각 집단의 평균 역시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나 건물 내 수직적 입지의 변화는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60] 거주층 변화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거주층변화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낮아짐	123	49.03	10.26	0.399	0.671	
	동일	35	49.32	11.08			
	높아짐	81	50.30	9.06			
요인2 익숙함	낮아짐	239	49.51	9.97	0.572	0.565	
	동일	123	49.11	9.71			
	높아짐	35	49.92	9.22			
요인3 불안감	낮아짐	81	50.64	10.79	0.314	0.731	
	동일	239	49.75	10.00			
	높아짐	123	50.14	10.25			

\* $p<0.05$ , \*\* $p<0.01$ , \*\*\* $p<0.001$

## (4) 입지환경요소의 변화격차

### ① 단지 외부 환경1: 지역지구 (C36)

지역지구의 차이는 현재 기숙사의 지역지구가 녹지지역으로 모두 동일하므로 이전 거주지의 지역지구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이를 현재 기숙사의 지역지구와 동일한가의 여부를 기준삼아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세 가지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전 거주지의 지역지구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와 동일한 결과로 지역지구는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표 5-61] 지역지구 변화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건물내시설차이	N	M	SD	t	p
요인1	같다	16	46.70	11.58	-1.303	0.194
변화수용도	다르다	239	50.08	9.94		
요인2	같다	16	50.89	9.76	0.389	0.698
익숙함	다르다	239	49.88	10.04		
요인3	같다	16	50.66	13.11	0.199	0.844
불안감	다르다	239	49.99	9.88		

\*p<0.05, \*\*p<0.01, \*\*\*p<0.001

## ② 단지 외부 환경2: 행정구역 (C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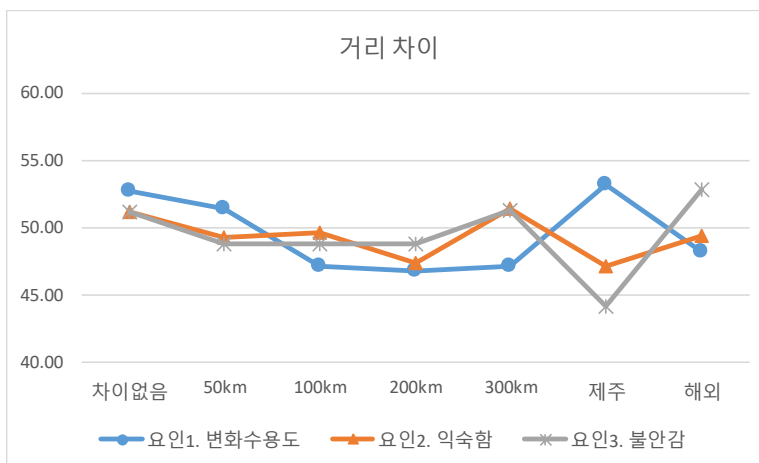
행정구역의 변화격차는 분석 대상지가 서울에 위치하므로 서울로부터의 반경에 따라 집단을 나누었다. 이에 따라 이전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는 차이 없음, 경기도는 50km, 강원, 충북, 충남은 100km, 전북, 경북은 200km, 전남, 경남은 300km, 제주 450km로 구분하고 해외는 따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집단 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요인2 익숙함과 요인3 불안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요인1 변화수용도는 유의확률 0.01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후분석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그림 5-21과 같이 거리차이 순서대로 꺾은선그래프를 그려 세 요인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본 수가 너무 작은 제주를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거리차이가 클수록 변화수용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익숙함과 불안감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50km와 100km 사이에서 변화수용도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이전 거주지의 행정구역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변화수용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이를 종합하여볼 때 비록 국내 내륙으로 한정되었을 때의 결과이긴 하나 행정구역의 변화격차는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 중 변화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표 5-62] 행정구역 거리차이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거리차이	N	M	SD	F	p	Post-Hoc
요인1 변화수용도	차이 없음	69	52.65	9.43	2.768	<b>0.013*</b>	
	50km	66	51.43	9.71			
	100km	20	47.17	10.21			
	200km	31	46.76	9.59			
	300km	51	47.12	10.58			
	450km	5	53.20	8.34			
	해외	13	48.24	10.40			
요인2 익숙함	차이 없음	69	51.13	10.36	0.832	0.546	
	50km	66	49.23	9.51			
	100km	20	49.62	9.18			
	200km	31	47.32	11.64			
	300km	51	51.42	9.29			
	450km	5	47.09	7.81			
	해외	13	49.42	11.30			
요인3 불안감	차이 없음	69	51.12	8.05	1.003	0.424	
	50km	66	48.79	10.24			
	100km	20	48.78	10.24			
	200km	31	48.84	10.65			
	300km	51	51.25	11.68			
	450km	5	44.11	10.91			
	해외	13	52.85	10.35			

\*p<0.05, \*\*p<0.01, \*\*\*p<0.001



[그림 5-21] 거리 차이에 따른 적응 정도

### 5.3. 결과 해석

#### 5.3.1. 거주환경요소 분류에 따른 영향요인 분석

52가지 예상 영향요인의 영향 유무 파악 결과 일반특성 다섯 가지 중 기숙사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입학시기’와 동 ‘기숙사 다른 방 거주 경험’의 두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거주환경요소는 표5-63과 같이 나타났다. 차이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더라도 현재 기숙사의 ‘침실의 면적(A13)’, ‘채광 및 조망(A14)’, ‘건물의 노후 정도(A23)’,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A33)’, 외부와의 관계2\_대중교통(A35)’ 등과 같이 차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거나 다른 요소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는 영향요인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도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2\_수직’과 같이 종속변수와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에는 영향요인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거주환경요소의 세 가지 분류인 현재 기숙사, 이전 거주지, 변화격차로 나누어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현재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는 20개 중 13개,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는 15개 중 5개, 변화격차는 12개 중 3개가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항목의 총 개수는 다르지만 동일 분석항목일 때 예상 영향요인의 수 대비 영향요인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현재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이며 이전 거주지와 변화격차의 영향요인은 모두 현재 기숙사의 영향요인에 포함되어 있어 현재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가 우선적인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5-63] 거주환경요소 분류에 따른 영향요인 판별

구분		세부항목	현재기숙사		이전거주지		변화격차	
개인	거주자	거주기간	A01-1	○	B01	○	C01	-
			A01-2	○				
		거주형태	(동일)		B02	○	C02	-
평면 환경 요소	개인공간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A11	○	B11	-	C11	-
	단위실	단위실 구성	A12	○	B12	○	C12	-
		침실의 면적	A13	○				
		채광 및 조망	A14	○				
		거주인원	A15	○	B15	-	C15	○
		거주자의 구성	A16	○	B16	○	C16	-
		단위실 내 시설	A17	○	B17	-	C17	○
배치 환경 요소	기준층	기준층 공간구조1_주거부분	A21	○	B21	-	C21	-
		기준층 공간구조2_공용부분	A22	○				
	거주동	건물의 노후 정도	A23	○				
		건물 내 시설	A24	○	B24	○	C24	-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1_수직	A25	-	B25	-	C25	-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2_수평	A26	-				
입지 환경 요소	건물군	건물군 내 편의시설과의 관계	A31	○	B31	-		
	단지	단지 내 가로망 체계	A32	○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	A33	○	B33	-		
		외부와의 관계1_도보	A34	-				
		외부와의 관계2_대중교통	A35	○	B35	-		
		단지 외부 환경1_지역지구	(동일)		B36	-	C36	-
		단지 외부 환경2_행정구역	(동일)		B37	○	C37	○

O: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발생, -: 유의미한 차이 없음

■ : 영향요인, □ : 판별보류

### (1) 현재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인 영향요인

현재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는 개인적 요소와 평면환경요소, 배치환경요소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입지환경요소는 단지 내부에 대한 요소는 영향요인이나 단지 외부와의 관계는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기숙사에서는 단지를 경계로 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와 ‘건물군 내 편의시설과의 관계’는 현재 기숙사에서만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숙사라는 주거유형의 특성상 한정된 영역에서만 생활해야 한다는 점 때문으로 추측되며 기숙사의 환경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도심으로부터 분리되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으로 인해 타 대학에 비해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캠퍼스 및 기숙사 단지 내로

생활반경이 한정되기 쉬운 조건인 것이 작용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와 ‘외부와의 관계2\_대중교통’ 등이 비록 영향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 역시 분석대상지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추측된다. 또한 배치환경요소 중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수직)’은 현재 기숙사뿐만 아니라 이전 거주지와 변화격차에서도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위실과 단위실의 관계나 거주동의 단지 내 입지 등과 달리 건물 내부에서 단위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기숙사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인 영향요인

이전 거주지는 개인적 요소와 평면환경요소, 입지환경요소의 일부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배치환경요소는 모두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것들도 ‘단위실 구성’을 제외하면 모두 비(非)물리적 요소이다.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거주형태’, ‘단위실 구성’, ‘거주자의 구성’은 이전 거주지에서는 영향요인인 항목이 변화격차에서는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유형에서 특정 유형으로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보다 현재의 유형이 무엇인지, 또 이전 거주지에서의 유형이 무엇인지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행정구역’의 경우 변화격차와 이전 거주지 모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기숙사의 행정구역이 모두 동일한 상태이므로 이전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어디냐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인지 현재 기숙사와 이전 거주지의 행정구역 거리차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 (3) 변화격차인 영향요인

적응이 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통해 추측했던 것과는 달리 거주환경요소의 변화격차는 기숙사생활 적응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숙사와 이전 거주지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항목의 대부분이 변화격차에서는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향요인 중 ‘거주자의 구성’과 ‘단위실 내 시설’은 이전 거주지에서는 영향요인이 아니므로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자 구성과 단위실 내 시설이 어떠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변화 양상에 따라 적응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행정구역’은 이전 거주지와 변화격차 모두에서 영향요인이나 현재 거주지가 모두 동일하므로 이전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독립적으로 작용한 것인지 상대적 차이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전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수도권에 속하는가 여부에 따라 적응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으로 볼 때 변화격차의 행정구역만이 영향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 5.3.2. 세 가지 요인의 영향요인 분석

앞서 현재 기숙사, 이전 거주지, 변화격차의 분류에 따른 영향요인을 살펴보면서 기숙사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를 세분화 하여 변화수용도, 익숙함, 불안감의 세 가지 요인 각각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64는 세 가지 요인별로 각 항목의 차이검정의 유의확률과 영향요인 여부를 표현한 것으로 차이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더라도 현재 기숙사의 이전 거주지의 ‘거주기간’에 의한 요인2 익숙함의 차이 등과 같이 차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거나 다른 요소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는 영향요인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대로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세 요인과의 상관관계가 있고 다른 영향요인과 상충되지 않는 요소는 영향요인에 포함시켰다.

표 5-64를 통해 영향요인의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요인1 변화수용도와 요인2 익숙함은 비슷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나 요인3 불안감은 나머지 두 요인과는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1 변화수용도가 현재 기숙사보다 이전 거주지 및 변화격차에 해당하는 영향요인이 많은 반면 요인3 불안감은 대부분의 영향요인이 현재 기숙사에 해당되며, 요인2 익숙함은 요인3 불안감과 겹치는 영향요인이 하나도 없어 기숙사생활 적응의 요인임은 동일하나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각 요인별 영향요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64] 요인별 영향요인 판별

구분			코드	세부항목	요인1 변화수용도	요인2 익숙함	요인3 불안감
일반특성			X01	성별	0.513	0.284	0.356
			X02	소속	0.130	0.203	0.204
			X03	전공	0.635	0.514	0.365
			X04	입학시기	0.020*	0.007**	0.664
			X05	동 기숙사 다른 방 거주 경험	0.017*	0.003**	0.110
현재 기숙사	개인	거주자	A01-1	거주기간1_기숙사 전체	0.005**	0.000***	0.751
			A01-2	거주기간2_현재 거주 중인 방	0.550	0.009**	0.233
	평면	단위실	A11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0.268	0.063	0.040*
			A12	단위실 구성	0.161	0.179	0.007**
			A13	침실의 면적	0.346	0.207	0.050*
			A14	채광 및 조망	0.309	0.475	0.025*
			A15	거주인원	0.591	0.358	0.015*
			A16	거주자의 구성	0.046*	0.010*	0.518
			A17	단위실 내 시설	0.161	0.179	0.007**
	배치	기준층	A21	기준층 공간구조1_주거부분형식	0.553	0.588	0.042*
			A22	기준층 공간구조2_공용부분형식	0.161	0.179	0.007**
		거주동	A23	건물의 노후 정도	0.199	0.319	0.015*
			A24	건물 내 시설	0.383	0.864	0.017*
			A25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1_수직	0.812	0.498	0.373
			A26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2_수평	0.433	0.289	0.134
	입지	건물군	A31	건물군 내 편의시설과의 관계	0.315	0.769	0.016*
			A32	단지 내 가로망 체계	0.211	0.167	0.024*
		단지	A33	단지의 캠퍼스 내 입지	0.200	0.198	0.040*
			A34	외부와의 관계1_도보	0.134	0.433	0.170
			A35	외부와의 관계2_대중교통	0.159	0.075	0.023*
이전 거주지	개인	거주자	B01	거주기간	0.016*	0.000***	0.053
			B02	거주형태	0.032*	0.988	0.539
	평면	단위실	B11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0.512	0.144	0.431
			B12	단위실 구성	0.034*	0.300	0.922
			B15	거주인원	0.108	0.262	0.406
			B16	거주자의 구성	0.035*	0.737	0.417
			B17	단위실 내 시설	0.133	0.545	0.796
	배치	거주동	B21	기준층 공간구조1_주거부분형식	0.091	0.569	0.301
			B24	건물 내 시설	0.451	0.891	0.047*
			B25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1_수직	0.782	0.866	0.380
	입지	건물군	B31	편의시설과의 관계	0.170	0.462	0.376
			B33	교육시설과의 관계	0.282	0.625	0.235
		단지	B35	외부와의 관계_대중교통	0.205	0.206	0.809
			B36	외부 환경1_지역지구	0.142	0.194	0.984
			B37	외부 환경2_행정구역	0.006**	0.563	0.602
변화 격차	개인	거주자	C01	거주기간	0.418	0.422	0.473
			C02	거주형태	0.619	0.994	0.708
	평면	단위실	C11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0.422	0.085	0.348
			C12	단위실 구성	0.531	0.864	0.402
			C15	거주인원	0.039*	0.357	0.025*
			C16	거주자의 구성	0.277	0.791	0.092
			C17	단위실 내 시설	0.016*	0.226	0.560
	배치	거주동	C21	기준층 공간구조1_주거부분 형식	0.301	0.802	0.291
			C24	건물 내 시설	0.646	0.693	0.206
			C25	단위실의 건물 내 입지1_수직	0.671	0.565	0.731
	입지	단지	C36	외부 환경1_지역지구	0.194	0.698	0.844
			C37	외부 환경2_행정구역	0.013*	0.546	0.424

\*p&lt;0.05, \*\*p&lt;0.01, \*\*\*p&lt;0.001

## (1) 변화수용도

변화수용도는 이전 거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재 기숙사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로 변화수용도가 높을수록 거주환경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화수용도의 영향요인은 총 12개로 이전 거주지와 변화격차에 해당하는 요소가 많은 경향이 있다. 영향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입생보다 재학생이, 동 기숙사 다른 방 거주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룸메이트가 아는 사람인 경우, 이전 거주지의 동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 변화수용도 높았으며 기숙사 총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전 거주지의 거주기간이 낮을수록 변화수용도 높았다. 또한 이전 거주지에서보다 거주인원이 증가하고, 단위실 내 시설이 동일한 경우, 행정구역과의 변화격차가 작을수록 변화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수용도는 ‘입학시기’, ‘관악사 다른 방 거주 경험’, 현재 기숙사 및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등과 같이 시간과 경험에 대한 항목들이 주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전 거주지의 영향을 덜 받고 기숙사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변화수용도가 높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숙사 단위실에서의 ‘거주자 구성’이나 이전 거주지의 ‘거주형태’, ‘거주인원’의 변화격차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나는 등 비물리적 거주환경요소가 변화수용도의 영향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변화수용도의 영향요인 중 물리적 거주환경요소는 이전 거주지의 ‘행정구역’과 ‘행정구역’의 변화격차, 이전 거주지의 ‘단위실 구성’, ‘단위실 내 시설’의 변화격차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전 거주지가 서울로부터 가까울수록 높은 변화수용도를 보였으며 단위실 내 시설이 유사할수록 즉, 단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의 종류가 이전 거주지와 유사할수록 높은 변화수용도를 보였다.

종합하여 볼 때, 변화수용도는 비물리적인 거주환경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현재 기숙사의 독립적인 환경보다 변화내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축적 차원의 변화보다는 도시적 차원의 생활변화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익숙함

익숙함은 기숙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로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익숙함이 곧 응답자들이 스스로가 기숙사에 얼마나 적응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익숙함의 영향요인은 총 5개로 그 수가 가장 적고 이전 거주지와 변화격차에 해당되는 영향요인은 하나도 없다. 영향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학시기가 이를수록, 기숙사 총 거주기간이 길수록, 현재 방 거주기간이 길수록 익숙함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동 기숙사 다른 방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와 룸메이트가 아는 사람인 경우에도 익숙함 정도가 높았다.

익숙함은 변화수용도와 마찬가지로 비물리적 거주환경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며 세 가지 요인 중 영향요인의 수가 가장 적었다. 특히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6개 항목 중 현재 기숙사의 ‘거주자의 구성’을 제외한 5개 항목이 거주기간 및 경험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익숙함이라는 요인은 어떤 특성의 환경인가보다 환경에 노출되는 빈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불안감

불안감은 감정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지 않은가를 측정하는 척도로 앎, 인지와 관련된 익숙함과 달리 감정적이고 무의식적인 부분과 관련된 요인이다.

불안감의 영향요인은 총 12개이나 분석대상지의 특성상 ‘단위실 구성(A12)’, ‘단위실 내 시설(A17)’, ‘공용부분형식(A22)’의 세 항목이 동일 집단으로 묶이므로 10개의 영향요인과 마찬가지로이다. 영향요인은 현재 기숙사의 물리적 거주환경요소에 해당되는 요소가 대부분이며 영향요인의 분포와 내용으로 볼 때, 나머지 두 요인과 다른 성격을 갖는다. 특히 불안감은 변화수용도 및 익숙함과 달리 거주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숙사라는 특수한 물리적 거주환경이 주는 불안감이 있으며,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는 성질의 것이므로 기숙사 계획단계부터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영향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위실 내에 칸막이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 원룸형보다 아파트형인 경우, 복도형보다 계단실형인 경우, 건물 내 편의시설이 있

는 경우에 불안감이 낮았다. 또한 이전 거주지보다 거주인원이 증가했거나 거주인원이 많을수록, 주출입구로부터 깊이가 깊지 않을수록, 단지 내에서의 통합도가 중앙값에 가까울수록,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불안감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립된 환경일수록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숙사에서는 2인실보다 1인실이, 개실형보다 원룸형이 선호된다. 그러나 분석 결과 예상과 달리 불안감의 측면에서는 1인실의 불안감이 가장 높고 6인실로 인원이 증가할수록 불안감이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원룸형의 불안감이 가장 높고 개실형, 아파트형으로 불안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 선호도와 불안감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별도로 연구되어야 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평면환경요소뿐만 아니라 배치환경요소 및 입지환경요소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진다. 거주동 주출입구로부터의 깊이가 깊을수록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 역시 외부와의 단절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단지 내에서 거주동 주출입구의 통합도 역시 통합도가 너무 낮은 즉, 단지 내 임의의 지점에서 접근하기 몹시 어려운 곳에 거주동이 위치한 경우 불안감이 높게 나타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거주동 주출입구의 통합도는 평면환경요소와 달리 중간값에서의 불안감이 가장 낮아, 적당히 고립되고 적당히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도록 전반적인 통합도의 격차를 낮추는 것이 불안감 해소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불안감은 개개인의 경험이나 거주기간,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 거주환경요소의 변화 격차와 같이 건축가가 조정 불가능한 요소의 영향력은 미비하지만 현재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의 영향력이 강하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영향요인의 분석내용을 기숙사 계획 시 반영한다면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적게 느끼는 기숙사를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3.3. 국내 기숙사 변화과정 평가 및 방향 제안

본 연구의 분석결과 거주기간 및 비물리적 거주환경요소의 영향을 받는 변화수용도 요인 및 익숙함 요인과 달리 불안감은 현재 기숙사의 물리적 거주환경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양적 성장에 걸쳐 최근 질적 성장에 이르기까지의 대학 기숙사의 변화과정을 기숙사생활 적응 중 불안감 요인의 측면에서 점검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내 기숙사의 변화과정을 거주환경요소에 집중하여 정리해보면 표 5-65와 같다. 먼저 양적 성장의 시기인 1970,80년대의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수면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시설이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의 단위실에 6~10명의 학생을 배정하였고 침실 이외의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부터 4인1실, 2인1실의 개념이 나타났으나 여전히 관리가 용이하도록 복도형으로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대학 기숙사의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기숙사 내에서의 각종 거주자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방(unit)에서의 거주인원도 1~2명으로 줄었으며 일반 주거와 유사한 아파트형이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거주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도 단위실이 독립적인 거주기능을 갖는 원룸형 단위실이 등장하였다.

[표 5-65] 기숙사 주요 거주환경요소의 시대별 변화내용  
(우영식 (2015). 국립대학 생활관의 건축계획 특성과 거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재구성)

구분		주요 개념	단위실 거주인원	단위공간 구성	주거부분 형식	편의시설
양적 성장	1960,70 년대	단순 침실공간 제공 단순 숙박의 개념	6~10	개실형	복도형	없음
	1980년대	단위실 중심의 기숙사시설과 부속시설 증대	4~6	개실형	복도형	없음
질적 성장	1990년대	교육지원시설로서 복지 및 편의시설 증대	2~4명	아파트형	계단실형 복도형 타워형	있음
	2000년 이후	시설 다양화와 거주자 서비스 중심	1~2명	원룸형	복도형 타워형	있음

대학 기숙사의 시대별 변화를 단위실의 거주인원, 단위공간 구성, 주거부분 형식, 편의시설의 유무에 따라 기숙사생활 적응의 측면에서 평가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위실에 있어서는 단위실 거주인원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단위공간의 구성은 각 단위실의 독립적인 거주기능을 확보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 2인실보다 1인실의 불안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개실형, 아파트형, 원룸형

중 원룸형의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프라이버시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거주자들은 기숙사 단위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지내는 데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의 거주인원은 2명이나 단위공간의 총 거주인원은 6인인 아파트형 경우의 불안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위실의 공간구성 및 거주인원이 거주자의 불안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주거부분 형식에 있어서는 계단실형이 복도형 및 타워형보다 낮은 불안감을 보였는데 이는 단위실과 달리 기준층에서의 공용공간은 많은 수의 인원과 공유하는 것이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 대학 기숙사에 계단실형이 등장한 것이 기숙사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편의시설의 경우 건물 내 상가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경우가 가장 불안감이 낮았으며 상가로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불안감이 낮은 경향을 보여 질적 성장이 시작되면서 대학 기숙사에 각종 편의시설이 배치된 것이 기숙사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자면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온 기숙사의 단위실은 오히려 거주자의 불안감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은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기숙사 거주자들이 단위실의 영역에서는 프라이버시보다 타인과의 소통 및 친밀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기준층의 영역에서는 반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과 공용시설을 공유하는 것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위실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준층에 다양한 공용시설을 배치하는 최근의 변화가 기숙사생활 적응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기숙사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기준층 및 건물의 영역에서 커뮤니티 시설 및 기타 공용공간을 풍부하게 배치하기보다는 아파트형과 같이 단위실에 거실이 배치되는 방식이나 몇 개의 독립된 단위실을 소그룹으로 묶어 공용시설을 공유하는 클러스터 타입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편의시설의 배치는 생활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시설이 단위실과 동일 건물에 있을 때 불안감이 낮게 나타나 편의시설의 유무뿐만 아니라 배치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단지 내 가로망 및 거주동의 입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각

거주동 주출입구의 통합도가 높을수록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기숙사 계획에서는 거주동 및 편의시설의 단지 내 입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 6 장 결 론

---

6.1 연구의 종합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 6.1. 연구의 종합

본 연구는 학생들의 기숙사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물리적 환경 지원을 위해, 기숙사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를 파악하고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기숙사의 속성과 적응의 개념,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인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를 입지환경요소, 배치환경요소, 평면환경요소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기숙사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종속변수를 변화수용도, 익숙함, 불안감의 세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현재 거주중인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와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 거주환경요소의 변화 격차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거쳐 각각의 세부항목이 기숙사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며, 이를 거주환경분류별로 전체적인 영향요인의 분포를 살펴본 후 이를 다시 요인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의 분류기준인 현재 기숙사, 이전 거주지, 변화 격차 중 가장 영향요인이 많은 것은 현재 기숙사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 중 개인적 요소, 평면환경요소, 배치환경요소는 대부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입지환경요소 중 단지를 경계로 영향요인 여부가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인 영향요인은 비(非)물리적 요소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예상과 달리 거주환경요소의 변화격차는 영향요인의 수가 적어 현재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가 기숙사생활 적응에 우선적인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종속변수인 기숙사생활 적응의 세 가지 요인별로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변화수용도가 현재 기숙사보다 이전 거주지 및 변화격차에 해당하는 영향요인이 많은 반면 불안감은 대부분의 영향요인이 현재 기숙사에 해당되며, 익숙함은 불안감과 겹치는 영향요인이 하나도 없는 등 기숙사생활 적응의 요인별로 영향요인의 성격과 분포가 다르다.

셋째, 기숙사생활 적응의 세 가지 요인 중 변화수용도는 거주기간, 거주자의 구

성,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형태 등 비(非)물리적 거주환경요소 영향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나머지 두 요인과 달리 행정구역과 같은 도시적 차원의 생활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숙사생활 적응의 세 가지 요인 중 익숙함은 거주기간 등과 같이 시간과 경험에 관련된 항목들만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특성의 환경인가보다 단순히 환경에 노출되는 빈도가 중요한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기숙사생활 적응의 세 가지 요인 중 불안감은 나머지 두 요인과 다르게 물리적 거주환경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이나 동 기숙사 다른 방에서의 거주 경험 등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거주지나 상대적 변화보다 현재 기숙사의 거주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숙사생활 적응에 있어서 기숙사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불안감 요인의 영향요인 내용으로 볼 때 기숙사 거주자들은 고립된 환경일수록 불안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평면환경요소, 배치환경요소, 입지환경요소에서 모두 나타나나 건물 이내의 환경에서는 고립되지 않은 환경이 가장 불안감이 낮은 것과 달리 거주동의 단지 내 입지에서는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환경일 때 불안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론을 종합하여 지난 2,30년에 걸쳐 진행된 국내 기숙사의 물리적 변화가 기숙사생활 적응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유추하고 거주자들의 기숙사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기숙사를 위해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국내 대학 기숙사의 물리적 변화는 기숙사생활 적응 요인 중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위주로 이루어졌다. 단위실 거주인원의 변화로 볼 때, 단위실에서의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는 거주자의 불안감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실형의 단위실 구성에서 아파트형으로, 다시 아파트형에서 원룸형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거주자의 선호와 편리성으로 인해 각광받는 원룸형은 기존의 개실형과 아파트형보다 높은 불안감을 보였다. 주거부분과 공용부분의 형식에 있어서 커뮤니티공간을 층 또는 건물 단위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온 것과 달리 거주자들은 커뮤니티공간이 단위실 안에 위치하는 경우에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성장과 함께 등장한 건물 내 편의시

설은 거주자의 불안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제안이 가능하다. 첫째, 거주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각 단위실의 거주인원은 줄이되 고립감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주거부분의 형식과 공용부분의 형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의 아파트형과 같이 하나의 거실을 공유하는 단위실 유형 이외에 몇 개의 독립된 단위실들을 소그룹으로 묶어 적은 인원을 위한 공용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의 기숙사를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질적 성장이 단위실과 기준층의 영역에 집중된 것과 달리 편의시설 및 각 거주동의 입지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금과 같이 편의시설을 일부 거주동에 몰아서 배치하기 보다는 기능별로 각 거주동에 분산하는 것을 제안한다.

##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지금까지 만족도, 선호도 등과 구분 없이 사용되어 온 적응 정도의 측면에서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를 다루며, 관습적으로 계획되어온 대학 기숙사를 정량화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숙사생활 적응 척도는 통계적으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나 학문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측정방법이라는 점에서 실제 적응 정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적응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적어도 ‘변화수용도’, ‘익숙함’, ‘불안감’의 세 가지 세부적 관점에서는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 이어 다양한 관점에서 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선택하면서 조사 방법에 의한 여러 한계가 발생하였다. 직접방문설문의 경우 응답자가 질문의 의도를 조사자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조사는 응답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응답하게 되었는데 응답대상자의 대부분이 건축분야 비전공자이며 물리적 환경요소를 식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세부항목을 묻는 질문의 표현과 내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의도와 다른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비조사를 통해 응답자가 이해

하기 어려운 문항을 걸러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였으나 여전히 응답자가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또한 설비요소나 도면을 보지 않으면 정확히 답하기 어려운 항목은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현재 거주중인 기숙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전 거주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였으나 이 부분은 응답자의 응답에 100% 의존해야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응답자 각각의 이전 거주지 컨디션이 달라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보니 현실적으로 이전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는 현재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만큼 세밀하게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사한 환경요소 내에서의 영향력 유무를 분석한 것이지 전체 영향요인을 대변할 수는 없으며 그리고 기숙사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적응 이외에도 많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기숙사 계획에 있어 고려해야할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거주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없이 진행되어온 기숙사의 질적 성장을 거주자의 반응을 통해 평가해 보았다는 점과 적응을 우선시 하는 기숙사를 계획하고자 할 때 간과하지 않아야 할 요소를 짚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및 보고서

- 김계수 (2007). *NEW AMOS 16.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조장환, 정대영, 윤혜령 (2012). *서울대 기숙사 : 서울대생들의 공부·꿈·열정이 숨쉬는 곳*. 서울: 다산에듀.
- 최규학 (2006). *(학생들의 자유를 '배려'하는)기숙사 건축문화 = Student housing*. 서울: 멘토 press.
- Gates, A. I. (1923). *Psychology for students of education*. Macmillan.
- J. Chira, H. Callender (1983) *Time Saver Standards for Building Types*. New York: Mc Grawhill Book Company.
- Lazarus,R.F.(1976).*PatternsofAdjustment(3rded.)*.NY:Mcgraw-Hill
- Piaget, J. (1952).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Vol. 8, No. 5, pp. 18-1952).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Richard, P. Dober (1963) *Campus Planning*, Cambridge Mass. : Reinhold Publ. Corporation.
- Rapoport, Amos (1995) *주거형태와 문화* (이규복 역), 서울: 열화당
- Wolman, B. B. (1973). *Concerning psychology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Prentice Hall.

### 학위논문

- 고권수 (2008). 아파트의 환경특성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곽용 (2011). 제한 중국유학생의 대학환경 지각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훈(2011).초등 체육전담 교사의 적응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박신웅 (2010). 대안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숙사생활 적응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



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행자 (2008). 대학기숙사 거주환경의 인과분석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기수 (1994). 대학기숙사 건물의 거주후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강희 (2009). 지방캠퍼스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연구 요인.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우갑 (1993). 집합주거설계의 환경인지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우영식 (2015). 국립대학 생활관의 건축계획 특성과 거주성 평가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지상 (1990). 대학기숙사 거주공간의 환경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 (2007). 학생의 환경적 요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갑 (2002). 대학기숙사 건축의 평면유형별 거주 후 평가 - 전남, 광주지역소재 대학기숙사를 대상으로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애순 (2009). 기숙사와 자가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른 특목고의 기숙사 환경개선 요구도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용부 (2005). 아파트 주거만족도의 구성요소와 관련요인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용재 (2013). 특수학급 교사의 교직 적응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성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수길 (2004). 대학기숙사의 유형변화에 따른 기능별 Space Program에 관한 연구 - 국립대학 기숙사를 대상으로. 경상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학회논문 및 정기간행물

- 김동근 (2011). 단기 주거에서의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설계학회지, 12(5), 79-90.
- 김민경 (2015). 거주자 선호도 분석에 기초한 행복연합기숙사 건축계획연구 - 캠퍼스 외부형 원거리 소재 행복연합기숙사를 중심으로 -
- 류숙희, 이은정 (2013). 대학 기숙사의 실내 색채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14(4), 185-193.
- 염대봉, 박성진 (2014). 대학기숙사의 입지유형이 기숙사생들의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16(1), 53-63.
- 이찬 (2004). 대학기숙사 건축 및 디자인 계획 현황과 전망, 조형논총, 23, 673-688.
- 임성호, 김철수, 윤병구 (1998). 단독주택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소 논문보고집, 21(1), 113-122.
- 임혜진, 홍형욱 (2012). 대학기숙사 거주 외국인학생들의 실내환경 만족도 및 요구
- 조지용 (2014).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신학과 목회, 42, 271-291.
- 최재필, 변나향, 김민석 (2010).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의 시기별 접근성 변화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4), 1-9.
- 허진선, 양세화 (2002). 기숙사 단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영역성 지각과 거주만족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18(8), 91-98.
- Baker, Robert W., and Bohdan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984): 179.
- Churchill, G. A. (1979).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s of Marke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6, 64-73.

## 웹사이트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http://www.auric.or.kr>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http://dorm.snu.ac.kr>

## 인터넷기사

- 천주연. (2016.09.01.). 충청대학, 기숙사 학생대상 인성검사·안전교육 실시.  
*한국대학신문*. Retrieved from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3095>
- 권현수. (2016.03.17.). 경일대, 활기찬 캠퍼스 위한 대학생생활관 탈바꿈.  
*머니투데이*. Retrieved from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1715237499989  
&outlink=1](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1715237499989&outlink=1)

## 부 록

- 
- 설문지 (직접 작성용)
  - 설문지 링크 및 QR코드
-



## ■ 설문지 (직접 작성용)

### 기숙사 생활 적응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석사과정의 백수연입니다.

본 설문지는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가 기숙사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거주중인 기숙사와 기숙사 이전에 거주했던 곳에 대한 정보를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기숙사(관악사) 900~926동에 거주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문에는 5분 정도 소요되며, 답변이 일부만 기입된 경우 설문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마지막까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학술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연구자 : 백수연 (010-4626-4698)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I. 기본 정보

- 1) 성별 : 남 / 여
- 2) 나이 : \_\_\_\_세 (한국나이)
- 3) 소속 : 학부 / 대학원
- 4) 전공 : ①의약학계열      ②이공계열      ③인문사회계열      ④예체능계열      ⑤기타(      )
- 5) 입학시기 : \_\_\_\_년 \_\_\_\_월
- 6)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 이전 거주장소
  - ① 관악사 다른 방
  - ② 관악사 이외의 곳 (자취, 다른 기숙사, 자택통학, 친척집, 자인집 등)

※ '①관악사 다른 방' 을 선택한 경우 추가질문

6-1) 현재 살고 있는 방 이전의 방은 \_\_\_\_동 \_\_\_\_층 \_\_\_\_인실 (ex: 919A동 3층 6인실)

6-2) 관악사에서 자낸 총 기간 : \_\_\_\_년 \_\_\_\_개월

## II. 현재 거주중인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에 대한 조사

다음 질문은 현재 거주중인 기숙사 단위실(6인실은 기실 포함)에 대한 일반사항과 기숙사 이용행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 1) 현재 살고 있는 방에서의 거주 기간 : \_\_\_\_개월
- 2) 현재 살고 있는 방은 \_\_\_\_동 \_\_\_\_층 \_\_\_\_인실 (ex: 919A동 3층 6인실)
- 3) 룸메이트의 구성  
 ①본인 혼자                      ② 친구 혹은 지인                      ③ 모르는 사람 (방을 같이 쓰면서 알게 된 사이)
- 4) 다음의 여섯 가지 활동을 단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순서부터 나열해주세요.  
 ①수면    ②식사    ③학습    ④세탁    ⑤여가    ⑥친목 (해당 없는 활동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 \_\_\_\_\_
- 5) 기숙사 내 부가시설 중 자주 이용하는 시설 (모든 선택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거의 이용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900동의 편의점
<input type="checkbox"/> 문화시설 (공연장 및 강연장)	<input type="checkbox"/> 900동의 택배시설
<input type="checkbox"/> 운동장 등의 무료운동시설	<input type="checkbox"/> 900동, 919동의 기타 생활면의시설 (세탁소 헤어샵 등)
<input type="checkbox"/> 919동 및 900 지하의 유료운동시설	<input type="checkbox"/> 919동의 매점
<input type="checkbox"/> 920동 1층의 사랑채	<input type="checkbox"/> 901동, 919동의 학습시설 (식당 야간 독서실)
<input type="checkbox"/> 901동 카페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input type="checkbox"/> 900동의 음식점 (카페, 호프, 베이커리 등)	

## III.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에 대한 조사

다음은 관악시에 거주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하 '이전 거주지')의 거주환경요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분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관악시에 들어오기 직전 실제로 살았던 곳에 대한 질문임에 유의하여 응답 바랍니다.

- 1) 이전 거주지의 행정구역  
 ①서울                      ②경기도, 인천                      ③강원도                      ④충청북도                      ⑤충청남도, 대전  
 ⑥경상북도, 대구                      ⑦경상남도, 부산, 울산                      ⑧전라북도                      ⑨전라남도, 광주                      ⑩제주도                      ⑪해외
- 2)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 기간 : \_\_\_\_년 \_\_\_\_개월
- 3) 이전 거주지에서의 거주 형태  
 ①주택에서 통학                      ② 관악사 이외의 기숙사                      ③자취                      ④기타(                      )
- 4) 다음은 이전 거주지에서 각 시설로 가는 데 걸렸던 시간을 묻는 질문입니다. (ex: 버스로 10분 / 도보로 20분 등)  
 4-1) 학교(학원)  
 : 고등학교, 재수학원, 검정고시학원,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  
 (직장을 다니다 진학한 경우 직장에서의 통근시간 기준) \_\_\_\_\_로 \_\_\_\_분  
 4-2) 상업시설  
 : 평소 주로 이용하던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_\_\_\_\_로 \_\_\_\_분  
 4-3) 대중교통  
 :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대중교통시설 \_\_\_\_\_로 \_\_\_\_분
- 5) 이전 주거지 주변의 환경  
 ①주거지역                      ②상업지역                      ③공업지역                      ④녹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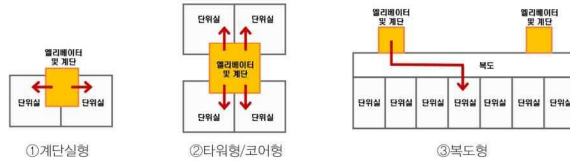
6) 이전 거주지의 주거유형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기숙사, 원룸, 오피스텔 등)

※ ②공동주택을 선택한 경우 추가질문

6-1) 이전 거주지의 단위실 배치유형

이전 거주지에서 같은 층에 위치한 단위실이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림을 보고 가장 유사한 타입을 선택해주세요.



6-2) 이전 거주지에서 살았던 층 : \_\_\_\_\_층

6-3) 거주했던 건물에 있었던 편의시설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없으면 건너뛰시면 됩니다.)

①없음    ②학습시설(도서관 등)    ③운동시설    ④상가    ⑤커뮤니티시설    ⑥기타( )

7) 이전 거주지의 공간구성

①방    ②방 + 화장실    ③방 + 화장실 + 부엌  
④방 + 화장실 + 거실    ⑤방 + 화장실 + 부엌 겸 거실    ⑥방 + 화장실 + 부엌 + 거실

※ ④⑤⑥을 선택한 경우 추가질문

7-1) 한 집에 같이 살았던 사람의 수 : \_\_\_\_\_명 (본인포함)

7-2) 한 집에 같이 살았던 사람의 구성을 모두 선택하세요. (혼자/부모/형제/조부모/친척/지인/기타)

①본인    ②조부모    ③부모    ④형제 자매  
⑤그 외 친척    ⑥친구 및 지인    ⑦모르는 사람 (같이 살면서 처음 알게 된 경우)

7-3) 다음의 여섯 가지 활동을 '집'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순서부터 나열해주세요.

①수면    ②식사    ③학습    ④세탁    ⑤여가    ⑥친목  
(해당 없는 활동은 제외하시면 되며, 대학 진학하기 전 1~2년을 기준으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 \_\_\_\_\_

8) 방을 같이 사용했던 사람의 수 : \_\_\_\_\_명 (본인포함)

9) 방을 같이 사용했던 사람의 구성

①본인    ②조부모    ③부모    ④형제 자매  
⑤그 외 친척    ⑥친구 및 지인    ⑦모르는 사람 (같이 살면서 처음 알게 된 경우)

10) 다음의 여섯 가지 활동을 '방'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순서부터 나열해주세요.

①수면    ②식사    ③학습    ④세탁    ⑤여가    ⑥친목  
(해당없는 활동은 제외하시면 되며, 관악사에 들어오기 전 1~2년을 기준으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 \_\_\_\_\_



#### IV. 기숙사 생활 적응 정도에 대한 조사 (5점척도 15문항)

다음은 현재 거주 중인 기숙사 전체 혹은 각자의 방에 대한 적응 정도를 묻는 항목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해당 정도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거주 중인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이 편안하다.					
2) 나는 현재 거주 중인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이 익숙하다.					
3) 나는 기숙사에 들어오기 전에 지내던 곳이 그림다.					
4) 나는 하루 중 되도록이면 기숙사에 있지 않으려 한다.					
5) 나는 기숙사에 들어오고부터 잠을 잘 자지 못한다.					
6) 나는 기숙사 내 방이 어색하다.					
7) 나는 생활에 필요한 사설이 기숙사 내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알고 있다.					
8) 나는 기숙사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9) 나는 기숙사를 '집' 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10) 나는 기숙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였다.					
11)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숙사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다.					
12) 나는 기숙사에서 지내고부터 긴장되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13) 나는 기숙사가 이전에 살던 곳만큼 편안하다.					
14) 나는 기숙사가 이전에 살던 곳만큼 익숙하다.					
15) 나는 기숙사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였다.					

16) 본인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기숙사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

(아직 적응이 안 되었다고 느낀다면 적응에 필요한 예상기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_\_\_\_\_개월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설문지 QR코드

### 기숙사 생활 적응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석사과정의 백수연입니다.

본 설문지는 기숙사의 거주환경요소가 기숙사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거주중인 기숙사와 기숙사 이전에 거주했던 곳에 대한 정보를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기숙사(관악사) 900~926동에 거주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문에는 5분 정도 소요되며, 답변이 일부만 기입된 경우 설문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마지막까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학술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연구자 : 백수연 (010-4626-4698)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설문지 링크에 연결됩니다.

(연결 후  **설문조사** 를 클릭해주세요.)

<http://naver.me/FE8dfu0R>



---

## Abstract

###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Dormitory Life : The Ca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ormitories

Baek, Sooye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Master Course i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Choi, Jaepil

---

Korean university dormitories are planned to pursue qualitative growth after a period of quantitative growth in the 1970s. However, since the 1990s, the physical plan for qualitative growth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and the effects of these changes on dormitory residents has not been verified. Therefore, it is time to examine the change of dormitory environments and suggest physical changes for qualitative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dormitory life adaptation and to provide a basis for qualitative growth of university dormitories to help dormitory residents adapt to the environment.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three stages. First, the element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dormitory complex, which is an independent variable, were derived. The dormitory life adaptation scale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dependent variable. Secondl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obtain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current dormitory and previous residence and three elements of dormitory life adaptation;

‘acceptance of change’, ‘familiarity’, and ‘anxiety’. Thir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each factor influenced dormitory life adaptation. In addition, through the distribution of the factors identified as influential factors, the change of Korean dormitories was evaluated and a dormitory planning method was proposed in terms of adap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current dormitory, previous residence, and difference between the two, current dormitory displayed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Different than expected,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of current dormitory and the factors of previous residence operate independently rather th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econd, among the three elements of dormitory life adaptation, ‘acceptance of change’ was influenced by non-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and urban life change. ‘Familiarity’ was affected by the frequency of exposure to the environment such as residence period and experience. ‘Anxiety’ was found to be influenced by the physical factors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dormitory, and was found to be a factor closely related to the dormitory plan.

Third, Korean dormitories have changed to focus on factors affecting ‘anxiety’.

Fourth, as a result of the plan reflecting the preference of residents, a cluster type dormitory that provides a common space by grouping independent unit rooms as a compromise plan was propos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rived quantitative data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dormitory life adaptation which have been used regardless of satisfaction and preference.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form a starting point for examining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from various perspectives.

**Keywords : university dormitory, complex type dormitory, environmental factors, adaptation**

**Student Number : 2015-21107**